우리문화재 ▶9면

# 현대불교

hyunbulnews.com 안내 (02)2004-8200 구독 (02)2004-8212

제861호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음력 10월 14일 · 불기 2555년 · 주간)

참고 견디는 인욕이야말로 더 이상 죄업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공양입니다.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관련기사 5 · 20면



861호 CONTENTS

종합 2
조계종 집행부 2주년 성과
조계종 중앙종회 188회 정기회의
봉암사 광산 개발 물의

특집 3
불교사회연구소 국민인식조사

혜총 스님 퇴임 법회 5

특집 7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특집 12 · 13
라오스 봉사현장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우리 마음도 푸르게 푸르게** 11월 2일 양양 낙산사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법회에 앞서 (사진 왼쪽 앞부터) 일중한국제불교교류위원장 이토오 유이신 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 중국불교협회장 청인 스님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이날 스님들을 비롯한 한중일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인연으로 맺어진 황금유대를 재확인하며,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실현을 위해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에서 "한중일 삼국 불자들은 인류와 사회를 바꾸는 진정한 힘은 선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혼자 누리기보다 함께 나누는 미덕,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의 어떤 재화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 선을 이기는 어떤 악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7면

글=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히말라야 등반보다 어렵네요"

### 산악인 엄홍길씨 불교TV 토크쇼 진행
### 저명인사와 우리 이웃의 삶 전할 예정



"첫 녹화를 하는데, 고산증이 오는 것처럼 숨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등에서 땀도 났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전하던 초심으로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씨(사진)가 불교TV의 새 토크쇼 '엄홍길의 챌린저 쇼 소나무'의 MC로 불자들을 찾는다. 엄 씨는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카페 '나무'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방송 진행의 소감을 전했다. 불교TV는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우리시대 도전의 아이콘인 엄홍길 씨를 MC로 결정했다. '엄홍길의 챌린저 쇼 소나무'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엄 씨는 방송 진행은 첫 도전이라 불교TV의 제안을 받고 망설였지만 프로그램 취지를 듣고는 이내 흔쾌히 허락했다.

엄홍길 씨는 "방송을 녹화하면서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울컥하기도 했다. MC를 맡기를 잘 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엄홍길의 챌린저 쇼 소나무'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CEO,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이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저명인사가 아니어도 폐지를 주워 장학금을 기부한 할머니나 길거리 노숙자를 도운 여대생, 장애를 딛고 판사가 된 고시생 등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최근 산악인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돼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이에 대해 엄홍길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사실이 아니고 그저 꿈이라고 믿고 싶다. 깊은 고통과 슬픔이 밀려온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산악계가 위축되지 말고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의 정신을 이어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악인 엄홍길 씨가 방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가 산에서 내려와 본격적으로 방송가에 데뷔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엄 씨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고산 등반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생활 수행으로 세상을 바꾸자

### 재가자 수행 프로그램 활성화
### 佛法 통한 자기 점검 계기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전국 각 사찰에서는 합격 발원 기도가 열린다.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나 경쟁 사회에서 내 자녀가 합격하려면 누군가는 불합격해야 한다.

최근 불교사회연구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불자들 대다수는 절에서 열리는 종교 행사에 년 1~6회만 참가하고 있다. 복을 빌기 위해 불교 명절과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만 참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 불교 수행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 속 수행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불교사회연구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10월 31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생활수행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불교시민사회 1차 대화마당'을 마련했다.

이날 대화마당에는 재가 안거 수행 결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와 정토회, 한마음선원 등이 참석해 자신들만의 재가 수행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의장 만초 스님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수행을 실천하려는 재가신도들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행활동은 이를 불교적 수행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복을 기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청정승가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가 안거 수행결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청정승가의 재가안거 수행은 삼귀의로부터 시작돼 7보 선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7보 선행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본수행과 선택수행을 마친 후에는 수행점검표에 결과를 기록하고 수행을 통한 변화를 남긴다. 재가안거 수행록에는 자신의 수행을 약정하고 서원하는 수행약정서원과 수행청규 등을 담아 재가자 스스로 수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토회 법사단 교육팀장 묘수 법사는 정토행자 수행의 첫 번째 원칙이 스스로 '수행자'라는 인식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묘수 법사는 "정토 수행자들은 매일 아침 서원의 기도로 하루를 연다. 매주 법회를 듣고, 수행의 관점을 잡고 법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한다. 정토구현 서원 실현을 위한 천일결사에 동참하며 정토세상을 이루기 위한 만일 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토회에서는 백일기도를 하면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천일기도를 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만일 기도를 하면 내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토행자는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정토행자들은 청정승가 재가 수행과 마찬가지로 수행 일지를 작성한다. 기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묘수 법사는 "내가 수행자임을 자각하고 그런 삶을 지향한다면 자신의 인생과 세상이 바뀌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환 한마음 과학원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수행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원칙에 대해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은 결국 생활 속의 문제를 보신 것이다. 생활 수행은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마음선원에서는 생활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마음 공생실천과정'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은 공생의 도리를 체득하고 연구와 실천을 강조한다.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이수한 초 · 중등 교사들은 '마음공부'를 실천할 수 있는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전국 20여개 초 · 중등 학급에서 실시중이다. 불교적 수행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그동안 불교는 절을 하고 참선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 했다. 대화마당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목동 국제선센터 개원 1주년 기념법회

### 11월 13일 오전 10시

템플스테이를 통한 한국불교문화세계화 전문도량 목동 국제선센터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국제선센터(주지 현조)는 11월 15일 개원1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기념법회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법문한다. 또, 김장준비물 특판 등이 진행되는 자비나눔 장터와 전통가무, 다도시연 등 문화공연이 열린다. 오후 1시에는 범주 스님의 달마도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이에 앞선 6~20일에는 범주 스님의 천년선화 달마도 특별전이 국제선센터 1 · 4층에서 전시된다. (02)2650-2214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신상품
LED인등 · 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개설

교육과정 소개
불교계의 사회적기업 확산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에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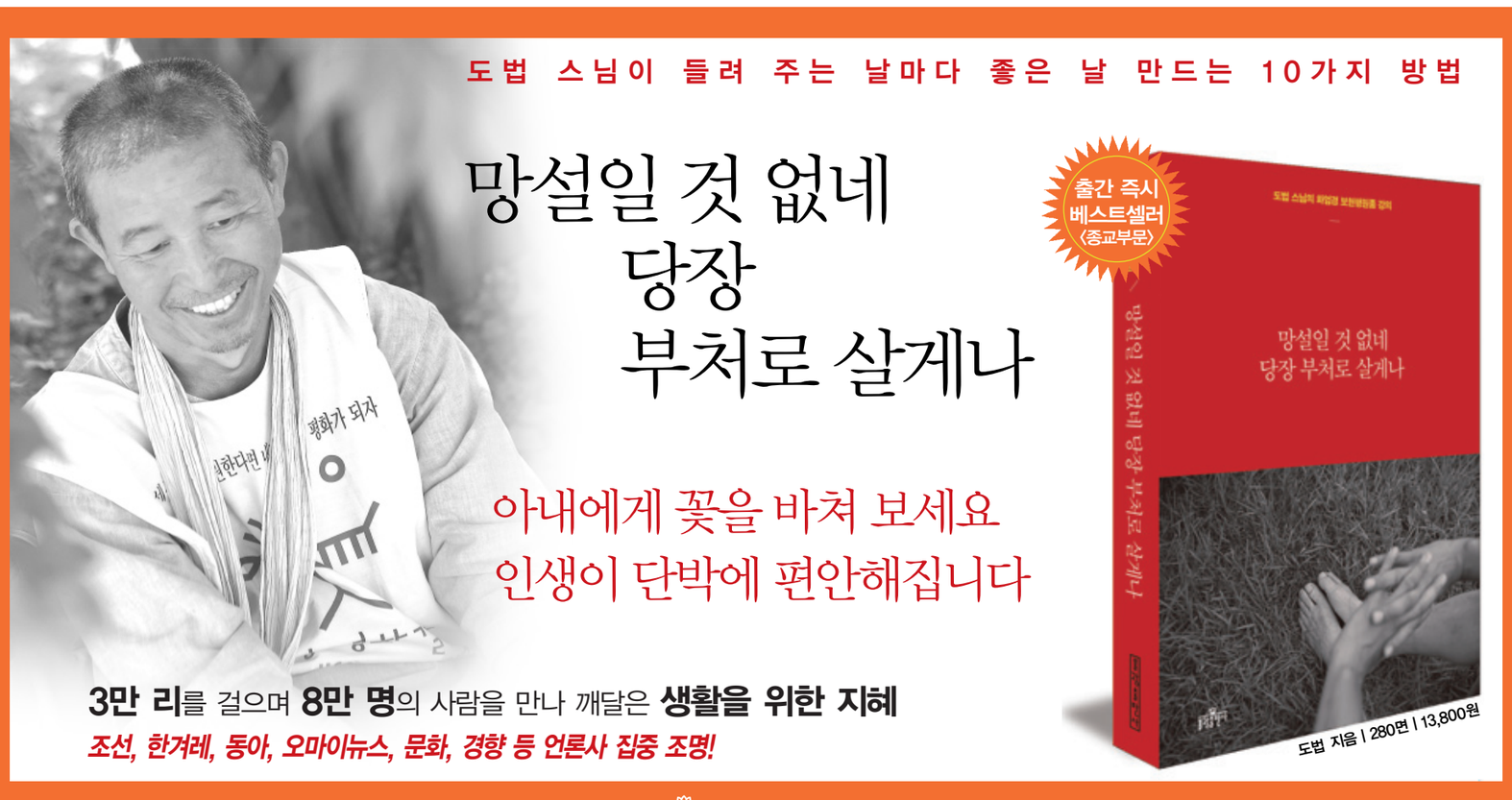
개 강 : 2011년 11월 15일 저녁 6시 전법회관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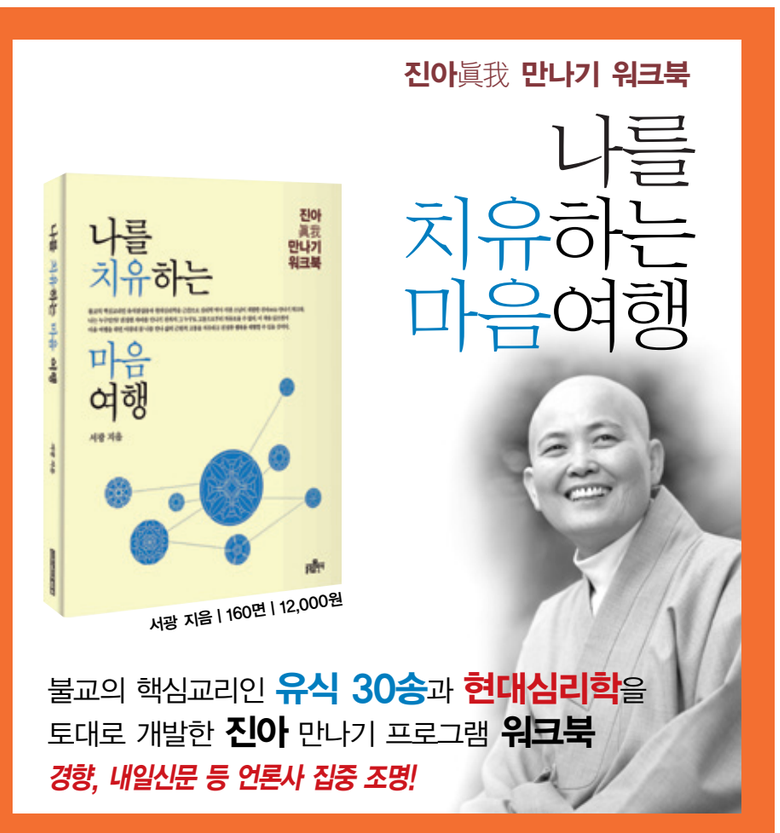
모 집 요 강

| | | | |
|---|---|---|---|
| 교육기관 |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날마다좋은날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단 | | |
| 교육기간 | 2011년 11월 15 일 ~ 2011년 12월 9일<br>주 2회 매주 화 · 금요일 (18시 30분 ~ 21시 30분) | | |
|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 설립, 경영 프로세스, 세무, 회계, 마케팅,<br>자본조달,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등 | | |
| 교육장소 |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B1층 선운당 | | |
| 수 강 료 | 100,000원 | 정 원 | 40명 |
| 계좌번호 | 농협 301-0020-5750-81 (사) 날마다 좋은날 | | |

* 문의처 : TEL 02)733-7277 | pkbsk84@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날마다 좋은날 www.everygoodday.org




불광출판사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

# 호계원법에 중재 조정 조항 추가

## 중앙종회 제188회 정기회…포상법 · 불교문화진흥법 등 제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1월 4일 제188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열고 불기 2556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예산 심의를 비롯해 호계원법 등 종헌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종회의원 심우 스님의 제정 스님 폭행 논란 속에 휴회하다 오후 5시 50분경 중앙종무기관 종무보고 중 정족수가 부족해 8일까지 휴회했다.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은 개회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과 안철수 박사 신드롬을 언급하며 "이들에 우리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부처님 가르침처럼 언제나 창조적이었고, 늘 베푸는 보살행을 실천했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는 스스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인지 조고각하 해야 할 때"라며 "종회가 입법기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종단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은 대한불교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50년이 되는 해이다. 2012년을 종단 중흥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종도들을 하나로 모아 불교중흥에 나서자"고 말했다.

이어진 정기회에서는 제주 관음사 주지로 선출돼 사무처장직을 사직한 성효 스님의 후임에 경우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고산 스님을 비롯해 원명 인환 정관 명선 월탄 종진 설정 무관 스님 등에 대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호법부장으로 임명된 혜오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상소기간의 단축, 특별재심청구권을 강화한 호계원법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중앙종회는 호계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호계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척 결정 등은 심판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상소제기 기간은 기존 최종심판이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변경했다. 또 출석요구서 전달 외에 기관지에 공고하도록 한 조문을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삭제했다. 중재 조항을 신설해 징계 이외의 사건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중재 조정 ·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와 '제척이유에 해당하는 호계위원이 결정에 관여한 경우' 를 추가했다.


자승 스님(오른쪽)이 제188회 정기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중앙종무기관 종무보고 중 정족수 부족 8일까지 휴회**

이와 함께 불교와 종단 또는 사회에 공로가 있는 이에게 공적심사를 거쳐 종정, 총무원장이 법계승서와 문서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포상법도 제정됐다. 법계승서는 종정 스님의 포상으로 제한했다.

공적심사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장이 각 2명씩 추천한 위원과 총무원 관련 부실장 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하도록 규정해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또, 불교문화진흥과 종단 차원의 불교문화 육성 · 지원을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불교문화진흥기금 설치와 불교문화단체 육성, 불교문화 보호 등을 담은 불교문화진흥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호계원장과 위원, 법규위원의 자격을 현행 승랍 · 세납 · 법계로 규정한 것을 법계로 조정한 종헌 개정안은 이월됐다. 사찰 토지처분금을 총무원 재무부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 법인법 제정안도 차기로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이 같은 결정을 끝으로 8일까지 휴회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집행부 성적은 10점 만점에 6.5점

## 조계종 총무원 제33대 집행부 2주년 평가 간담회 열어

"조계종 총무원 제33대 집행부의 지난 2년은 전임 집행부가 마련한 안정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모색한 시기였다. 승려노후복지 시행, 승가교육제도 개선,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해외교구 출범 등 종단 숙원과제를 풀고자 한 것만큼은 의미가 크다."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3대 집행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제33대 집행부에 남은 기간은 새로 시행해 온 사업들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만 스님은 제33대 집행부의 가장 큰 성과로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꼽았다. 종단이 스님들의 의료비 · 요양비 · 수행연금 등을 지급해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앞으로 종단은 승려복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만 스님은 "승가교육을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고자 변화시킨 것도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제33대 집행부는 행자교육을 입문 · 수계교육으로 분리하고, 출가 사이트 개설을 통한 출가홍보, 승가교육기관 교과과정과 교과목 개편, 국제불교학교 개원 등 승가교육의 개선과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승려사후재산 종단 출연, 주지 인사 고과제 시행, 사찰 토지처분금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 등 종단 재정 건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도 제33대 집행부의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제33대 집행부는 생수 · 상조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정만 스님은 "이는 분담금에 의한 종단 운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단 재정 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키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정만 스님은 지역포교를 위해 지역 불교를 활성화시키고, 신도교육과 신도등록을 조직화 한 것도 제33대 집행부의 치적으로 평가했다.

스님은 "각 사찰로 포교역량을 모으고 이를 다시 종단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사찰 중심의 지역포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기존 신도증을 멤버십 신도증으로 변경해 2011년 10월 현재 15만장을 발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만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미국 · 프랑스 방문 등 왕성한 해외순방 활동과 해외교구출범 등은 한국불교를 세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3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안상수 前 한나라당 대표의 "좌파주지" 발언 등으로 불거져 한동안 홍역을 치룬 봉은사직영전환건처럼 정부와의 관계를 의심 받아 왔다.

정만 스님은 "제33대 집행부는 종단의 자주권 수호와 수행환경 보전을 위해 그 동안 사찰을 규제하던 각종 법령을 개정을 촉구해 왔다"며 국립공원제도개선,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런가하면 스님은 "정부여당의 민족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촉발된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 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정부여당의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냈고, 내부적으로는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만 스님은 제33대 집행부의 점수를 묻는 질문에는 낙제점을 간신히 면했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낙제점이 6점이라면, 제33대 집행부의 점수는 6.5점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종단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더라도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이 남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관련기사 3면〉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서민 위해 최선 다해달라"

## 박원순 서울시장 예방 맞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당부


자승 스님(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월 31일 시청사 출근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불자인 박 시장은 총무원장 스님 예방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서민들의 정서가 잘 전달된 선거인 것 같다. 서울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선거과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다. 선거가 끝났으니 지지자 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헤아리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배석한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가리키며 "박영선 의원과도 경선은 치열했으나 끝나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침공양에는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회장 등이 배석했다.

**조동섭 기자**

# 수행환경 파괴되는데 정부는 뒷짐만

## 봉암사 인근 광산 허가 재검토 계획 없어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봉암사 인근 광산 허가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7월 경 백두대간보호구역(완충구역)인 희양산 봉암사 인근의 채광을 허용했다. 이번에 채광이 허용된 지역은 산림청이 이미 수년 전 채광을 불허한 바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산림청의 허가를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9월 26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돈구 산림청장을 대상으로 광산 개발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조계종도 문경 봉암사 인근 광산 사용허가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10월 28일 발송했다. 조계종은 공문에서 이번 개발이 봉암사 수행환경과 백두대간의 환경을 훼손하며 광산 허가를 전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산림청의 답변을 납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현장방문 및 재검토 이행, 승인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9월 경에도 조계종은 광산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산림청이 허가를 취소할 법적 사유가 미흡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시 한 번 산림청의 입장을 촉구한 것이다.

봉암사 인근의 채광허가는 2005년 경 노천채광 시 산림훼손과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적 측면의 위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허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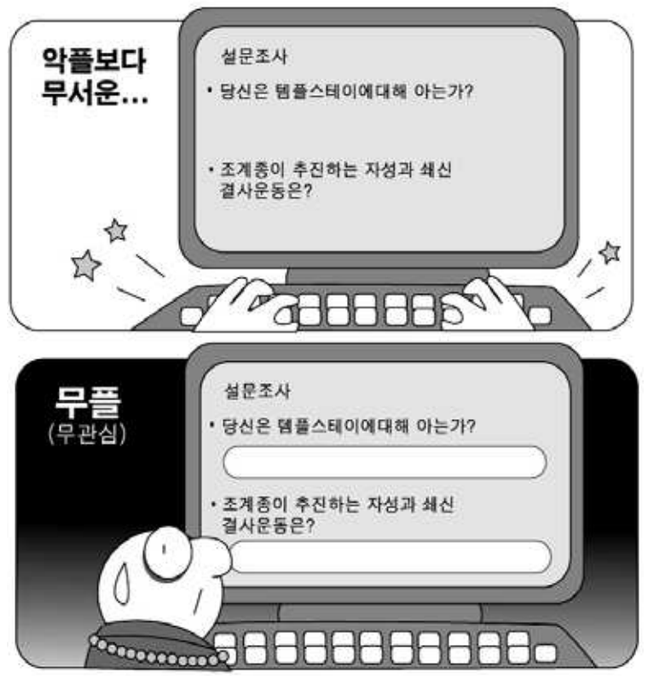
그러자 광업소측은 채광방법을 노천채광에서 굴진채광으로 변경하고, 허가면적도 2005년 10만8163㎡에서 4034㎡로 대폭 줄였다. 선광 작업도 타지에서 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봉암사 주지 원타 스님은 "허가 전에 설명회도 없었고 백두대간보호구역에 허가를 내 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일대는 산림 자원 등 보호할 것들이 있어 주민들도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과 환경 훼손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들과 봉암사, 업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박구원 만평**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선사의 혼이 살아숨쉬는 민족성지 麟角寺
www.ingaksa.org 인터넷검색 인각사

2011 제3회 일연 삼국유사 학술제 및 문학제

보각국사 일연선사는 고려 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선사이자 당시 고려 전 국민의 스승이었던 국사를 역임하셨던 선지식인 이었을 뿐 아니라 〈삼국유사〉라는 명저를 남긴 역사가입니다. 더구나 일연선사는 남해분사도감의 중심에 서서 재조고려팔만대장경 제작의 핵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사상, 종교, 언어 등을 집대성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민족의 자존심과 의식을 일깨워 준 겨레의 성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의 뛰어난 업적에도 비해 선사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각사에서는 일연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심도 깊게 연구 및 조명하여 선사의 민족자주, 자존정신 및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발전과 한국적 정신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일연 · 삼국유사 관련 학술논문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선작에 대한 시상 및 학술제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 주지
사단법인 일연삼국유사연구원 원장 도 권 합장

■일 시 2011년 11월 25일(金) 오후 3시 ~
■장 소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강당
■주요행사 1. 논문 공모 당선작 시상식
2. 당선 논문 발표
3. 일연문학지 출판기념식
4. 축하음악회 및 저녁공양

주 최 _ (사) 일연학연구원
주 관 _ 인각사/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
후 원 _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시교육청

麟角寺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
TEL:(054)383-1161 FAX:(054)383-3758

보물 428호 보각국사정조지탑

# 불자들 수행은 외면, 자성과 쇄신 결사에는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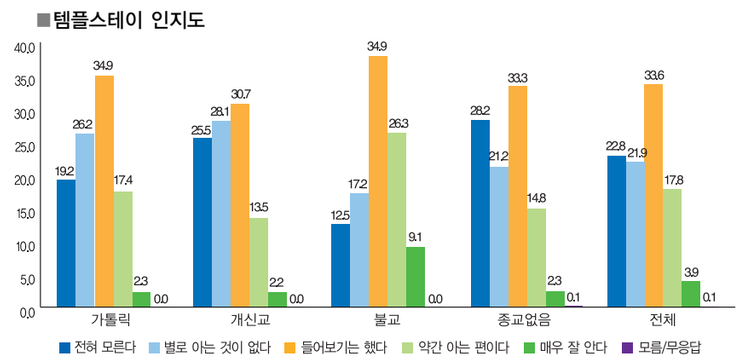
##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의 기초분석 결과를 11월 1일 템플스테이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6~69세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불자들은 신행활동도 미흡하고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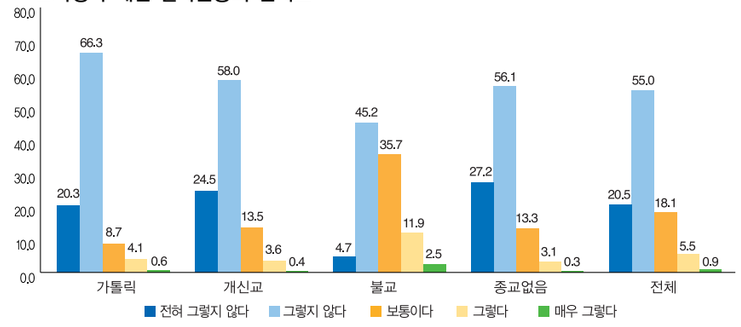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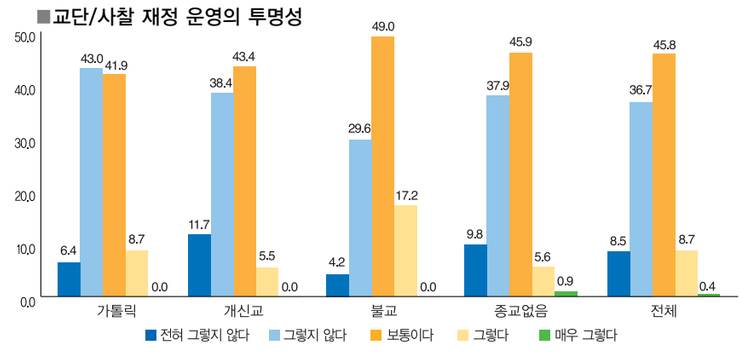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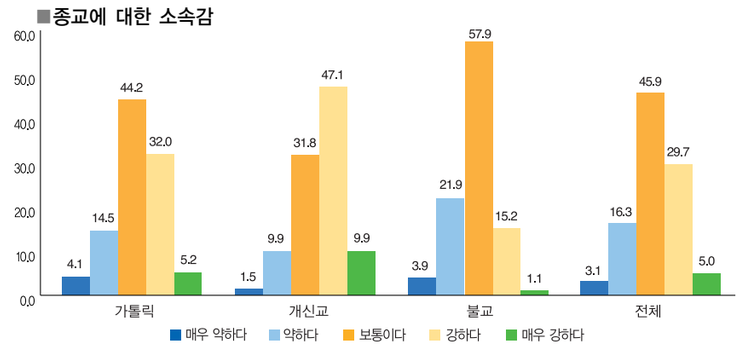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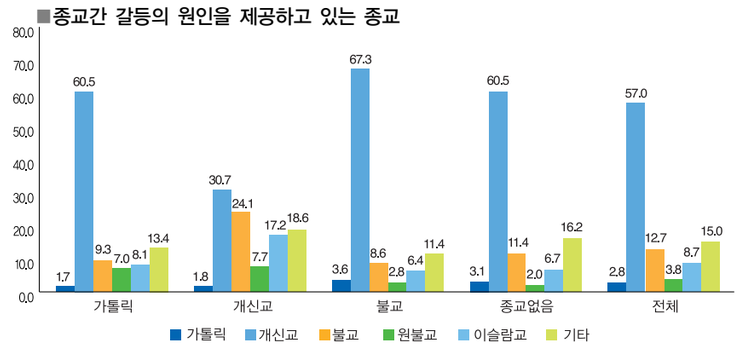

■교단/사찰 재정 운영의 투명성




■종교에 대한 소속감




■종교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종교




### 불교사회연구소 1512명 대상 조사
### 템플스테이 매우 잘 안다 '9.1%'
### 5대 결사 '약간 필요' 56.2%
### 불자들 신행활동 대부분 '적당히'
### 경전은 거의 읽지 않거나 행사 때만
### 미약한 활동 결국 소속감 약화시켜

**불자들도 외면한 템플스테이 · 5대 결사**

한국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꼽히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응답자가 44.7%에 달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템플스테이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절반의 응답자들도 33.6%가 '들어보기는 했다' 수준이며 17.8%가 '약간 아는 편이다' 3.9%만이 '매우 잘 안다'고 응답했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개신교(25.5%)와 무교(28.2%)에서 높게 나타났다.

불자들 중에서도 매우 잘안다(9.1%)보다는 '들어보기는 했다'(34.9%)와 '약간 아는 편이다'(26.3%)는 응답이 많았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불자들 중 39.9%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웃종교에서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은 가톨릭 2.3%, 개신교 2.2%, 무종교 4.8%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반면 불자들은 템플스테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자들 중 50.9%가 '템플스테이가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 및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모든 종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34.6%에 달했다. 종교별 부정적 의견은 개신교 36.9%, 무종교 27.9%, 가톨릭 22.1%, 불교 15.8% 순으로 개신교인의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또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서도 75.5%가 모른다고 밝혔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도 '알고는 있다', '약간 잘 안다' 수준에 머물렀다. 불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9.9%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이웃 종교인 중에서 '잘 모른다'는 응답은 무종교 56.1%보다 높았다. 가톨릭 66.3%, 개신교 58.0%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불자들은 또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에 대해 대다수인 56.2%가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25.5%에 그쳤다. 참여와 지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불자들 중 50.7%가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고 답했다.

**대북지원 중단요구 이웃종교보다 높아**

응답자 대다수는 최근 종교계가 주력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24.3%는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체제를 지탱시켜주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46.6%의 응답자는 '남한의 요구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2.2%만이 정치와 상관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불자들은 47.4%가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도 26.3%로 조사됐다. 지원 중단을 요구한 가톨릭(15.1%)이나 개신교(19.7%) 신자에 비해 10% 가량 높은 수준이다. 무교인 사람들 중에서도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7.4%로 불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불자들은 또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이웃 종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 61.6%, 개신교 64.6%, 무교 61.3%가 양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교는 55.4%만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 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 · 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 · 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 ·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6.6%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들 중에서는 46.5%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36.4%의 불자들만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7%의 응답자들은 종교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종교로 개신교를 지목했으며 불교를 지적한 비율은 12.7%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41.6%는 개신교와 불교의 갈등이 다른 종교의 갈등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종교로 행복한 불자들 드물어**

행복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개신교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인은 절반이 넘는 52.6%가 행복하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톨릭 52.9%, 불교 43.3%, 무종교 42.3% 순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불자들이 행복을 느끼는 요소로는 건강(20.6%), 화목한 가정(17.3%), 경제적 풍요(15.2%)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라는 응답은 2.4%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았다. 개신교와 가톨릭도 행복의 요소로 종교를 꼽은 비율은 낮았지만 최하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개신교는 종교를 4위에 꼽았고, 가톨릭은 종교를 5위로 꼽아 대조를 보였다.

**대기업보다 신뢰 낮은 종교계**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사회 전반 및 주요 사회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평균값은 2.48점으로 나타났으나 개신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보다 높은 2.57점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 의료계(3.22점)와 시민사회(3.22점)를 꼽았다. 반면 가장 신뢰 할 수 없다고 밝힌 집단은 국회 및 정당(2.17점)이다. 국민들은 또 의료계와 시민사회 다음으로 학계(3.16점)와 대기업(3.12점)을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종교계는 이보다 신뢰가 낮다고(3.00점) 응답했다.

불자들도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나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3.19점과 3.18점을 각각 부여했다. 반면 개신교는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대해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높은 신뢰를 보였다.

종교계가 국민들에게 대기업보다 낮은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정성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계(3.08점)와 시민사회(3.14점)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신뢰도에서 종교계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던 대기업은 공정성 평가에서는 종교계(2.97)보다 낮은 점수(2.79)를 기록했다.

또한 종교를 가진 응답자들이 종교가 없는 응답자에 비해 시민사회 및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법의 자유보다는 종교선택 자유**

불자들은 종교선택의 자유와 전법의 자유 중에서 종교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54.8%의 불자들은 종교선택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평균에서도 48.6%의 응답자들이 종교선택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개신교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47.1%)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톨릭은 종교선택의 자유(54.7%)를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불자들은 우리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불자들 중 35.5%가 정교분리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34.3%는 지켜지는 편이라고 답했다. 가톨릭 신자들도 33.7%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개신교인들은 29.5%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해 종교인들 중 가장 낮은 응답율을 기록했다.

**불자들 교단 재정투명성 불만족**

한국불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66.4%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은 25.1%에 불과했다. 불자들 중에서는 41.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대다수인 55.4%의 불자들은 '보통이다'고 응답했다. 종교별로 한국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가톨릭이 21.5%로 높았으며 개신교는 15.0%에 그쳤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70% 가량의 신자들이 한국 불교에 대해 '보통이다'고 평가했다. 무교는 21.6%가 한국 불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교단 · 사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49.0%의 불자들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투명하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가톨릭은 부정적인 응답이 49.4%에 달했으며 개신교도 50.1%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응답자 전체중에서는 45.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1%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웃 종교인들 스님의 사회참여 회의적**

현대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스님의 역할에 대해 불자들은 15.6%가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고 답했고, 13.0%가 자비 정신 구현을 꼽았다. 10.6%는 청정한 생활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무교를 포함해 다른 종교인들도 동일한 순서로 스님의 역할을 선택했다.

스님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1.7%가 '마음의 안정을 가르치는 수행지도자'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26.9%가 세속을 떠난 자유인, 16.3%는 세상고통의 구제에 헌신하는 봉사자라고 대답했다. 불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비슷한 순위로 스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불자들이 스님에 대해 수행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과 달리 가톨릭, 개신교, 무교에서는 '세속을 떠난 자유인' 이미지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불자들이 스님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큰 것을 나타낸다.

스님의 사회 참여활동에 대해서는 43.5%의 불자들이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라고 답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찬성 응답은 33.4%, 반대는 23.0%였다.

그러나 스님의 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반대의견은 다른 종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신교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스님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가톨릭 34.9%, 개신교 39.0%, 무교 33.6%가 반대라고 답했다.

이는 스님의 사회참여 활동 영향력이 이웃 종교 성직자들에 비해 낮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님의 사회 참여활동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7%가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36.9%가 낮다고 대답했다. 높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낮다는 응답은 개신교에서 높았는데, 개신교 38.7%, 가톨릭 34.9%, 무교 37.7%가 스님의 사회 참여 활동 영향력이 다른 종교에 비해 낮다고 응답했다. 불자들도 34.9%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높다는 응답은 16.9%였다.

**기도 명상 계율 소속감 모두 소홀**

조사 결과 대부분의 불자들(64.8%)은 년 1~6회 정도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평소의 수행(기도)는 6.9%만이 열심히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적당히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명상에 있어서도 불자들은 5.5%만이 열심히 한다고 답했으며 그 외에는 명상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적당히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개신교인들은 74.5%가 주1회 이상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있고, 41.3%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응답했다. 32.4%의 개신교인들 평소에 명상수행도 열심히 한다고 답해 불교와 큰 대조를 보였다.

불자들은 또 계율 준수에 대해서도 18.8%만이 잘 지킨다고 답했으며 평소 경전을 읽는 횟수도 9.2%만이 자주 읽거나 매일 읽는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경전을 행사 때만 읽거나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가톨릭은 26.2%, 개신교는 35.4%가 자주 읽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종교 활동이 미약하다보니 종교에 대한 소속감 역시 떨어졌다. 불자들은 16.3%만이 소속감이 강하다고 답했을 뿐이다. 57.9%의 대다수가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가톨릭은 37.2%, 개신교는 56.9%가 소속감이 강하다고 답했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은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종책의 흐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추후 구체적인 종합보고서를 완성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종단과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결사, 결국에는 사회에 영향 미칠 것"

###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



조계종 집행부와 종단 출입기자단의 간담회가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들은 불자들이 자성과 쇄신 결사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난 불교사회연구소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질의를 쏟아냈다.

불교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기획실장 정만 스님(사진)은 "결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 중이다. 하루 아침에 결과물이 도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사추진본부도 결성됐으니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만 스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결사 추진에 있어 지방 사찰들의 관심이 떨어지며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자단은 결사를 통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무엇을 반성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결사가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스님은 "결사를 제안하면서 계층별 대중공사와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하나씩 진행 중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사추진본부에서 계층별, 단계별 일정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종단의 활동이 10점 만점에 낙제를 겨우 면한 6.5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종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결사는 중단할 수 없는 일이다. 더디더라도 변화를 이어가야 한다. 언젠가는 밖으로 흘러 넘쳐서 종단의 결사가 사회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일 주 문



**현성 스님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10월 30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2500명 수계법회를 열었다.



**세민 스님 대중공양**

서울 수안사 주지 세민 스님은 11월 3일 72세 생일을 맞아 지역의 불우 어르신 100여 명에게 대중공양을 했다.



**동화사 대구교도소 수계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25일 대구교도소 내 광명사에서 108명의 재소자를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정목 스님 초청법회**

정토원 원장 정목 스님은 11월 20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대승불교의 신행체계와 염불수행'을 주제로 법회를 개최한다.



**금산사 성보박물관 개관**

전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11월 2일 금산사 성보박물관을 개관하고 특별전시를 실시했다.



**만화대종사 추모 다례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1월 30일 만화대종사 제28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033)339-6600



**조계사 동안거 기도 입재**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1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월 6일까지 동안거 기도에 입재한다. (02)732-2115



**제3회 일연삼국유사 학술제**

군위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은 11월 25일 대구교육청 대강당에서 제3회 일연 삼국유사 학술제 및 문학제를 개최한다. (054)383-1161

### 〈인사〉동국대, 하복동 사회과학대 석좌교수 임명



하복동 前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10월 7일자로 동국대 사회과학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하 석좌교수는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감사원장 직무대행,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 불교문학 발전해야 포교된다

### 한국불교문인협회 선진규 회장

"작금의 불교계가 내부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이때 우리 한국불교문인협회가 불교를 중흥시키는 데 버팀목이 돼야 합니다."

선진규 한국불교문인협회 회장은 11월 2일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 포교를 위한 문학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선진규 회장은 "지난 7월에 취임한 이후 협회에서 처음으로 여는 큰 행사"라며 "불교 포교에 있어 문학의 효용성을 십분 이해하고 올바른 종교활동을 제시하며 인간의 삶 자체를 불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국민 인성 함양에 불교문학이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 한국불교문인협회는 매년 심포지엄을 열어왔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인협회는 문학을 하는 지성인들의 모임으로 1985년 8월 15일 창립된 이래 26년의 장구한 세월동안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입각해 불법을 전해 온 단체이다.

불교포교사로서 봉화산 정토원과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던 선진규 회장은 한국불교문인협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선 회장은 "현재 협회에 소속된 회원은 620명인데 지속적으로 불교 문인들을 발굴해 불교를 소재로 글을 쓰고자 하는 지성인들의 집합체로 협회를 키우고 싶다"며 "연 1회씩 발간해 오던 〈한국불교문학〉도 내년부터는 계간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 회장은 또 통불교적으로 협회를 운영해 나갈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불교문인협회는 불교 믿음을 근간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 분들이니 편협된 생각을 버리고 특정종파나 나아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더라도 우리 불교를 폄하하지 않는 문



인이면 누구나 받아들여 포용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은 11월 11일 오후 3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다. 김동률 숭실대학교 강사가 사회자로 나서며, 홍윤기 석좌교수(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조병무 명예교수(동덕여자대학교)가 '불교 포교를 위한 문학의 역할'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기원 前 진주대학교 교수와 오대학 교수(동국대)가 나선다.

이어서 정병조 금강불교대학교 총장,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불교포교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자리가 열린다.

선진규 회장은 "심포지엄에 꼭 참석해 함께 토론하고 답보상태의 한국불교문학 발전에 조언과 더불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계간 잡지로 등록된 〈한국불교문학〉지에서는 한국문단의 새로운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인의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 부문은 시(5편 이상), 수필(3편 이상), 평론(1편), 희곡 · 소설(1편) 등이며 한국불교문인협회 또는 한국불교문학 편집실로 우편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 서원빌딩 4층)하면 된다. (02)336-4907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 "불교, 소수종교 돼 간다"

### 11월 리더스 포럼 김동건 대표 특강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사진)가 갈수록 기독교화 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11월 1일 만해NGO교육관에서 열린 '11월 참여불교 리더스 포럼'에 참여해 '불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대표는 한국 기독교가 공격적 포교를 하고 있어 불교가 소수 종교가 되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동건 대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무상과 무아를 말씀하셨다.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불교가 염불 등 의례의 한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도 짧은 역사의 한국 기독교보다 늦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대승불교의 특징인 참여불교가 정작 대승불교권에서는 약한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사임의사를 밝힌 김동건 대표는 새로 구성될 집행부와 회원들이 재가연대 발전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건 대표는 "내년 3월 경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많이 도와 달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해 나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 창립 5주년 맞은 대불총 회장 박희도 장군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약칭 대불총)이 11월 2일 창립 5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불총은 2006년 10월 연합사해체 및 북한 핵실험 등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다지기 위한 불자들의 호국 · 호법의 결사체로 출범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불총은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일념 하에 호국호법을 목표로 국가와 불교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6개 시 · 도지회와 5000여 회원 그리고 협력단체와 우호불교단체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회장은 "불교가 국민들로 사랑받는 종교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호국우국단체로서 대불총이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펴야 한다"며 "4대



강 사업을 비롯한 국가적, 불교적 과제에서 중단 없는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불총 지회 회원과 특전전우회, 어버이연합, 자유대한탈북자 등 보훈단체에서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후에는 전교조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 조성택 교수, 근대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54)가 불교 계간 학술지 〈불교평론〉이 수여하는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근대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 - 민족주의적 역사기술에 관한 비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 53호 게재)이다.

불교평론은 불교학 진흥과 연구자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불교 관련 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상금은 500만 원이다.

올해의 논문상 심사위원회는 "조 교수의 논문은 일본 불교를 모델로 근대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민족주의와 결합해 제국주의의 폭력적 획일성에 맞서야 했던 조선 불교의 이중적 상황을 새로운 시대상에 걸맞는 불교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고민으로 확장시켰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예상치 못한 수상 소식에 마음의 빚이 무겁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노작(勞作)을 내놓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평론 시상식은 12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 은정불교, '올해의 학술상'

### 한지연 HK연구교수, '서역불교교류사' 선정

인도와 중국을 잇는 실크로드에 위치하며 동아시아 불교 전래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서역 불교 연구서가 출간됐다.

한지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의 지원을 받아 〈서역불교 교류사〉를 펴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한 연구교수가 한국에서는 미개척 연구분야인 서역불교를 연구자료가 적은 가운데에서도 전면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높이 사 2011년 학술상 대상자로 선정, 1000만원의 연구비와 논문 발간비를 지원했다.

한지연 연구교수는 "중국 불교사와 각종 고승전을 접



하며 등장인물의 80% 이상이 서역에서 온 승려들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서역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연구교수는 "책에서는 실크로드 루트 상의 오아시스 국가를 위주로 교리사 · 문화사적 내용을 다뤘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어떠한 법당에도 웅장하고, 깨끗한 소리를 보장 해 주는 고급 음향설비 SYSTEM…

YK-308 씨리즈 (10평~50평 법당용)

가격 : ₩ 2,470,000원



YK-308 씨리즈 구성도

| 품 명 | 모델, 규격 | | 수량 | 품 명 | 모델, 규격 | 수량 |
|---|---|---|---|---|---|---|
| ①스피커 | YM-520 | 200W | 1조 | ⑦핸드마이크 | V-606LC | 1개 |
| ②메인엠프 | 300 AN | 300W | 1대 | ⑧마이크믹서 | 5CH용 | 1개 |
| ③CD 플레이어 | ICDC-8305 | CD5개入 | 1대 | ⑨마이크스텐드 | 사회자용 고급 | 1개 |
| ④더블카셋트 | IDD-8302 | 고속복사 | 1대 | ⑩고급마이크선 | 214S SOULFUL | |
| ⑤무선핀마이크 | P-201+헤드셋 | | 1set | ⑪고급 스피커선 | 무손실선 50×2C | |
| ⑥스텐드마이크 | DX-707 | | 1대 | | | |

• 설치비 포함 : 2,47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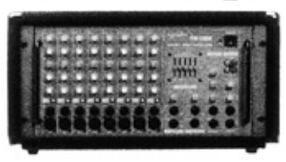
※ 외부 고급 스피커 추가 설치시 1개당 150,000원 추가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12월 31일까지 YK-308 씨리즈를 설치하는 사찰에는 무선 마이크를 무료 보시 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마이크 스텐드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 조계종 제5대 포교원장 혜총 스님 3일 각계 축하 속 아름다운 퇴임

보내는 사람이 사랑한다 말하면 떠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답했다. 계속된 인사는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다. 행복했다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조계종 제5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대중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제5대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퇴임식이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스님은 포교원장을 지냈던 5년 동안 입버릇처럼 ‘처음도 포교, 중간도 포교, 끝도 포교’를 외쳤다. 그런 스님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단 내 부실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또한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임희웅 조계종 포교사단 단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부대중이 퇴임식장을 찾았다. 퇴임식장 밖에도 미처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각 신도단체와 종무원들이 스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영상도 선보였다. 또한 혜총 스님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담은 영상 편지도 공개돼 스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영상 편지를 통해 “그동안 포교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노력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다방면에서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다. 앞으로도 많이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포교원장에서 물러나도 다른 곳에서 원력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손안식 부회장과 조계종 홍보대사 산악인 엄홍길씨, 개그맨 이수근씨도 영상 메시지를 전해왔다.



11월 3일 퇴임식을 마친 혜총 스님이 사부대중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11월 3일 열린 퇴임식에서 대중들로부터 화환을 받고 있는 혜총 스님

퇴임식 치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자승 스님은 혜총 스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자승 스님이 중앙종회 의장이었던 5년 전, 스님은 혜총 스님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당시 혜총 스님은 포교원장 임명을 위한 종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총 스님은 “나는 포교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님은 종회 만장일치로 제5대 포교원장에 임명됐다.

시간이 흘러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된 뒤 혜총 스님이 자승 스님을 찾아왔다. 총무원장이 새로 선출됐으니 포교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자승 스님은 혜총 스님에게 임기 끝까지 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자승 스님과 혜총 스님은 종단 공식 행사를 위해 함께 이동하는 일이 많았다. 키가 큰 자승 스님은 혜총 스님보다 항상 몇 발짝 앞서 나갔고, 그 때마다 혜총 스님은 “발걸음이 너무 빠르다. 천천히 가라”고 말했다. 이때 자승 스님은 걷는 속도가 아니라 종단 일을 너무 조급하지 않게 처리하라는 경책으로 이해하며 가슴 깊이 새겼다.

자승 스님은 “스님은 포교원장 취임 후 종단 포교의 성숙과 재도약기를 이끌어 주셨다. 스님의 공적이 포교원을 넘어 종단의 건실한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기에 아쉬움과 더불어 아름다운 회향에 큰 축하를 드린다”며 치사를 전했다.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과 임희웅 조계종 포교사단 단장도 송사를 전했다. 김의정 회장은 “천진불과 같은 밝은 미소와 함께 광명진언을 통해 지혜를 여는 가르침을 주셨듯이 항상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희웅 단장은 “스님은 포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과 소양을 지도해 주셨다. 가르침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치사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포교의 현장에서 법륜을 굴리며 살아갈 것이라며 퇴임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포교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종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동참과 이해가 있어 가능했다”며 “신임 포교원장과 함께 미흡했던 부분을 개척하고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퇴임사를 마친 스님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대한체육회, 군종교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또 스님은 그동안 종단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안국선원 도선사 화성 신흥사 한마음선원에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

혜총 스님은 “이분들이 후원하고 동참해 주지 않았다면 제5대 포교원의 종책들은 구현되지 못했을 것이다”고 치하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현장 전문가 지지 통해 포교 전문화 이뤄내

###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동에 주력 포교 활성화 위한 종단제도 개선

혜총 스님은 항상 포교의 꽃을 피우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했다. 스님은 ‘포교 현장을 지원하는 포교원’(2006), ‘수행으로 입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자’(2007), ‘포교가 희망입니다’(2008), ‘포교역량 결집의 해’(2009), ‘포교역량 조직화의 해’(2010), ‘전법지원의 해’(2011)와 같은 독특한 슬로건을 매년 발표했다.

혜총 스님이 재임한 5년 동안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 종단포교 제도개선, 전법중심도량제도 시행 등에 주력해왔다. 스님은 재임기간 동안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포교콘텐츠를 개발했다. 또한 종단기구로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추진했고 포교전진대회, 연꽃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혜총 스님은 종단포교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스님은 사찰중심의 지역포교활성화, 신도교육 관련 제도정비, 각종 종법과 종령 제·개정을 완료했다. 포교결집에 이어 전법단 출범과 전법중심도량제도도 시행했다. 신행과 법회 소외지역의 실질적인 포교활동을 지원했으며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포교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분야별 전법중심도량 지정과 사찰 중심의 지역포교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 했다.

이밖에도 ▷신도등록 사업 개편 및 신도교육과 조직화 사업 ▷신행생활공동체를 위한 신도멤버십 사업 체계를 확립 ▷각급 신도교육체계 정비 및 신도품계제도를 시행했다. 또 어린이 청소년지도사와 불교상담심리사 등 종단 포교자격제도를 확대하는 등 체육계, 한의계, 다문화가정 등 포교분야의 다양성을 이끌어 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60명 이상의 포교현장 스님들이 전법단에 조직돼 활동하고 있으며 130곳 이상의 사찰이 전법중심도량으로 지정됐다.

혜총 스님은 “포교 사업들의 원만한 시행은 종단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포교현장과 사찰에서 함께 동참하고 지지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종단 포교를 개척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진심을 전하고 감동 주는 포교하겠다”

### 신임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제5대 집행부 성과 계승 통한 미디어·사이버·문화 포교 다짐



“28년 간 포교현장에 정진해 온 원력을 바탕으로 부처님 은혜를 입으며 살아 온 모든 것을 이제 종단 포교로 보답하겠다.”

혜총 스님의 뒤를 이어 조계종 제6대 포교원장에 취임한 지원 스님의 각오다. 스님은 11월 3일 열린 혜총 스님 퇴임식에서 사부대중에게 취임 인사를 전했다.

지원 스님은 “혜총 스님의 성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는 제6대 포교원 집행부에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제7대 포교원 집행부에 이어 줄 핵심방향으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제6대 포교원을 구상하면서 부루나 존자의 위법망구 정신과 종단 포교의 희망 찾기, 포교 활성화를 중요 목표로 설정했다.

스님은 “부루나 존자의 위법망구 정신으로 포교원을 이끌어 갈 것이다.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정신으로 출가득도의 마지막 회향이라 여기고 혼신으로 정진하겠다. 제5대 포교원의 성과를 자신으로 삼아 모든 사부대중에게 진심을 전하고 감동을 주는 포교로 종단 포교의 희망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런 목표로 종단의 전통과 정체성에 기반한 포교역량과 신도조직화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대와 사회 변화를 관통하는 미디어 포교와 문화 포교의 싹을 틔워 수도권 및 도심권, 지구촌 활성화의 새로운 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지원 스님은 “포교원 스스로 진심을 발휘해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동으로 화하고, 시대에 걸맞는 미디어, 사이버, 문화포교의 싹으로 종단포교를 활성화 하겠다. 또한 자성과 쇄일결사 최일선에서 그 결실을 맺어, 사부대중과 국민들에게 회향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처럼’ 살기 위해 ‘마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 책은 유식 초심자를 위한 책으로 유식의 깊고 넓은 세계로 안내한다.
글 · 김명우 | 224쪽 | 값 9,000원
부처님 말씀을 읽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자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 읽기
간경 입문
경전 읽기는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살과 피, 호흡과 걸음걸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져 업장이 소멸되고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된다.
경전 읽기, 즉 간경의 목적과 방법, 간경의 자세,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독송하는 법,
선수행으로서의 간경 등 간경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글 · 고명석 | 168쪽 | 값 9,000원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 정교분리·평화운동 실천이 가치 높인다

## 정의평화불교연대 창립 학술세미나, 사회 정의와 불교의 역할 조명


정의평화불교연대가 학술대회를 열고 활동방향을 점검했다.

"불교적 토대 위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우리는 불교가 지니는 중도적 균형감각을 바탕에 두고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새롭게 창립한 정의평화불교연대가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해 마련된 학술대회는 10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에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참여해 각각 정의 평화 생명 공동체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대승불교 사상과 사회참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박병기 교수는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삶의 의미를 지향하는 문화 지향 ▷자신의 업(業)에 책임지는 불교적 책임윤리 확보 ▷공업(共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승가적 공화주의 확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삶의 의미를 지향하는 문화는 사회정의 실천을 위해 나 스스로의 삶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일을 의미한다. '업(業)'에 책임지는 불교적 책임윤리는 연기성에 기반을 둔 자세로 사회정의 해소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승가적 공화주의는 산중회의와 같은 승가의 전통에서 유추된 개념이다. 공화주의에서는 구성원들의 중도적 자세를 바탕으로 공업의 결과와 그 결과로서의 방안 모두를 포괄 할 수 있게 된다.

박병기 교수는 "제도와 관행, 문화의 변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뒤따르면 각각의 단위 공동체 안에서 시작돼 시민사회와 국가, 지구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회 정의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밝혔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의 평화사상을 행위와 구조의 연기체적 관점에서 재구성했다. 유 교수는 불교의 평화사상이 행위와 구조가 연기체적 관계를 지녔고, 수행을 통해 자비, 인욕, 삼독의 제거를 체화하는 것에서부터 평화운동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저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종교단체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참여방법이라고 밝혔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생명위기 시대의 불교적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우 교수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에서 나온다. 그 어느 종교보다도 비폭력을 강조하는 불교는 존재의 관계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곧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희종 교수는 또 "연기법은 상호관계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자신의 안팎으로 단절되거나 왜곡된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비폭력이자 수행이며 정의평화불교연대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다"고 밝혔다.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불교공동체에 집중했다. 이 교수는 특히 눈부처 공동체를 강조하며 타인을 사랑하고 공존하려는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했다. 눈부처는 타인의 눈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눈부처의 상생은 내 안의 타자, 타자 안의 내가 대화를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무너지며 그 사이에 내재하는 권력과 갈등,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은 서서히 힘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성찰이 없으면 자기변명일 뿐

##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

"시민들이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는데 종단과 불교시민단체들이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 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도 위태로워지고 불교도 어려워질 수 있다. 중생도 살리고, 불교도 살리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사진)은 정의평화불교연대가 대안적 시민운동 뿐만 아니라 종단과 불교를 살리는 일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진보적 인사들이 모여 창립한 정의평화불교연대는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실천을 하겠다며 10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동대표에는 이은봉 작가회의 사무총장과 최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 산파 역할을 한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이도흠 사무총장은 "인도 불교가 쇠퇴한 것은 사회적 실천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불교도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사회적 실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과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나 종단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말하는 불교라면 사회를 향해 자비심을 베풀라고 말을 하고, 자비심이 통하지 않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스님과 재가자 모두 사회과학에 무관심 합니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불교계 싱크탱크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불교를 현대에 맞게 해석 하고, 우리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살기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도흠 사무총장은 이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정의평화불교연대가 말이 아닌 실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실천 속에서 사업을 하고 대중회원도 늘려갈 것이다. 그러나 1년 동안은 대중적



회원 모집 없이 발기인 중심으로 내실을 다져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국 불교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성찰만이 불교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찰이 없으면 자기 변명으로 끝난다.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 거기에서부터 불교가 살아날 수 있는 싹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같이 상생하자는 것이다."

박기범 기자

# 사랑의 교회 의혹 "끝까지 밝힌다"

## 종교자유정책硏, 감사청구 추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서초구 사랑의 교회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감사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초구민들이 서울시에 서초구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서울시민들은 국토해양부에 서울시청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감사원 감사와 달리 만일의 경우 법원을 통한 행정심판 요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미 2007년 동대문 구청과 소송까지 벌이며 지하점유허가를 요청한 A교회에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 특혜 감사청구가 법원까지 갈 경우 법원은 2007년과 유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박광서 종자연 대표는 "감사 청구를 위한 서울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서 대표는 인도 부다가야에서 10월 26~29일 열린 세계참여불교네트워크(INEB) 국제컨퍼런스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 대표는 인권과 종교 자유를 위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박기범 기자

본지는 깨끗한 · 아름다운 사찰환경을 위해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와 '디자인 템플(Design Temple)' 코너를 연재합니다. 본 코너는 사찰 환경의 잘된 모델과 잘못된 예를 들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사찰환경의 변화를 유도코자 기획됐습니다. 사찰 환경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컨설팅을 바라는 사찰의 많은 제보와 응모를 기다립니다.

**사진 등 자료 보내실 곳: cetana@gmail.com 조동섭 기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합니다.)**

특별기획 | 디자인 템플(Design Temple)

# 사찰환경에 디자인을 더 하자

사찰의 환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된다. 최근에 이 시대 사찰환경의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심치 않다.

신도수가 늘어나고 사찰이 담당해야 될 기능이 예전과 다른데 과거의 환경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트랜드를 읽지 못하는 일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들어 온 전통적인 사찰환경을 훼손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사찰의 원형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덧붙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통사찰에서 필요한 기능을 덧붙일 때 나타나는 환경훼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해져 내려오는 사찰 원형에 부정적 변화를 주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혹은 필요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사찰에 도입된 다양한 경관요소에 적용돼온 디자인과는 다른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그리고 공간의 확장은 전통사찰의 환경적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전통사찰은 잘 짜인 구조체이다.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경역내의 건물과 건물, 건물과 마당이 매우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기적 구조를 가진 사찰의 배치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건물을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확장하여 높이와 크기가 달라지면 경관적 측면에서 전통성이 왜곡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늘어나는 주차용량을 수용하기 위해 주변의 자연을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 사찰을 품고 있던 자연생태계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시각적으로 불량한 경관을 연출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건축공간이나 주차공간은 전통성이 유지되고 있는 공간과 거리를 이격하거나 시각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 공간확장을 위해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찰환경요소를 현대적 개념에 맞도록 디자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사찰이 가진 경관성과 동떨어진 형태를 만들어 내거나 터무니없이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전통사찰의 격에 맞으면서도 현대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품위 있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결국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 물론 현대도심사찰의 경우에는 전통사찰과는 달리 건축디자인이나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경관요소의 디자인에 있어서 전통의 계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국사찰이 유지해온 경관적 상징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디자인은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그것의 중요성이 숨어있다.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사찰환경도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불자들이 요구하는 사찰환경은 지난날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있어온 사찰환경은 오늘날의 불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찰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야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사찰환경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는 유지하면서 드러난 형식을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담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이 시대 사찰환경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가 없이 사찰환경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자 격 과 정 | 교 육 기 간 |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br>※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 14주 과정<br>토요일 반 |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11월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뭇생명이 행복한 세상을 발원합니다



## 한중일 불자들, 양양 낙산사서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 봉행

한국 중국 일본 불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고민하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양양 낙산사에서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2일 양양 낙산사 일원에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이하 한중일 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첫 날인 1일 양양 솔비치 호텔에서 한중일 불교지도자들이 만나면서 시작됐다. 오후 5시 교류위원회의를 통해 실무 조정을 마친 한중일 불교계는 대표 회동, 대표단 환영만찬 등을 이어갔다.

교류위원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각 나라간 불교문화교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내년 제15차 한중일대회 장소로 일본 요코하마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도 진행키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과 중국불교협회장 환인(傳印) 스님, 일중한국제불교우호교류협의회장 이또오 유이신(伊藤唯眞) 스님 등 한중일 불교 대표는 간단한 상견례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다.

대표단 환영만찬에서 종단협 부회장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중일 삼국 불교계가 이번 모임을 속 깊은 소통의 자리로 삼아 하나된 목소리로 인류화합과 평화의 발원을 서원하고 유대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가자"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쩡친 스님은 답례사에서 "한중일 삼국의 불교교류와 화합은 줄곧 삼국 문화 교류사상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며 "부처님의 가피 아래 이번 대회가 원만히 성공되기를 기원하며 황금유대가 더더욱 빛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부이사장 야스다 에이잉 스님도 답례사를 통해 "이번 대회 주제를 '불교문화의 사회에 있어서의 가치와 영향'인 것은 훌륭한 불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선 불자들의 정신성을 높여야 하며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질수록 걸맞는 높은 정신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양양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 주지 무문 스님 등 한국 측 대표단 150여 명과 중국과 일본 대표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환영만찬에는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정상철 양양군수 등도 참석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38선 인근에 자리해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겨진 낙산사에서 한중일 불교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다. 법회에서 한중일 삼국 불교 대표지도자들은 각각 세계평화기원 메시지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설악산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환영사에서 "신라 의상 스님은 정성스레 편집한 책을 불 속에 던지며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다면 이 책이 타지 않게 하소서'라고 발원했다. 그때 타지 않고 남은 글자를 모아 '법성게'를 지었다"면서 "'세계평화'라는 네 글자도 인류가 생존하고 이 세계가 유지되는 한 끝끝내 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약육강식과 무한경쟁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이제 지구촌 곳곳에 가공할 자연재해와 경제적 위기를 반복적으로 출현시키고 인류의 평화와 화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불교가 이 사회에 전하는 사회적 가치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혼자 누리기보다 함께 나누는 미덕,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의 어떤 재화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 선을 이기는 어떤 악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불교협회장 환인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에서 "개개인 모두는 무연대비(無緣大悲),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이어 받아 인류의 복지, 사회조화, 세계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중일 삼국 불교대표단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종단협 부회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밍셩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상임이사 모찌와 니치우 스님은 공동발원문에서 "뭇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차별 없는 평등 세상, 전쟁 등 폭력 없는 평화 세상, 서로 양보하는 도덕적인 세상,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혜로운 세상, 모든 고뇌가 사라진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삼국 불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중일 불교 대표자들이 세계평화기원 메세지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화합은 구성원 각자의 수행에서 비롯

## 제14차 한중일대회 강연회서 한중일 지도자들 입모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2일 양양 쏠비치 호텔에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일환으로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혜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쉐청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이또오 유이신 스님이 각각 '불교문화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을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 수행 통해 공동체 정신 회복하자

혜정 정사는 기조강연에서 수행을 통한 공동체 정신 회복과 이를 통한 세상의 변화를 강조했다.

혜정 정사는 "1000년 전 조성된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은 외세의 침입을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서원에서 시작된 상생의 문화이자 동체대비의 실천"이라며 "분별하지 않고 하나된 생명, 전체라는 기능과의 조화 속에서 불교의 사회적 가치는 시작된다"고 말했다.

혜정 정사는 "'대중(大衆)'이라는 의미를 저버린 나머지 오늘날 인간을 수단시 하거나 물질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대중은 인간성 또는 불성, 자성의 이해 역량을 통해 확장시켜야 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혜정 정사는 대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단순히 참고 극복하는 것이 아닌 수행정진의 힘으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에 대해 접근하면서 나 자신이 어느 한 곳에 왜곡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며 자기 수행법을 설명했다.

혜정 정사는 "'일체의 악을 행하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諸惡莫作 衆善奉行)'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어렵다"면서 "이를 실천하는 수행은 '대중'이라는 공동체의 바른 인식과 우리 모두가 연기적 존재임을 깨어 있는 삶으로 받아들여 화합의 바다로 회향함에 있다. 이 회향은 저마다의 수행으로 이끌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큰지혜를 키워야 한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쉐청 스님(사진)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문화의 근본성을 전변시켜 사회전체의 변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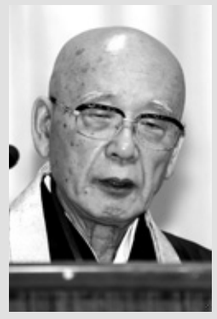


쉐청 스님은 "역사적으로 불교문화의 사회적 영향은 ▷문명의 진보와 발전을 이끌고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창조 ▷중요한 사회적 기능 발휘 ▷지역간 평화와 우의 증진의 성과를 이뤄왔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부처님법을 널리 펴는 것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 공동의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 연기적 삶이 행복 부른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이또오 유이신 스님(사진)은 기조강연에서 개개인의 연기법 각성과 연기적 삶을 강조했다.



이또오 스님은 "인간은 이성이 있어 도덕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지만, 인간의 탐욕이 이성을 앞지르며 많은 문제와 고통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무한한 인연 즉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중복에서 오는 총화의 힘이 중생 화합을 이룬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며 "인연연기 법칙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인류 화합과 공생의 길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무소유와 청빈…자신을 비우는 일

〈불교〉 〈기독교〉

###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와 공동학술대회 열어



"기독교의 청빈서원과 불교의 무소유 정신은 개인의 신앙을 사회에 전환해 일반 대중들에게 종교적 이상향을 제시하는데 그 유사성이 있다"

물질 만능주의의 발달로 모범적인 종교인 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독교의 청빈사상과 불교의 무소유정신을 비교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이정배)와 함께 서울 법련사에서 제6회 '기독자-불자 교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믿음과 수행, 그 접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최현민 종교대화씨튼연구원 원장은 기독교의 청빈사상과 불교의 무소유정신을 비교했다.

최현민 원장은 먼저 "수도자들의 청빈서원은 예수의 가난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삶은 철저하게 가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장은 "예수는 당신 자신의 삶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청빈을 요구했는데 특히 제자들을 파견할 때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예수의 가난관을 불교의 무소유와 비교해 "예수는 제자들에게는 철저한 가난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물 사용에 있어서는 어떤 규칙도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교의 무소유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러한 가난관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福音)을 전하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유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런 규칙은 수도자 스스로는 자유를,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평등한 삶의 수준을 제공해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얼핏 생각하면 무소유 정신은 깨달음을 지향하는데 반해, 청빈서원은 하느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양 종교의 궁극적인 세계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불교의 무소유 정신도 그 지향점이 이타행(利他行)으로 불국토(佛國土)를 만드는데 있는 점을 본다면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이 청빈서원을 통한 궁극적세계인 하느님 나라와도 만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작금의 종교계 위기가 물질문명의 발달이란 외적인 문제에만 있지 않고 수도자 자신이 스스로 그 의미를 살려내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끝으로 " 육조 혜능선사가 말한 '생각에서 생각을 여읜다'는 무념(無念)과 예수께서 가르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기반에서 참된 베품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무소유 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청빈 정신은 상통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 세계에 알린 주역, 구산 스님 학술적 조명

### 보조사상연구원, 11월 19일 서울 법련사에서 학술대회 개최

1970년대 미주 순방과 해외 포교당 건립, 송광사에 최초 국제선원 개원 등 해외 포교의 선구자, 구산 스님(九山垂蓮, 1910~1983).

'근대 간화선의 중흥자'이며 '보조선의 계승자'로 일컬어지는 구산 스님을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가 열린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스님)은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구산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제22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이 '구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를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구산 선사의 상당법어집 〈구산선문〉 분석 시론',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구산수련의 선사상 - 보조선의 계승과 관련하여',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가 '1950년대 구산수련의 종단 정화운동', 문경순 전북대 박사가 '구산수련의 불교대중화와 한국불교 세계화' 등을 발표한다.

총평에는 강건기 전북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토론자로 동방대학원대 교수 인경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 한상길 동국대 박사 등이 참여한다.

이중 구산 스님을 주제로 한 1호 박사인 문경순 박사는 구산 스님의 불교대중화와 한국불교 세계화를 심도깊게 조명한다.

문 박사는 구산 스님의 수행자적 면모뿐만 아니라 불교 대중화와 세계화의 역량에 대해 살핀다.

특히 구산 스님의 제2 정혜결사운동, 대중수련회 개최, 불일회 결성, 칠바라밀 주창 등 근대 불교혁신운동을 통해 현재 불교계에 시사하는 승가상을 제시한다.

구산 스님은 육바라밀에 봉사를 포함한 칠바라밀을 제시하는 등 불교 포교와 대중교화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스님의 45년 간 수도생활은 일명 '일수좌'를 들을 만큼 잠시도 쉴 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산 스님은 조계종 초대종정이신 효봉 스님의 뒤를 이어 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다진 은 그 수행과 행화는 현 시대 수행자의 사표"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구산 스님은…



구산 스님(사진)은 1909년 전북에서 태어나 1935년 27세 때 병을 얻어 신음하던 중 진주의 한 거사에게 "본래 청정한 자성(自性)자리인데 어디에 병이 붙겠는가?"는 말을 듣고 발심해 지리산 영원사에서 백일 천수기도로 육신의 병을 낫고, 불법에 눈을 뜬다.

29세 때 출가해 30세가 되던 4월 효봉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 삼일암에서 5계를 받고 1939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해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그 이후 통도사 백련암과 청암사 수도암 정각토굴 등에서 선수행의 길을 걸었다.

1946년 효봉 스님을 방장으로 가야총림이 개설돼 총림에서 도감 소임을 봤다. 46세인 1954년 교단 정화운동에 적극 참여, 500자 혈서로 정화 결의의 기치를 세웠으며 1955년 초대 전남 종무원장 취임, 57년 광양 상백운암을 중건, 1962년 대구 동화사 주지에 취임했다. 1969년 송광사 조계총림 초대 방장으로 추대됐으며 총림 후원 단체인 불일회(佛日會)를 창립해 총재 겸 총회장에 취임했다.

그 이후 불교 세계화와 대중화에 적극 나서는데 1972년 운허 스님과 함께 북미 카멜 삼보사 개원식에 참석해 미주 순방을 실시했으며 1973년 미국인 제자 현조 스님과 함께 송광사에 국제선원을 개원했다. 75년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7바라밀〉을 펴냈으며 76년 가을 영문 〈Nine Mountains〉를 출간한다.

79년 제2차 미주순방길에서 LA에 고려사를 개원했으며 82년 제3차 미주순방 겸 유럽 순방에서 스위스 제네바에 불승사를 개원했고 미국 카멜에 대각사를 개원했다. **노덕현 기자**

# 성주사 목조삼불좌상 보물로 지정된다

### 문화재청, 11월 1일 법인사 감로왕도 등 불교문화재 9건 지정 예고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비롯한 불교문화재 9건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1월 1일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昌原 聖住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을 비롯한 불교문화재 9건을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각승으로 유명한 녹원 스님의 작품으로 수작으로 꼽힌다. 17세기 중엽 조각사 연구의 기준이 된다는 평가다.

또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昌原 聖住寺 甘露王圖)'는 도상적 특이성과 더불어 직지사 구장본의 행방이 확실하지 않은 현재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昌寧 觀龍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臺座)'는 17세기 전반의 불교조각으로 불상양식이나 조각승들의 사승(師承)관계와 양식의 계보를 잘 알려준다는 점이 인정받았다.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咸陽 法印寺 甘露王圖)'는 현존 감로왕도 가운데 제작시기가 비교적 이르고, 당시의 화풍을 잘 전해주고 있다. '부산 국청사 청동북(釜山 國淸寺 靑銅金鼓)'은 후면 양각법이 조선 금고의 주조방법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양산 내원사 청동북(梁山 內院寺 靑銅金鼓)'은 뒷면이 넓게 뚫려 공명구가 형성된 일반적인 형식의 반자형 북으로 고려 금고 연구의 자료가 된다. '양산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梁山 通度寺 靑銅銀入絲香)'은 고려후기인 14세기 중엽에서 후반 쯤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3(大方廣佛華嚴經晋本 卷五十三)'은 고려시대 사간본으로서 사찰판본인 점에서 가치가 높다.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은 간행기록과 함께 시주자 명단과 연판(鍊板) 및 각수(刻手)가 명시돼 조선전기 불서판본의 간행과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평가다.

한편 문화재청은 9월 5일 지정예고했던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 · 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보물 제1723호)과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보물 제1726호)을 각각 보물로 지정했다. **노덕현 기자**



보물 지정 예고된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제3회 원효학술상 공모…외국인도 가능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 양성을 위한 원효학술상 대상자를 공모한다.

올해 제3회를 맞는 원효학술상은 내국인에 한정됐던 공모대상을 재외국인과 외국인까지로 확대했다.

공모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와 박사과정 후 비전임교수, 석 ·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발표된 저술 · 논문에 한해 1인 1편 응모 가능하다. 단, 재외국인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한다.

선정자에게는 교수 저술상 1000만원 혹은 논문상 700만원, 박사과정 후 연구자 500만원, 석 · 박사과정생 금상 300만원, 은상 250만원, 동상 200만원이 시상된다. 접수기간은 2012년 1월 2일~2월 29일까지이다. 선정은 4월 중 이뤄진다. (02)719-2606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 · 음반총판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깨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

달마를 그린 선화 100여 점을 다루는 이 책은 일반인들도 쉽고 친근하게 달마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 깨달음의 징표로 상징되는 달마도를 통해 달마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책이다. 사명 대사의 달마도, 윤두서의 달마도, 만봉 스님의 달마도 등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달마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신비와 베일에 둘러싸인 달마사상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김나미/A5/244쪽/16,000원/렛잇비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레시피

첩첩산중 울진 불영사, 그곳에는 천 년 세월 전해 오는 맛의 비법이 있다!
이 책에는 재료 하나하나의 특징은 물론이고 불영사에서 실제 일어나는 재미있는 절집 이야기와 음식 이야기가 맛깔스럽게 담겨 있다.

일운/B5/265쪽/18,000원/담앤북스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이 책에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만든 습과적 종자를 소멸해야 하기에 한 생각 일어날 때 습과적 종자를 소멸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서술하여 자기의 근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은 깨달음에 안주하여 미혹하게 과거의 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미세한 과거 종자를 정화할 수 있는 수행방법을 제시하였다.

혜원/A5/309쪽/12,000원/유마북

서적 · 음반 구매에 관한 모든 문의는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 초의 선사 유물 무더기 발굴

## 동국대 불교학술원, 담양 용흥사서 4개월 조사 끝에 851점 소개

선다일미(禪茶一味)를 주창한 초의 스님이 직접 짠 가사를 비롯해, 스님이 손수 옮겨 쓴 서책 등 조선후기 불교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11월 4일 담양 용흥사에서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시범사업 자료조사 회향법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개 ·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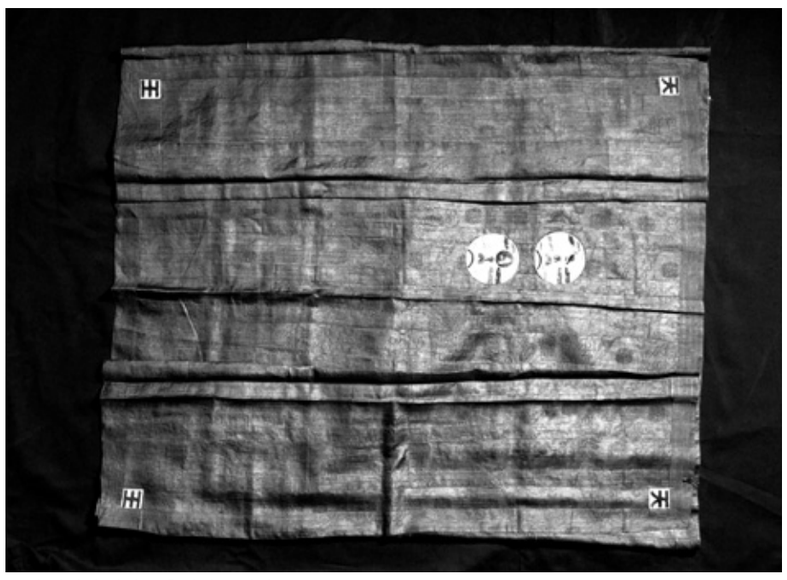
이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준비단(단장 김종욱)이 지난 7월부터 용흥사(주지 진우) 소장 850여 점의 고서와 사료를 조사한 결과이다.

준비단은 조사를 통해 1457년 세조가 강진 무위사에 내린 교지를 비롯해 초의 스님이 직접 짠 가사, 초의 스님이 사용했던 도장과 책을 보관했던 목함을 발견했다. 또, 초의 스님의 친필 수초본(手抄本) 19권, 〈사기〉 74권, 〈동사열전〉 · 〈만선동귀집〉 필사본, 조선후기 대흥사 문서류 등 중요한 사료를 확인했다.

이 자료들의 대부분은 초의 스님(1786~1866)→범해 스님(1820~1896)→원응 스님(1856~1927)→응송 스님(1893~1990)으로 이어지는 해동 다맥(茶脈)을 계승한 백운 스님이 스승으로부터 직접 물려받거나 평생 수집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초의 스님이 직접 짠 가사는 불가의 사법(嗣法)을 계승하는 증거인 의발(衣鉢) 전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동 다맥(茶脈)이 정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내력을 밝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조동섭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초의 선사의 가사로 추정되는 가사

# 동국대 불교대학원…불교 인재 양성 위한 20년

## 1990년 이래 2568명 배출해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계환)은 11월 1일 개원 20주년을 맞아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 신임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 초대 불교대학원장 이재창 교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회사와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의 발원문을 시작으로 연혁보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의 환영사, 김희옥 동국대 총장의 인사말, 문황진 총동창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행사로는 뮤지컬 '원효' 팀 공연과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장 법만 스님의 법문가요 등이 펼쳐졌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은 환영사에서 "100주년, 200주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불교발전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졸업생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문황진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명호근 불교대학원 CEO 총동창회장, 불교대학원 CEO 14기 수석부회장 일심스님 등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은 1990년 11월 8일 교육부 설치인가를 받아 초대원장으로 이재창 교수(철학박사)가 취임했다. 1991년 3개학과 10개 전공을 개설 1993년 8월, 첫 석사학위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현재까지 석사학위 532명,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474명 등 총 2568명을 배출했다. 현재 불교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생사의례학과, 차문화컨텐츠학과, 명상상담학과 등 5개 학과와 장례비즈니스아카데미(FBA) 및 불교경영자최고위과정(CEO) 등 2개 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사회 영향력 있는 불교지도자 육성할 터"

### 문황진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



"동문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학원 행사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원 발전이 곧 동문 개개인의 역량 강화라는 생각으로 한데 뭉치쳐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문황진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은 20주년을 맞아 불교대학원 동문들이 더욱 하나된 힘으로 뭉치자고 당부했다.

문 총동문회장은 "1990년에 출범해 20여 성상 동안 2600여 동문을 배출한 불교대학원은 종립대 정체성을 세우고 불교를 통한 사회역량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불교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불교 정신을 통한 참사람 열린교육의 실천도량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문 총동문회장은 불교대학원 발전을 위해 출재가간 상호보완과 현장에 맞는 포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에서 현재 사회복지사 취득을 지원하는 등 포교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 정책 동향 제공 등 동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동문회 사무실을 마련한 총동문회는 2012년 지역별 지부 설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 총동문회장은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불교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며 "기금 모금을 비롯한 후학 양성, 후배 육성에도 총동문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활인선원 개산 3주년 참선대축제

안성 활인선원(선원장 대효)은 11월 11일 개산 3주년 참선대축제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11~13일 제6차 참선대중화선회와, 11~18일 삼매체험수련회, 11일부터 30 · 50 · 100일간 진행되는 단기출가가 진행된다.

활인선원장 대효 스님은 "누구나 뜻을 내는 사람이라면 본분으로 돌아가 참 나를 회복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행복제작소의 도량으로 활인선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644-5266

조동섭 기자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③**

# 아~ 무명의 아름다움이여

**여주 고달사지 승탑**
**(驪州 高達寺址 僧塔)**
**국보 제4호**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고달사는 764년, 신라 경덕왕 23년(764년)에 창건됐다. 조선중기까지도 절은 존재했으나 임진왜란 이후 기록에서는 절터만 남은 것으로 나온다. 궁예가 삼한을 떠돌 때 스님이 되기 위해 머리를 깎은(落髮) 절이라는 구전도 있다.

국보 제4호는 고달사터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승탑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부도 중에 가장 크기가 크다. 높이 3.4m에 이르는 장중함을 자랑하지만 그 승탑의 주인공은 밝혀져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달선원의 개산조이며 경문왕 8년(868)에 입적한 원감 대사의 부도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탑은 바닥의 형태가 8각을 이루고 꼭대기의 머리장식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잘 보존돼 있다.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기단(基壇)은 상 · 중 · 하 세 부분으로 갖춰져 있는데, 특히 가운데돌에 새겨진 조각들은 압권이다. 가운데 돌은 8각이라기보다는 거의 원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 새겨진 두 마리의 거북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사실감이 느껴진다. 각 거북을 사이에 두고 네 마리의 용을 새겨 두었으며, 나머지 공간에는 구름무늬로 가득 채웠다. 돌에 꽉 차게 새겨진 무늬들이 과장되지 않고 세련되어 능숙하면서도 대담한 힘이 느껴진다. 가운데돌을 중심으로 그 아래와 윗돌에는 연꽃무늬를 두어 우아함을 살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라의 기본형을 잘 따르면서도 각 부분의 조각들에서 고려 특유의 기법을 풍기고 있어 고려시대 전기인 10세기 즈음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돌을 다듬은 솜씨도 깨끗하고 조각에서도 세련미가 묻어난다.

한편, 2011년 초부터 일제에 의해 명칭 규정 기준이 없었던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 보물 석조문화재 407건 이름이 변경됐다. 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은 '부도(浮屠)' 명칭을 무기명 스님의 이름에는 '승탑'으로, 스님의 이름이 밝혀졌을 때에는 시호만 사용해 이름 뒤에 '탑'을 붙여 명칭을 부여했다.

조동섭 기자

# 불교계, 사회적기업 전문교육 본격 시작

## 기업가와 최고전문들 직접 코칭

사회적 기업가에게 직접 멘토링을 들을 수 있는 창업아카데미 강좌가 개설됐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 사회적기업전문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은 11월 15일~12월 9일 매주 화 · 금요일 조계종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사회적기업전문지원사업단 박주언 사무국장은 "안성 활인선원, 부산 불교신도회관, 광주 조선대 내 대광사 등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강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며 "불교계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좌는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미션과 비전 ▷사회적기업 설립 프로세스 및 마케팅 ▷회계 · 자금펀딩 ▷노무 및 경영관리 등 총 11강좌로 구성됐다.

강의에는 고용노동부 및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컨설팅 교수 등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며, 경창수 안산의료생협 이사장, 육근해 도서출판 점자 대표 등 사회적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는 기업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찬영 창업지원단장은 "수강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감 있는 강의를 통해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강료는 10만원. www.LBA.or.kr (02)733-7276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호남을 부처님 법이 가득한 땅으로…”

### 호남불교포교결집대회 성료

우리나라 불자수는 1985년 805만 9624명에서 2005년 1072만 6463명으로 266만 6839명이 늘어났다.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불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67.4%)과 제주(63.7%)다.

반면 ‘호남불교’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29.9%, 23.9%, 33.1%로 부산과 제주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 평균인 43%보다 낮으며 교세가 제일 약하다는 인천의 27.3%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3개 지역은 무종교인 비율이 높아 불교 발전을 위해 포교의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무종교인 비율이 51.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무종교인 비율은 전국 평균 46.5%보다 높거나 유사한 46.3%, 51.0%로 나타났다. 그 만큼 포교의 여지가 전국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 불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를 올렸다. 조계종 포교원과 호남지역 6대 본사 협의회가 주최한 호남불교포교결집대회가 4000여 스님과 신도들이 염주체육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10월 30일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호남6대교구 본사 주지와 각 말사스님 200명과 포교사단, 합창단을 비롯해 호남지역 불교신행단체가 참여했다.

‘다시 함께 세상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결집대회는 한글금강경 독송, 오분향례, 전도선언문을 동시에 합송해 큰 감명을 전했다.

이번 결집대회는 호남불교중흥원년으로 삼고 한국 제1의 전법지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염원으로 개최돼 호남지역 포교영상과 호남포교 활성화의 염원을 담은 발원문이 낭송됐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포교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호남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그간 힘든 여건이었다”며



호남불교활성화를 위한 포교결집대회가 10월 30일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오늘 모인 장엄한 힘으로 스스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에 부처님 법으로서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제 부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자신 있게 포교 현장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결집대회는 ‘포교가 희망입니다’라는 기치로 2009년 서울을 첫 시작으로 인천, 대전충청 등 전국에서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계의식을 받고 있는 부사관 후보생

## 자비의 마음으로 나라를 지킨다

### 육군 부사관학교 호국 충국사

여산 육군 부사관학교(교장 김종배 소장) 호국 충국사(주지법사 효찬)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10월 30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500여명의 남녀 부사관 후보생들이 참석한 이날 수계법회에서 효찬 스님은 불자들의 기본이 되는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한 후 부사관 임관 후에도 불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군 생활에 충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전북포교사단 익산군포교팀 김동확 포교사, 호국 충국사 금강회원등이 함께 참석해 수계교육생들을 축하했으며 부사관 후보생들은 모두 삼귀의계, 오계를 합송하며 진실된 불자로 군생활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육군부사관학교는 2000여 부사관 후보생들이 10주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호국충국사는 현재 매주 2회 법회마다 5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교 배우며 마음까지 정화

### 부산 동림사, 고등학생 문화체험

부산 동림사(주지 효산)은 11월 2일 동림사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했다. 부산 마케팅고 학생 150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요가명상, 다도체험, 장식용 미니솟대 만들기, 전통한지에 선화그리기, 둘레길 걷기 체험 등이 진행됐다.

효산 스님은 “학생들이 좀 더 불교를 가까이 하도록 이러한 문화 체험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험에 참여한 이주영 학생은 “낯선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고, 특히 요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림사 주지 효산 스님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문인화부문), 전국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우수상 및 특선을 연 2회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회원으로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불심으로 만든 지역축제

### 저절로 생협, 광주전남불교신도회

불자들의 생협 조직인 저절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회장)과 광주전남불교신도회가 주최한 제1회 남도문화축전이 10월 28~31일 광주염주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중국장애인예술단의 ‘my dream’ 공연을 시작으로 7080그룹의 세대 공감 콘서트,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침·뜸으로 유명한 한국 침구학회 구당 김남수 선생의 시민들을 위한 무료봉사가 진행됐다. 또 행사기간 동안 염주체육관 주변에 마련된 부스에는 전남 24개 시군의 전통공예 및 전통음식,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등이 선보였다.

행사의 꽃인 중국장애인예술단의 ‘my dream'이라는 주제의 공연에는 2일간 전체 5000여 명의 관중들이 참여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적의 드라마’라는 칭송을 받았던 천수관음이 펼쳐지자 관중석에서는 탄성과 함께 큰 박수가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지역 청년회 활동 새바람

### 고창 선운사, 청년회 창립법회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불교 청년회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청년불자 양성에 나섰다.

선운사는 10월 29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20여 명의 청년회 창립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운사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만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불교 청년회는 불교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불교경전을 통한 마음수양을 토대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청년불자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주위에 많은 불자들이 함께 법회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법회를 가진 선운사 청년회는 10월 8일 영산전에서 창립법회준비모임을 갖는 등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활동계획수립을 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기 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단신

## 파계사, 공립선재어린이집 개원

대구 파계사(주지 법광)는 동구 율하동에 위치한 율하휴먼시아아파트 10단지에 늘 꿈이 있는 아이들의 쉼터 공립선재어린이집(원장 구원옥)을 10월 28일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파계사 주지 법광 스님, 이재만 대구동구청장 및 현승용 대구보육시설연합 회장 등 지역 관계자와 불자 20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제11회 갓바위 축제 성료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을 주제로 한 제11회 경산 갓바위 축제가 10월 28~29일 경산 갓바위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축제에서는 갓바위 부처님 전 다례재 봉행을 시작으로 경산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삽살개 묘기 대행진, 주민 노래자랑, 경산갓바위 사진전, 골굴사 선무도 공연과 함께 선본사 소원기원법회 등이 봉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제4회 원효 설총 요석궁주 육법공양대재회

청도 반룡사(주지 혜해)는 10월 30일 대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을 비롯한 김영종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및 영천산자연학교장 정홍규 신부 외 2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원효 설총 요석궁주 육법공양대재회를 봉행했다.

돈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원효 설총 요석궁주는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개최

“모든 중생의 원을 담은 오백나한들의 가피로 광주시민들의 평안과 안락을 기원합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는 11월 5일 오백전 앞마다에서 ‘오백나한대재’ 행사를 봉행했다.

매년 음력 10월 10일 열리는 오백나한대재는 매년 광주시민과 지역주민들의 평안을 기원하고, 각 500분의 나한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의식으로, 행사에는 지장 스님을 비롯해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어사전
옛 선사들의 깨달음의 향기를 온전히 전해주는 선어 해설!
禪語事典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 선의 근본 뜻을 이해하고 선문화가 가지는 교결皎潔한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선 입문서!
적정寂靜하면서도 활발발한 선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선자禪者들의 필독서!
선어 940여 개, 등사 및 선어록 80여 개 수록!
혜원 편저 | 사륙판 양장 | 512쪽 | 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중생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시는 33분 관세음보살님과의 만남!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33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나투셨는가? 항상 중생들 곁에 계시면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유래와 영험담!
전통과 현대적 기법이 조화를 이루어 그려 모신 33관세음보살도! 중생들의 어려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고난으로부터 구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성스럽고 친근한 모습!
방경일 글 • 남종진 그림 | 국판 변형 | 컬러 | 256쪽 | 값 13,000원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대장경 축전이 3000억 벌고 수천명에 일자리 줬다”

**대장경축전 성공리에 회향한 김두관 대장경축전조직위원장**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회향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이번 축전으로 328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3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다. 조직위원장인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는 “이번 축전은 팔만대장경의 가치와 천년을 이어온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와 해인사, 합천군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대장경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각종 전시와 국제심포지엄, 해인아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장경의 의미를 다양하게 알려냈고, 17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으며 폐막날까지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한 김두관 지사는 이번 축전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누구보다 많은 열정을 갖고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이끌었던 김 지사는 이번 축전이 행사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인이 팔만대장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계인과의 소통까지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본 전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대장경의 의미가 재발견 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사는 팔만대장경을 박제된 문화유산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기록문화의 꽃, 지혜의 보고로 되살려 낸 것이다.

또 김 지사는 “팔만대장경에 바탕이 된 불교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깊은 불심을 엿볼 수 있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마음이 앞으로 우리가 천년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확신했다.

### 불교적 토대 지역발전 기여 확신

김두관 지사는 평소 불교에 친숙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정치적 대안을 준비하며 고심하던 시기에 법전 스님을 친견하고 수계를 받으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가르침을 항상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335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정 책임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불교와 인연이 있는 김두관 지사가 경상남도 지사에 당선되자 불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경상남도는 해인사, 통도사 등 전통사찰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성철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前 총무원장 고산 스님과 지관 스님 등 많은 불교계 인사들을 배출했다. 김두관 지사는 이런 불교적 토대가 지역 발전에도 힘이 된다고 설명한다.

김 지사는 “지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불교문화와 불교 선지식인 배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애향심과 자부심은 도정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올해 9월 실시한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역동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종교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자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예인, 교수 등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김두관 지사는 불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도지사는 경남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임기동안 책임과 봉사를 다하는 자리입니다. 종교는 지극히 개인 신앙의 문제로 도정을 수행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오히려 종교를 통한 건강한 사고로, 335만 경남도민의 일원으로서 도정 주체로 참여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번영 1번지로 순항 중

경상남도는 신임 정무부지사에 허성무 前 대통령비서실 민원제도혁신 비서관을 11월 1일 임명했다. 허 신임 정무부지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두관 도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도지사직 인수위원 등을 지냈다. 정무부지사는 시민사회, 야권 정당인이 함께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장경 천년축전 위해 동분서주**
**“세계인과의 소통 이끌어 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늘 가슴에**
**사람사는 세상 위해 초지일관**

내년은 민선 5기 3년차가 되는 시점으로 내실 있는 공동지방정부를 위한 구상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해 11월 출범한 민주도정협의회는 다양한 평가들이 엇갈리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공동정부 출발단계 성격인 민주도정협의회는 그동안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외됐던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면서 도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김두관 지사는 “민주도정협의회는 전국 지자체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소통과 균형, 대내적으로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정의 능률성 못지않게 민주성, 형평성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 도의회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 무소속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해 경상남도지사에 당선된 김두관 지사는 당시 최대의 화제였다. 야권단일 후보였지만 전통적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경제발전, 복지확대, 사회통합을 도정의 축으로 하면서 행정혁신을 병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번영 1번지 경남’을 표방하고 있는 김두관 지사는 번영 공평 복지 클린을 핵심가치로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대민 소통을 위한 열린도정과 공개행정을 지향하며 조직 개편 및 행정 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전략사업의 고도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왔다.

김두관 지사는 “내년에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시행,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을 추가 확대 등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 계획입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김두관 지사 취임 후 ‘대한민국 번영 1번지’를 목표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김 지사는 경상남도가 이런 목표를 통해 미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전략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속에서 경남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남도는 70년대 이후 기계 조선 자동차 항공 분야에서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다. 이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전략산업을 재편해 태양력, 풍력 클러스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한 걸음씩

김두관 지사는 1995년 실시된 초대 지방선거에서 남해군수에 당선됐다. 이후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에 발탁, 2010년 경상남도 도지사 당선 등 그의 행보는 언제나 화제의 중심이었다. 김 지사는 학창시절이던 20대 때 시국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평생 추구할 고민에 빠졌다.

“그 당시 수감 중에 진정 사람사는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지역, 고향인 남해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남해군을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드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연구를 계속했다. 이후 김 지사는 정치인, 정당인, 행정가 등 다양하게 변모하는 삶 속에서도 ‘사람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 불교계에서도 ‘지역불교 활성화’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불교가 쇠퇴한 이유가 지역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양한 지역 활동이 불교 활성화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계의 이런 인식과 불자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김두관 지사의 확신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김두관 지사는 “풀뿌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이제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점차 강화돼 지역 발전은 더욱 요원해지는 상황이다. 내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낙관하듯 지방자치 정착의 미래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2, 제3의 김두관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김 지사는 어려운 시대에도 자신을 더욱 단련하고 힘을 낼 것을 당부했다.

“저 역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좌고우면(左顧右面)하지 않고 일관된 길을 걸었기에 지역민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디시고 분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바랍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 더 많은 것 못 주고 떠나와 미안해요



반갑다연우야 ·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라오스 해외의료봉사
라오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꼬끼오~"

요란한 닭 울음소리가 마을을 깨우기 시작했다. 새벽안개와 흙먼지들이 뒤엉킨 뿌연 거리. 그 속으로 강렬한 햇빛이 파고들자 마을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거리는 분주했다.

조금이라도 날리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거리에 물을 뿌리는 사람들, 아이를 안고 밥을 짓는 아낙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가게를 정리하는 상인, 그 길을 종종걸음으로 등교하는 학생들까지. 거리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무앙푸앙군 파쌍마을. 약 300여 가구가 사는 이곳에 10월 29일 난생처음으로 타국 이방인들이 초대됐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의 반갑다연우야(단장 구자선)와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는 10월 29일~11월 2일 라오스 파쌍마을로 해외의료봉사를 떠났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반갑다연우야가 2011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행사이다.

라오스는 중국과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둘러싸인 인도차이나반도 내륙국가로 국민의 90%가 불자이다. 라오스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침마다 스님들의 '탁발식' 이 이뤄지며, 국민들 모두가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라오스는 1975년 공산화된 뒤, 한국과는 외교관계가 끊어져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반세기 동안 프랑스 식민지로 살았던 라오스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악지대이며 정글로 둘러싸여 있어 험한 산지와 고원이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유럽과 동양 문화가 만나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라오스는 최근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휴양의 나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라오스는 아직까지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1950~1960년대의 모습과 흡사하다.

반갑다연우야 이승복 팀장은 "불교계에서는 반갑다연우야가 처음으로 라오스 해외의료봉사를 떠나게 됐다. 무엇보다 전 세계 해외봉사단 중 최초로 파쌍마을을 방문해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 파쌍마을에 들어서며

반갑다연우야 의료봉사단이 라오스 파쌍마을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라오스까지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 베트남을 경유해야만 한다. 장장 9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하면 다시 차량으로 5시간가량 이동해야만 했다.

봉사단은 무려 14시간을 이동한 끝에 라오스 파쌍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동시간에만 하루를 다 써버린 봉사단들은 마을 주민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짐을 풀고, 잠시 눈을 붙은 뒤 곧바로 진료준비에 나섰다. 진료는 파쌍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진행됐다. 의료봉사단은 새벽부터 과목별로 진료실 설치에 나섰다.

**봉사단 중 최초로 파쌍마을 방문해**
**도착하자마자 숨돌릴 틈 없이 진료**

**무료진료에 보건소 앞 장사진 이뤄**
**24시간 동안 버스 갈아타고 방문**

새벽 5시 30분. 진료 준비에 한창이던 의료봉사팀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의사선생님 좀 빨리 모셔오세요. 여기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진료가 시작되기도 훨씬 이른 시간. 환자 한명이 급하게 보건소를 찾았다. 밤새 진통을 앓았던 산모 한명이 의료봉사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건소를 찾은 것이다. 의료봉사팀은 갑자기 들이닥친 환자에 어쩔줄 몰라했다. 진료 준비는 아직 한창이었고, 아이는 금방이라도 나올 태세였다.

더구나 이번 의료봉사팀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급한 대로 외과 의료진이 산모의 상태를 살폈다. 그렇게 십여 분이 지났을까. 보건소에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를 직접 받은 이영택 광혜병원 의무원장은 "아이의 목에 탯줄이 감겨있어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해 안심이다"라고 말했다. 이날은 특이하게도 여자아이 출산에 이어, 1시간 가량 뒤 또 다른 산모가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반갑다연우야 장성원 행정팀장은 "진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연이어 태어났다. 봉사단원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그래도 봉사단의 파쌍마을 방문을 새 생명 탄생으로 기쁘게 맞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오전 8시. 본격적으로 의료팀의 진료가 시작됐다. 보건소에 비치된 대기소에서는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진료는 파쌍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료진료를 한다는 소문이 다른 마을로 퍼지면서 보건소 앞은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뤘다. 라오스에는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 주민들이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거의 없다.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로 몇 시간이나 떨어진 시내까지 나가야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라오스의 시골 주민들은 굳이 돈을 들여 자신의 아픈 몸을 고치려 하지 않는 인식이 강하다.

꾸와(80)씨는 7년 째 오른 쪽 눈 아래에 괴사를 앓아왔다. 눈 아래에는 주먹만 한 고름과 상처들이 엉켜 딱딱하게 굳어있었으며, 심지어 점막 아래에는 살이 파여 눈물과 피가 하염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영택 원장이 "왜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묻자, 꾸와는 "돈이 없어서 못갔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아마 피부암일 가능성이 높다. 피부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서서히 병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꾸와의 상태로 보아 말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영택 원장이 꾸와의 심각한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통역 봉사를 담당하는 현지 학생을 찾았다. "꾸와의 상태가 심각하다. 암이다"라고 말하자 통역을 담당한 학생이 '암' 이라는 말을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OECD국가 중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한국과는 달리, 이곳 사람들에게 '암' 이라는 단어는 '생소함' 그 자체이다. 라오스에선 암이 흔한 질병도 아닐뿐더러, 대체적으로 자신이 암인지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꾸와의 치료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피가 흐르는 부분은 지혈한 다음,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전부였다.

꾸와처럼 의료 봉사팀이 손을 쓸 수 없는 환자들의 발길은 계속됐다. 각막이 손상돼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에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타고나 턱이 없는 아이, 뇌척수에 물이 차서 머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아이까지. 이들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없다는 증세인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의료 봉사팀을 찾아 온 것이다.

이영택 원장은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당장 해결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역시나' 라는 결과를 듣고 가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의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환자들이 있는 반면, 운이 좋게도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의료진을 찾은 이들도 있었다.

혀에 혹이 생겨 진료소를 찾은 성허(36)씨는 검진을 받은 후 곧바로 혹을 제거하는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은 수술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치과 진료실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이영택 원장은 "이런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다. 혹이 왜 생겼는지는 조직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생활하는 데는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은 대체로 가족단위 방문이 많았다. 이들 중에는 특별한 증세가 발견되지 않는 이들도 많다. 가족 모두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가족 모두 진료소를 찾는 것이다.

실제로 진료소를 방문하는 환자들 대부분은 영양결핍 피부질환 감기 근육통 소화불량 등 단순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영택 원장은 "그동안 해외 의료봉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라오스의 경우는 대체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하루에 3~4건 정도의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단순 질환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내과 담당을 맡은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경희대의료원 교수)은 "라오스는 열대몬순기후로 11월은 건기에 속해 날씨가 매우 건조하다. 흙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질환을 비롯해 감기 증상을 앓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가장 걱정인 것은 급성질환이다. 심근경색, 뇌졸증 등이 발생하면 이


# 붓다 자비 봉사단 모집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봉사단에서는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숨결따라 12인연과 사무량심을 실천하고자
30 여년 국내외에서 헌신과 봉사로 포교 일선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불제자들은 평등한 마음으로 인간 방생, 중생 구제라는 사명으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보며
저희들도 흐뭇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후진국 극빈자들을 위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마음과 행을 나눌 마음이 따뜻한 불자, 헌신과 봉사를 아는 불자들을 모집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총재 : 목탁 혜은 봉사단장 : 보덕화 김천대
붓다 자비 봉사단
02)733-5665. 010-3618-6061



곳 주민들은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해 즉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간호팀 문명옥 씨는 "대부분이 예방관리만 철저히 했어도 발병되지 않는 질병들이다. 라오스 주민들은 아직까지 위생 개념이 전혀 없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감기는 약 처방만 받아도 금방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사 이틀째에는 전날 진료소를 찾았던 이들이 다시 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시작 1시간 만에 500여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영택 원장은 "이들은 조금이라도 약을 더 비축하기 위해 이틀씩 연이어 이곳을 찾는 것"이라며 "진료를 해주고 약을 처방해 줘도, 아마 집에 돌아가면 약을 먹지 않고 쌓아둘 것이다.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죽을 만큼 아프다고 느낄 때 하나씩 먹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라오쑹 이라고 불리는 산간지역 원주민들은 진료소를 방문해 "힘들게 이곳에 왔으니 약을 더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방팀 간호보조를 맡은 이영애 씨는 "한방약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비교적 적게 챙겨와 아껴 써야만 했다. 먼 길을 왔으니 약을 더 달라는 환자들에게 넉넉히 약을 챙겨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환자들 중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온 사람들이 상당수였다. 3~4시간을 걸어 보건소를 찾는가 하면, 진료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진료소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24시간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진료소를 방문하는 이들도 있었다.

3시간을 걸어 진료소를 찾아왔다는 우안(55)은 "평소에 어깨가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진료소를 찾았다"며 "오는데 힘들었지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의료봉사로 나누는 불법(佛法)

이번 해외의료봉사팀은 의료진 14명, 일반봉사자 16명을 비롯해 현지 봉사단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의 봉사자가 참가했다.

의료팀은 내과 전문의 1명 외과 전문의 1명 한방전문의 3명 치과전문의 1명 약사 2명 간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진료는 대체적으로 내·외과가 가장 많았으며 한방과 치과에도 많은 환자들이 몰렸다. 내·외과와 달리 한방과와 치과는 조금 더 특수한 진료가 이뤄졌기 때문에 봉사단원들은 현지 반응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현지 통역을 담당했던 보리영어학교 교장 혜현 스님은 "현지 주민들이 한방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 한방치료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한방과에 대한 환자들의 호응이 좋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방팀 한창호 동국대 경주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주로 침 치료가 많이 이뤄졌는데, 생각보다 치료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좋았다. 간혹 침을 맞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10명에 1명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치과진료를 맡은 김진섭 전국병원불자연합회 고문(김화치과 원장)은 "라오스 주민들의 치아 상태로 보아 대부분 신경치료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신경치료를 할 수 없어, 이틀씩 연이어 진료소를 방문한 환자들이 많았다"며 "심각한 경우에는 발치가 이뤄졌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발치를 많이 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약품 지급해도 복용 미루고 보관**
**치료 후 봉사단에게 합장으로 답례**

**봉사기간 2200건 이상의 진료 실시**
**벽화 그리기 등 환경 미화 활동 병행**

이번 의료봉사팀은 1200여 명의 환자가 방문해 2200건 이상의 진료를 진행했다.

황채운 반갑다연우야 봉사단장은 "라오스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할 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많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컸다. 다행히 마음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의료진 덕분에 봉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에는 불교계 소속이 아닌 분들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립목포병원에서 간호사로 활동 중인 김해정 씨는 "평소 해외봉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터에, 우연히 반갑다연우야 봉사단 모집공고를 발견하고 이번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날씨도 덥고 몸도 많이 피곤하지만, 현지 주민들을 만나 직접 봉사활동을 해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채운 단장은 "반갑다연우야는 2009년 몽골에 이어 2010년에는 인도를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런 해외봉사활동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불교계 단체와 불자들이 해외의료봉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이영택 원장은 "수술만 잘 되면 건강해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 지원을 통해 지속적 치료가 가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봉사단은 의료봉사외에도 파쌍마을에 위치한 파쌍학교에 페인트 칠하기, 벽화 그리기 등을 진행했다. 벽화그리기를 담당했던 봉사단원 이송 씨는 "원래 대학에서 불교미술학을 전공했지만, 벽화를 그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라오스 해외봉사를 와서 벽화를 그리니 보람되고 기분이 좋다"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좋아해 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봉사단 지도 법사를 맡은 좋은절 주지 명궁 스님은 "해외의료봉사는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막상 와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몸은 고되지만 정신이 몸을 이기게 하는 힘이 생긴다. 더 많은 것을 못해주고 이곳을 떠나는 것 같아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꼭 참가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 파쌍마을 의료봉사의 숨은 일꾼들입니다

**라오스 보리영어학교 교사·학생 통역 등 자원봉사 적극 참여해**

3일간의 라오스 해외 의료봉사는 라오스 보리영어학교 교장 혜현 스님과 교사 및 학생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혜현 스님은 8년 전부터 라오스와 인연을 맺고 락하식송 마을에 보리영어학교와 청허영어학교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스님이 운영하는 두 학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방과 후 학교로,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마친 후 오후 5~7시부터 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약 4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무료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혜현 스님은 한국에 머물던 시절, 모아뒀던 돈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현재는 몇몇 사람의 후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학교들은 라오스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모집기간에는 학생들이 너무 몰려, 성적순으로 모집을 할 정도다.

혜현 스님은 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학교를 운영해 오다 3년 전부터 라오스에 머물며 이곳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반갑다연우야의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혜현 스님과의 인연으로 시작됐다. 혜현 스님은 "보리영어학교를 졸업한 '따'라는 여학생이 있다.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와 친척집에 머물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따가 사는 마을을 방문해 보니 의료혜택이 거의 없는 동네였다. 그래서 반갑다연우야를 통해 이번 봉사활동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혜현 스님은 봉사단들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보리영어학교 교사와 졸업생 10여 명을 통역 봉사원으로 봉사활동에 참여시켰다. 학생들은 1명씩 의사들과 짝을 이뤄 환자의 진료를 진행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영어로 환자에게 질문을 하면, 현지어로 환자들과 통역을 한 다음 다시 영어로 전달해 주는 역할이었다.

학생들은 환자들에게 질문해야 할 의학상식과 증상들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해 공부를 하는 등 봉사활동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첫날은 의료진들과의 소통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둘째 날이 되자 자신들이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가며 의료진들에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보리영어학교 졸업생인 우이(17)는 "피곤하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한국 봉사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또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혜현 스님은 "이곳 라오스에 와서 라오스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내다 보니 라오스인들이 굉장히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은 한국 사람들이 라오스인들을 불쌍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파쌍마을 주민들이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혜현 스님은 "이들은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 뿐이다. 자신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오스인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순수한 민족일 뿐"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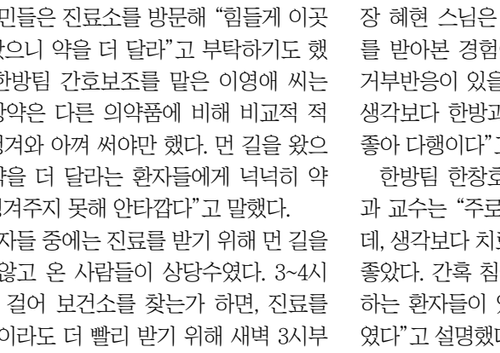
라오스=이은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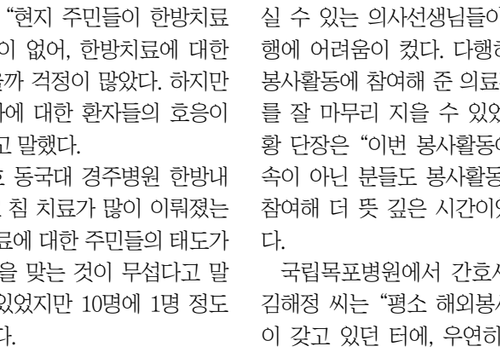

찬덕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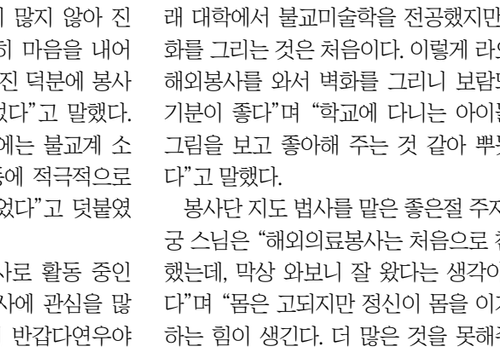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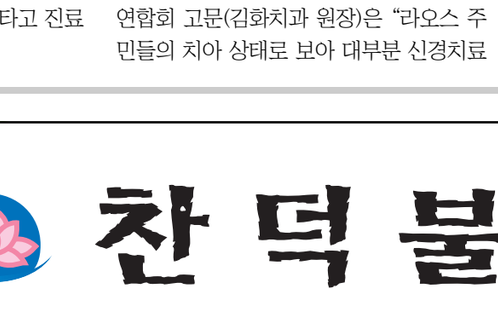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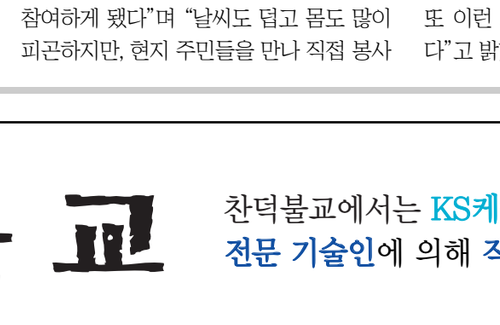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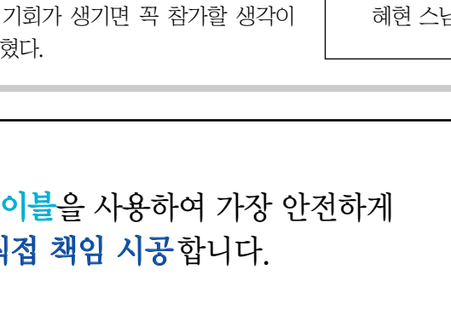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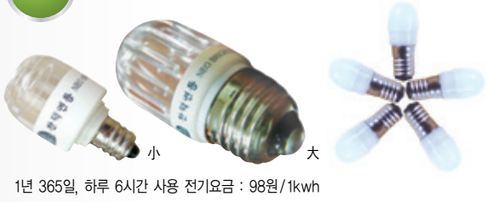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옛 스승이 전하는 '겨울에 오동나무에 꽃 핀 소식'



**중생병고 치유 원력 도량**
**팔공산 동화사**

팔공산에 단풍이 곱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바람을 가르며 도학동 골짜기로 접어듭니다. 아뿔싸, 울긋불긋 산을 수놓던 단풍이 밤새 내린 비에 절반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이 불어난 계류는 우당탕탕 거침없이 흐르고 물기 머금은 오르막길에는 낙엽이 수북합니다. 단풍의 절반은 나뭇가지에 남아 가을을 지키고, 나머지 절반은 길에 떨어져 허망한 시간의 자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더욱 애잔해지는 가을 아침입니다.

봉황문 앞에 차를 세우고 돌아서니 큼직한 바위에 높이 새겨진 마애여래(보물 제243호)가 식전 댓바람에 달려 온 나그네를 맞이해 줍니다. 도톰한 얼굴과 단아한 앉음새가 객지에서 돌아오는 자식을 반겨주는 어머니 같습니다. 마애여래는 수인이 항마촉지인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봐야 할 터지만, 예로부터 팔공산을 대표하는 신앙인 약사신앙의 주불 약사여래마애불로 통합니다.

이름이야 어떤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금강경〉에서는 '불법이라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법일 뿐'이라 했으니, 불상의 외양(外樣)과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겠지요. 원만한 신광과 두광, 선명한 영기문을 두르고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기 그렇게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복과 덕을 나눠 주셨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경내로 올라갑니다.

'팔공산동화사봉황문(八空山桐華寺鳳凰門)' 현판의 단단하게 결이 다져진 글씨는 조선 후기 동화사에서 입적한 고승 기성당 쾌선(箕城快善; 1693~1764) 스님이 쓴 것입니다. 절의 이름은 9세기 중엽 심지(心地) 스님이 중창할 때 겨울에 오동나무에서 꽃이 피는 기이(奇異)를 보인데서 유래합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심지계조(心地繼祖)' 편에 나오는데, 심지 스님이 진표 율사로부터 영신 스님을 거쳐 이어진 법상종의 맥을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출입금지 -행운유수(行雲流水)- 이 난야(蘭若)는 스님들의 수행공간입니다. 찬선수행을 위하여 출입을 금지합니다. 금당선원장'



동화사 비림의 인악당 비각

귀에 가득 물소리가 들어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눈에 안내판 하나가 들어옵니다. 왼쪽으로 돌다리를 건너면 통일약사대불전이고 오른 쪽으로는 금당선원, 그 갈림길에 호법 신장처럼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안내판 뒤로 난 길섶에 당간지주(보물 제254호)가 서 있고, 그 뒤로 낮은 키의 비들이 서 있습니다. 비각도 두 채나 있습니다. 동화사 비림입니다.

인악당(仁岳堂)이라는 현판을 단 비각 안에는 투박한 귀부와 사각의 갓머리를 한 오석 몸돌의 비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강백 인악의첨(仁岳義沾; 1764~1796) 스님의 일생이 기록된 비석입니다. 전액은 '인악대사비명'이라 쓰여 있고 본문은 '부종수교 화엄강주 인악대사비명'으로 시작됩니다. '부종수교'란 종지를 받들어 교단을 지켰다는 뜻이고 '화엄강주'는 〈화엄경〉에 정통해 화엄학 강사로 이름을 떨쳤다는 뜻입니다. 인악당 의첨 스님의 한 생애가 비문의 제목에 응축돼 있습니다.

조선 영조 22년(1746)에 달주(達州), 현재의 대구에서 태어난 의첨 스님은 출가 후 선재동자의 구법행을 흠모하여 전국을 내 집처럼 다니며 법을 구하고 마침내 마음이 밝아진 뒤에는 여러 곳에서 후학에 '밝은 달빛'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비문의 한 대목을 읽어 봅니다.

"그때 영남과 호남의 여러 산에서 교화를 행하였으나 주지로서 설법하고 총채를 세우며 지혜의 칼을 견지한 곳은 팔공산으로서, 이곳이 바로 돌아가 멈춘 곳이다."

## 약사신앙 깊은 팔공산의 중심도량
## 법상종풍 이으며 중생구제 실천해

비림을 지나 50여 미터 올라간 곳에서 다시 '출입금지' 안내판을 만나고 그 안내판 뒤로 난 길을 따라 가면 오른쪽 솔숲에 단정히 앉아 있는 한 기의 부도를 만납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지대석과 기단을 깔고 팔각의 하대석과 중대석, 양련의 상대석이 놓이고 이중으로 된 고임돌 위에 팔각의 몸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양은 없지만 마루선이 깊고 처마끝이 살짝 들려 사뿐한 맛을 살린 지붕돌과 영기문을 새긴 연잎을 포개 올린 두 개의 보륜이 아름답습니다.

보물 제601호로 지정된 이 부도는 당초 동화사 아래 마을에 있던 것을 옮겨 온 것입니다. 양식적으로 볼 때 고려 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부도의 주인이 홍진국사(弘眞國師) 혜영(惠永; 1228~1294)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황상 옳다고 받아들여지지만, 문서 기록이나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홍진국사 혜영 스님의 탑비는 어디 있을까? 그 역시 비문은 전해지지만 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조선금속총람〉 등에 수록된 비문이 있어 스님의 생애를 읽을 수 있는 것도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혜영 스님의 비문은 '고려국 대유가동화사 주지 오교도승통 보자국존 증시홍진비명'으로 시작됩니다. '대유가(大瑜伽) 동화사'라는 구절은 동화사가 유가종 즉 법상종의 맥을 크게 잇고 있는 절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 본 심지 스님이 동화사를 중창하고 법상종의 정맥을 이었다는 종지의 연장선에 혜영 스님이 있는 것입니다. 동화사와 법상종의 관계, 법상종과 혜영 스님의 관계는 결국 하나로 집결되는데, 그 면모는 김훤(金暄, 1234~1305)이 지은 비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 대목을 살펴봅니다.

자은종의 법상종지 자씨(慈氏)가 시조
오묘하온 그 진리는 알기가 어렵네.
최초에는 자씨보살 전해 주었고
무착보살 연구하여 골수를 얻고
현장사와 규기 스님 널리 폈으며
우리나라 동국까지 전하여 왔네.
철인(哲人)들의 상속 출현 계승하면서
우리 스님 전해 받아 팔조(八祖)가 되다.
국존께선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옛 스님과 비교해도 부끄럼 없네.

솔향기 그윽한 언덕에 이름표를 잃어버리고 서 있는 부도. 그 주인이 혜영 스님이든 아니든 팔공산 자락에서 큰 법을 펼친 고승의 부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스님과 비교해도 부끄럼 없네' 라는 찬탄을 받아 마땅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스님들도 그 행적이 어디에 남든지 '옛 스님과 비교해도 부끄럼 없게' 살고자 초발심을 새로이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 홍진국사 혜영 스님의 비는 못찾았지만
## 〈조선금속총람〉에 스님의 비문만은 남아

동화사의 부도밭은 동화문으로 들어오는 길 왼쪽 연못 뒤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철문이 닫혀 있어 평시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방을 하면 등산객들이 출입하여 숲을 망칠 것이 염려 되어 출입을 통제하는 듯합니다. 할 수 없이 위쪽 암자 부근에서 좁은 내리막길을 통해 부도밭에 이릅니다. 부도밭 전역이 대구시유형문화제 12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울창한 솔숲에 햇빛이 쏟아져 부도밭을 장엄한 단풍이 더 없이 어여쁩니다. 크지 않는 능선에 층층이 단을 이루며 형성된 부도밭은 그야말로 적요의 법당입니다. 10여 기의 부도가 좌선하듯 제 자리에서 침묵의 단단한 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맨 아래 단에 봉황문 현판을 쓴 기성당 쾌선 스님의 부도가 있습니다. 정면에 '기성당대사지탑'이라는 표시석이 있어 바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쾌선 스님은 대웅전의 현판과 1732년에 제작한 〈팔공산동화사사적기〉의 서문을 쓴 주인공이다. 그만큼 동화사에서 주된 활동을 한 고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님이 남긴 〈염불환향곡〉은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는데, 시의 형식을 지닌 게송 6장 30편의 1150구로 이루어진 장쾌한 노래입니다. 각 구절은 8자로 되어있고 그 중 뒤의 4자는 한결같이 '아미타불'로 끝납니다. 앞의 4자는 선창이고 뒤의 4자는 후창으로 여러 사람이 염불 수행을 할 때 장엄하게 합창하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부도밭에서는 상봉정원(霜峰淨源; 1627~1709) 스님의 부도와 계영당 극린대사탑, 고운당부도, 성임당축존대사탑, 성암당해정대사탑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조선 후기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화사의 사격(寺格)을 지키고 불조혜명을 밝혀 온 스승들입니다. 부도는 모두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 높이와 조각이 드러나게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 소박한 승가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동화사의 앞날을 보고 싶으면 비림과 부도밭을 거닐며 사색에 잠겨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의 흔적들이 돌보다 단단하게 다져진 그곳에는 옛 스승들의 지혜가 단풍보다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에 오동나무에 꽃 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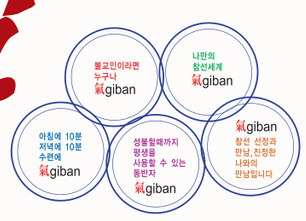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격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가의 쟁사 해결 방법(2) 칠멸쟁법

# 궁극적 목적은 승가의 화합 유지에 있다

지난 주 살펴본 바와 같이 승가에서 발생하는 쟁사는 언쟁 · 멱쟁 · 범쟁 · 사쟁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승가에는 쟁사가 발생했을 경우 각 쟁사의 지멸을 위해 적용되는 승가갈마가 있다. 바로 칠멸쟁법(七滅諍法, satta adhikaraṇasamathā dhammā)이다. '멸쟁'은 '아디까라나 사마타(adhikaraṇa-samatha)'로 '쟁사(아디까라나)를 가라앉힌다(사마타)'라는 의미이다. '가라앉혀 고요하게 한다'라는 의미로부터 엿볼 수 있듯이 칠멸쟁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가의 화합 유지에 있다. 승가에서 발생한 싸움을 신속하게 가라앉힘으로써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칠멸쟁법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칠멸쟁법은 현전비니(現前毘尼, sammukhāvinaya) · 억념비니(憶念毘尼, sativinaya) · 불치비니(不癡毘尼, amūihavinaya) · 자언치(自言治, paṭiññā) · 다인어(多人語, yebhuyyasikā) · 멱죄상(覓罪相, tassapāpiyyasikā) · 여초부지(如草覆地, tiṇavatthāraka)이다. 칠멸쟁법은 바라제목차에 포함돼 살 때마다 암송되는 중요한 규범들로, 승가에서 발생한 쟁사를 가라앉히고 멸하여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승가 운영상 매우 중요한 법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4종의 쟁사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칠멸쟁법의 관계를 빨리율에 따라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쟁(言諍, vivādādhikaraṇa)
  ① 현전비니
  ② 현전비니 + 다인어
(2) 멱쟁(覓諍, anuvādādhikaraṇa)
  ① 현전비니 + 억념비니
  ② 현전비니 + 불치비니
  ③ 현전비니 + 멱죄상
(3) 범쟁(犯諍, āpattādhikaraṇa)
  ① 현전비니 + 자언치
  ② 현전비니 + 여초부지
(4) 사쟁(事諍, kiccādhikaraṇa)
  현전비니

율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4종의 쟁사와 칠멸쟁법의 관계는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빨리율에 근거해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언쟁은 불교의 법이나 율의 해석에 관해 의견이 나뉘어 다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전비니' 혹은 '현전비니에 다인어를 병행'하게 된다.

1. 언쟁

(1) 현전비니

현전비니는 칠멸쟁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쟁사 해결 방법으로 네 가지 쟁사 모두에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빨리율에 의하면 현전비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가현전(僧伽現前) · 법현전(法現前) · 율현전(律現前) · 인현전(人現前)의 네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승가현전은 쟁사 판정을 위한 갈마를 하는 곳에 현전승가의 비구들이 전원 출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화합 승가를 형성하여 갈마를 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①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이 전원 참석할 것: 갈마를 할 경우 지역적 한계인 계(界, sísmā)를 중심으로 성립한 현전승가 안에 있는 비구들이 전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여욕(與欲)해야 할 자는 여욕할 것: 만약 병 등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자는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른 비구를 통하여 승가에 알려야 하는데 이것을 여욕이라고 한다.

③ 현전(비구들이)비난하지 않을 것: 갈마에 출석하는 자가 모두 청정하여 비난받는 비구가 없음을 의미한다. 갈마에 참석하는 비구들의 청정은 갈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화합 승가가 이루어진 것을 승가현전이라고 한다. 이 현전승가가 바로 쟁사를 판정하는 주체가 된다.

법현전이란 교법이 현전하고 있는 것이며, 율현전이란 율이 현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두 가지는 쟁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율이 현전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가지에 근거해 쟁사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人)현전이란 쟁사를 일으킨 원고측 비구와 피고측 비구가 모두 출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라도 결석한 자리에서는 쟁사 판정을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양쪽 비구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하며 쟁사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갈마나 그 판정 결과는 무효임을 의미한다.

현전비니는 쟁사 판정을 위한 법정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이 법정에서 쟁사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이 갖추어지면 회의를 진행하는 총명 유능한 비구, 즉 갈마사는 쟁사를 일으킨 양쪽 비구의 의견을 모두 듣고 승가의 비구들과 함께 법과 율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된다. 양쪽 비구가 모두 이 판단 결과에 납득하면, 갈마사는 이를 백(白, ñatti)으로 제시한다. 백이란 회의의 안건을 말한다. 그리고 백사갈마에 의해 승가 전원의 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쟁사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쟁사가 발생한 승가에서 현전비니로 쟁사를 멸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말하자면 쟁사를 일으킨 양쪽 비구가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된다. 빨리율에 근거하여 현전비니에 의한 쟁사 해결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첫 번째 형식을 시도해 보고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법을 차례로 사용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2008년 수행종은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 · 갈마에서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특강하는 모습

① 승가 · 법 · 율 · 사람의 4법 현전에 의한 현전비니

:쟁사가 발생한 주처에서 쟁론을 하는 양쪽의 비구를 불러 놓고 화합 승가가 법과 율에 근거하여 판정하는 방법.

② 도중단사(道中斷事)

:A승가(쟁사가 발생하여 ①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멸쟁에 실패한 승가)로부터 B승가(비구의 수가 보다 많은 근처의 주처)로 쟁사 해결을 부탁하러 가는 도중에 쟁사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도중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 이 역시 사법현전의 승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보다 많은 비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주처의 현전승가에 쟁사 해결을 의뢰하는 방법. 이 역시 사법현전의 승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 형식

:①②③이 모두 실패하고 이견(異見)이 많아 도저히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는 ①의 승가에서 '단사인(斷事人, ubbāhika)'이라고 불리는 위원들을 골라 그 위원회에 쟁사 해결을 위임하게 된다. 단사인으로는 계율을 잘 지키고, 교법과 계율에 능통하며, 공평하고, 쟁사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의 10 가지 덕목을 갖춘 총명 유능한 비구가 선발되는데, 이 단사위원회에서 법 · 율 · 사람의 현전에 의해 쟁사가 해결되고 양쪽 비구가 그 결과를 승인하면 끝나게 된다.

⑤ 단사인에 의해 현전비니를 하는 동안 심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비구를 제외시키고 행하는 방법.

:단사 위원회에 의하여 현전비니를 하는 동안 심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비구가 있으면 백이갈마에 의해 그를 제외시키고 해야 한다. 단사비구가 쟁사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바라제목차나 경분별에 정통하지 못하여 문자에 사로잡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설법비구가 있을 경우, 혹은 바라제목차에는 정통하나 경분별에는 정통하지 못한 비구가 있어 쟁사 해결을 방해할 경우에는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구끼리 하는 것이다.

이 방법들을 사용하여 법과 율에 따라 해결된 쟁사에 관해서는 그 결과를 다시 번복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문제 삼는 자는 단타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단, 쟁사를 일으킨 비구가 그 판정이 여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승가에 가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호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승가에서 다른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이전의 승가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에 의해서 이전의 승가가 자신들의 판정에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갈마를 다시 행하고 지사비구에게 죄를 묻게 된다.

한편, 현전비니의 방법이 전부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현전비니에 다수결에 의한 멸쟁법인 '다인어'를 병행해 쟁사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계속〉



이자랑(HK연구교수, 일본 동경대 박사)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2)

## 아쇼카선언

"불교는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생사윤회의 고해를 건너는 뗏목이라고 하십니다. 불교,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전통마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를 수 있으며 진리에 이르는 방법 또한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과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표현하는 말과 그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진리는 더 큰 진리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21세기 아쇼카 선언' 일부]

위 인용문에서 '진리'라는 말 대신 존 힉이 말한 '하나의 궁극적 실재' 혹은 '영원한 일자(the Eternal One)'를 대입해 보면 종교다원주의를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신론의 불교를 유신론의 불교로 바꾸는 훼불행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화쟁위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용도 폐기된 가설이라는 사실이다. 존 힉, 폴 니터와 같은 '신중심적' 다원주의자들의 가설은 기독교 내부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신중심적'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은 큰 설득력이 없다. "왜 궁극적 실재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들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중심적' 다원주의의 가설은 이미 용도 폐기됐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고전적 다원주의'라고 부른다. 즉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상정하고 그 아래 구성인자들의 다원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구시대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상적 기반이 유일신론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서구신학자들의 관점으로 확대된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은 기자는 불교닷컴 9월 18일 보도에서 "폐기돼야 할, 혹은 극복되어야 할 이 구시대적 관념이 오늘날 조계종단에서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이론의 이념적 틀로 차용되었다는 데 아쇼카 선언의 비극이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한편, 김영태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요구하는 다원주의는 어떤 공통점을 전제로 하는 그런 다원주의가 아니다. 서로 다른 것들의 독특성을 전제로 하는 다원주의이다. '갑', '을', '병'이 각각 독특하여 그 사이에 아무 공통점이 없을 때, 진정한 다원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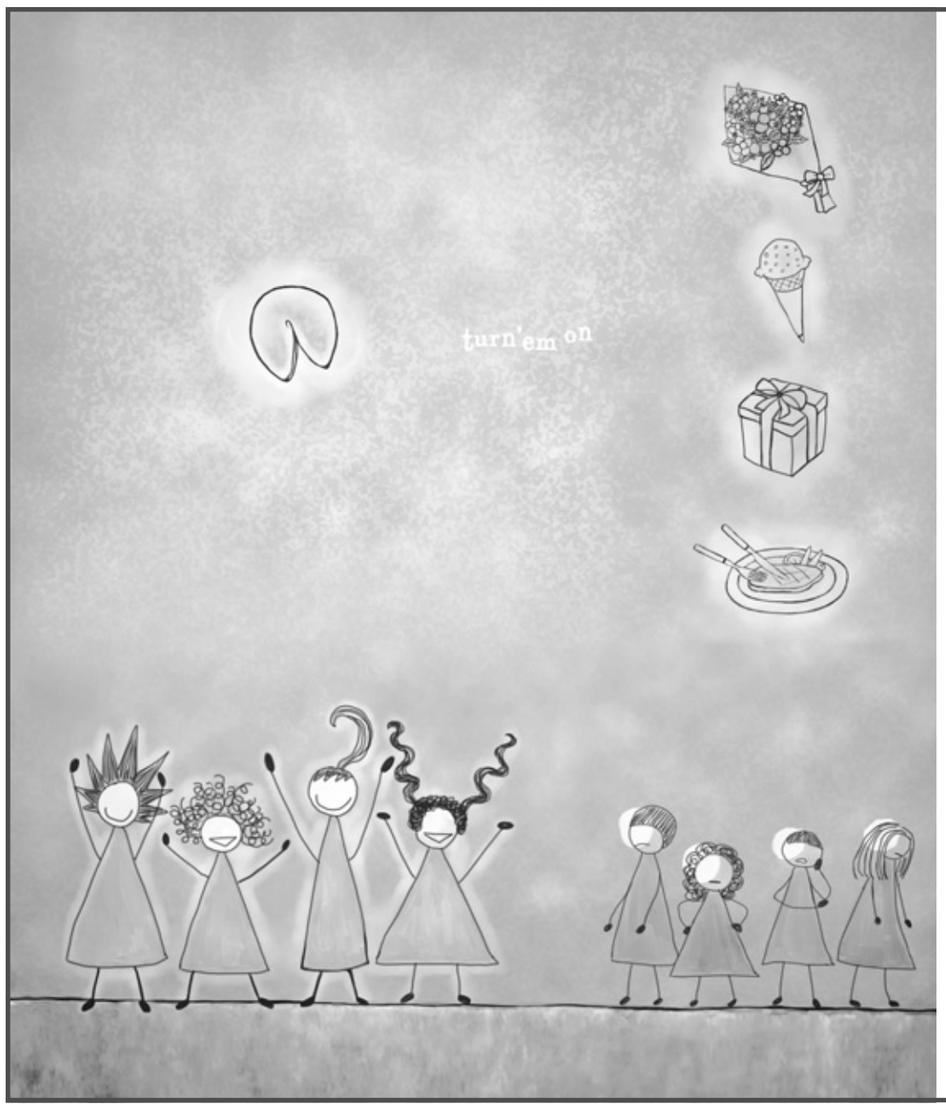
이은 기자는 10월 13일 보도에서는 "지난 30여 년 간 종교 간 대화의 논리는 존 힉과 폴 니터의 '신(실재) 중심주의'에 근거한 대화였다. 그러나 신(실재) 중심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학을 위한 신학', '교회로부터 유리된 신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유파의 종교 엘리트 그룹 외에 도무지 현실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이론이었다. 한 두 해도 아니고 무려 30년 동안 현장 검증에서 실패한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미 실패한 용도 폐기된 종교다원주의를 근거로 조계종 화쟁위에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초안)을 만들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불교와 기독교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여래장(如來藏) · 불성(佛性) · 진여(眞如) 등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실재(實在)와 같다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불교는 '하나의 궁극적 실재(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면 이미 불교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21세계 아쇼카 선언'은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한편, 윤이흠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에서 종교 간의 대화는 종교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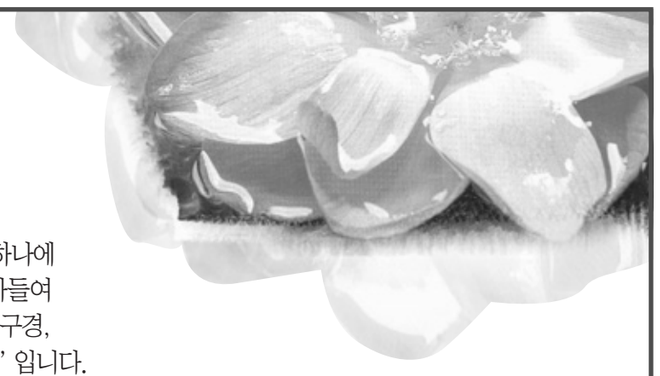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What is Buddha Cookie!!

법法 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부처의 가피 아닌 당신의 지혜가 고통 벗어나게 해

## 달라이라마, 10월 23~25일 다람살라서 한국불자와의 만남 가져



**달라이라마**는 … 제14대인 달라이라마는 1940년 포탈라에서 즉위한 이래, 티베트족들의 정신적 신앙적 지주로서 평생을 중국으로부터 티베트의 독립을 이끌어 내는 데 헌신해 왔다. 달라이라마는 1959년 중국의 티베트인 학살과 불교사원 파괴로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한 뒤 티베트망명정부를 수립했다.
달라이라마는 지속적으로 티베트 독립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세계평화를 위한 비폭력주의를 고수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1989년에는 노벨평화상을 1994년에는 세계안보 평화상과 루스벨트 자유상을 받았다.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위없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한 보물지도가 있다면 어떨까. 10월 23~25일 인도 다람살라에서는 한국불자들과 달라이 라마의 만남이 이뤄졌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법문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하루 두 차례씩 3일 간 진행됐다. 달라이라마는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바새 우바이의 사회적 역할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상에서 수행 가능한 마음 다스림의 방법을 권고했다. 이번 법문은 쫑카파 대사의 〈보리도차제론〉에 관해 설해졌다. 달라이라마는 이 가운데 지관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법문했다. 달라이라마는 "삼매와 관 수행은 도를 닦음에 필수 단계이다. 오늘의 법문이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취하고 향상시키는데 윤활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이다.

현생에서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선한 도덕적 삶을 이루기 위해, 종교와 관계없이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이뤄 가야할까요. 의사는 항시 환자에게 '휴식'을 당부합니다. 내 안의 탐진과 분노가 쉬지 못한다면 진정한 '휴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쉬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안정화 되면 실제로 인간의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상에서 구현하는 행복은 돈과 같은 외부조건이 아닙니다. 종교를 떠나 세속적인 일상에서의 도덕적 실천으로써 행복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붓다의 네 가지 몸에 관한 개념(법신-보신(미세한 색신)-화신(중생의 근기에 맞춰 나툼)-지혜법신)을 근거로 〈보성론〉의 여래장에서 이르기를, "현재 마음상태에 존재하는 허물과 붓다를 이룰 수 있는 근본과 근치인으로서 마침내 청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객진의 허물이 모두 제거 되었을 때 객진청정신과 자신청정신을 구족하며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붓다의 생을 요약한 것이 삼학(계정혜)입니다. 붓다께서 몸소 보이신 출가의 모습과 실천은 계학, 6년 고행은 정학, 이를 말미암아 이루신 보리의 정각이 혜학입니다. 붓다의 이러한 행장은 수행자의 본보기가 됩니다.

무명은 어떻게 없애는가. 현상계의 존재 방식 즉, 전도된 실상을 반대되는 바른 견해를 통해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하는 것 만으로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체득 즉, 진여를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것이 일념의 삼매입니다. 이것은 정념(正念, 바른 기억)과 정지(正知, 알아차림)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를 일상에서 점차 발전시키면 삶은 영위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진여로 삼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삼매를 이룬다면 그에 해당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지와 정념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불방일(不放逸)로써 진행됩니다. 이 불방일은 계학을 통해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관(止觀)은 불교에만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외도에서도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관수행 없이는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외도의 지관은 무아의 지견 없이 세간에 초점을 두는 반면, 불교에서의 지관은 소승과 대승에 공통되며 현교와 밀교에서도 공통됩니다.

지관은 일념의 마음 상태에서 몸과 마음에 경안이 일어나는 깨달음의 상태이며 분석을 통해 진면목을 일깨운 상태입니다. 월칭 보살은, '해탈을 원하는 자의 귀의처는 삼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해탈은 번뇌를 완전하게 끊은 공덕이 발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집에 속박되어 있어 우리는 해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아의 지견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무아의 지견을 깨닫는데 있어서는 관(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지(止) 수행을 해야합니다. 해탈을 위해서는 번뇌를 끊어야 하기에 이에 대치되는 무아수행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탈을 위한 수행은 소승의 수행이 됩니다. 궁극의 이타(일체종지)를 이루기 위해 지관을 수행하는 것은 대승의 보리심을 근간으로 삼습니다. 정광명을 현현하기 위해 지관수행을 하는 것은 밀교의 지관수행입니다. 동기에 따라 희구심에 의해서 수행하는가, 개인의 해탈이 목적인가, 보리심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소승 대승 그리고 밀교의 지관수행으로 구분됩니다.

> **내 안의 탐진과 분노가 쉬어야 진정한 휴식**
> **해탈을 위해서는 무아(無我) 수행을 해야**
> **지관 수행 하지 않고는 도(道) 이룰 수 없어**

선취에 나기 위해서는 인과법을 통한 지혜로서, 일체종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공사상이 요구됩니다. 해탈을 구하는 마음을 염리심(출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공성에 대한 바른 지견 없이는 낼 수 없습니다. 단순한 공성의 지견이 소지장(所智障)을 대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리심 수행을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리심을 희구하는 동기를 낼 때만 소지장을 대치하여 최종의 성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아집과 법아집 그리고 신견과 같은 지성적인 번뇌를 녹이는 데는 자비심과 자애심의 방편을 요구합니다.

보리심의 근본이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출리심이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붓다께서 처음 '고통을 알라'고 설하셨을 때, 이 고통은 '행고(이 몸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고에 대해서 하나의 고로 인식하고 이로써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리(出離心)이 생겨야만 괴고(일상에서 느끼는 변화성을 느끼는 부분)와 행고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룬 것이 〈람림〉의 중사도입니다.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기를 "초석이 견고할수록 서까래를 얹을 때 보다 튼튼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행고를 고로서 알고 이를 제대로 인식했을 때만 타인의 행고(行苦, 생멸의 변화로 받는 괴로움)가 멸하기를 발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무주처의 열반에 드는 것이 상사도의 단계입니다. 보리심을 일깨우는 과정에서 원보리심의 발심 의식을 하고 열렬한 마음을 내어 보살계를 받아 지녀 육바라밀행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바라밀행의 마지막이 선정과 지혜입니다. 이 선정 지혜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지관수행'입니다.

〈해심밀경〉에서는 "분석해서 알아보고 확신을 지니는 일상에서의 마음처럼, 우리가 어떠한 수행을 하건 간에 한 대상에 집중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공덕을 이루는 근원이 된다"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역시 지혜와 방편으로써 가능합니다. 지혜가 하나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수행입니다. 그렇기에 '지'와 '관'은 쌍수를 이루어 수행돼야 합니다.

수행을 했어도 머리가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을 대상에 두는 것에만 집중하면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완전히 알지 못하면 다양한 허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을 어찌 다뤄야하는 가를 다룬 '비로칠법'을 보면, 반가부좌의 상태에서 눈을 완전히 감지 않은 상태에서 코끝을 주시하고 곧은 자세로 오른손을 위로 하고 엄지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 선정인을 취하며 혀를 천정에 붙이고 몸을 안으로 당깁니다. 일반적으로 눈을 감으면 산만함으로 흐르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만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은 마음 속 의식으로 떠오르는 영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눈을 반개하는 것은 마음이 다른 곳에 이동할 수 있지만, 마음의 영상에 집중하면 눈앞의 것을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호흡 역시도 고르게 삼아야 합니다.

불법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자신은 스스로만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피로서 해탈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관수행에 있어서 인식하는 대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수법기와 돈수법기 즉,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전 되는가 혹은 지관수행시 바로 광명으로 이끄는가의 차이입니다. 이는 수행자의 근기가 따라 주어야 합니다. 〈해심밀경〉에서는 '모든 불교 수행자가 금강승의 본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각기의 근기가 모두 차별된 이유입니다. 선차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오직 선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나태함을 끊도록 해야 합니다. 지수행으로써 몸이 가벼워지고 의식이 보다 명료해 짐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진을 일으킬 때는 삼매를 구함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무아가 있습니다. 이는 '나'가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식에서는 나의 습으로 인해 생각하는 것일 뿐 대상 그 자체에는 외경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경과 내가 인지하는 의식의 관계성에 대해 진실로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본래 그렇지 않다는 중관을 통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창사 18주년 기념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26일, 2월 7일, 2월 24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84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져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유류세(260,000원)불포함
미얀마 성지순례 3월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1,650,000원 (유류세 별도)
◇ 골프투어 5일 (요금문의)

인 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팁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불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룬나루와 | 콜롬보

■ 『떳다!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 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왓" 1,049,000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달라이라마의 법회에 참석한 400여 한국인들

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기법 수행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윤회를 돌게 하는 12연기법에 의해 오온 십팔계 십이처가 있습니다. 연기란 나는 오직 오온에 의지해 이름 붙여진 것일 뿐임을 알 때 윤회를 벗어나게 합니다.

집착과 자만의 마음 의식 자체가 원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을 봅시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은 용기 있는 자라고 여깁니다. 지구상의 끊임없이 일고 있는 사건 사고는 이러한 자만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번뇌와 탐욕의 허물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부정관 수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집을 완전히 끊지 못하면 미세한 탐욕이 남아 있게 됩니다.

분노와 탐치심, 그리고 아만심은 지수행에서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수행을 행하는 초심자 가운데 유독 산란함으로 치우칠 때는 눈을 뜨고 한 곳에 지긋이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수행에서는 감각기관을 끊고 오직 마음 의식의 영상을 소연으로 삼습니다.

한 예로, 외부의 꽃을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어떻게 대상화 하는가. 눈이 꽃을 자세히 보고 마음에 꽃의 형상을 떠올립니다. 눈으로 본 꽃의 특징들이 마음속에 선명히 떠올리면 이 또한 지의 한 대상이 됩니다. 불상을 대상화 할 때는 그 크기가 1인치 정도이며 무거운 무게로 그 모습이 무지개 광명으로 비추는 모습으로 형상화합니다. 밀교수행에 있어서 지수행은 본존관을 합니다. 본존의 모습을 명료히 떠올려 그 본존을 '옴아훔'의 빛이 일어나는 부분을 모습으로 형상화 합니다.

지수행에 있어 지난 과거와 미래에 관한 생각은 잠시 쉬고 현재 상태 의식만을 남깁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수행에서 마음을 대상화하기 위해서는 명료의 상태를 유지토록 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

**자신의 행고(行苦)를 바로 알아야**
**타인의 행고 소멸 발원 할 수 있어**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제한다**

한 분별이 없이 현재만을 보면 '텅 빔'과 같은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분별이 없어진 빈 상태입니다. 이를 지속시켰을 때 비로소 마음의 자성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삼종요도〉에는 "연기를 보지 못하면 붓다가 설한 진여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과 논이건 간에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되면 많은 모순을 낳습니다.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공부하여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간인들은 특별한 가르침에 쉽게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앞선 성취자들께서 검증하시고 일깨우신 바를 넓고 신중히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공성 또한 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특별한 지혜의 근기를 지닌 이들과, 확연한 공성의 확신이 있을 때에만이 바른 공수행이 가능해 집니다. 이에 대해 티베트의 스승들은 지수행을 통해 공성을 구하는 경우와 반대로 공성의 견해를 먼저 구하고 지수행에 임하는 두 가지 수행 방식을 권했습니다.

대상에 마음을 어떻게 집중하는가. 삼매가 지니는 특징은 대상에 마음을 두는데 오롯이 마음이 선명히 머물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방해 하는 것이 혼침과 도거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흘렀을 때 그 대상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것이 정념 즉, 억념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살피는 마음인 정지입니다. 지속적인 지수행을 통해 살피는 마음은 세밀한 알아차림의 상태가 됩니다. 정지의 알아차림이 부족하면 실제 대상을 마음에 두고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혼침과 도거에 빠지게 됩니다.

지(知)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문력을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들은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사유력을 키워야합니다. 기억의 힘을 키우고 정진의 힘을 키우면 완전한 집중력으로 대상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삼매의 수행법을 바로 알아 수행한다면 구주심이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해심밀경〉에서는 "정념과 정지를 지속적으로 의지했으나 노력이 없이 삼매에 들었다면 이는 지에 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몸의 느낌이 확실한 경안의 상태에서 지속되면 마음도 따라 경안이 일어나 기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분별하는 의식이 지닌 흔들림을 조종하는 기운(에너지)이 일어나면 초선정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삼매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관을 이루는 버팀목이 됩니다. 윤회의 근본을 뿌리 뽑지 못한 것을 세간의 관이라고 하고 무아의 지견을 깨닫는 관을 출세간의 관이라고 합니다. 욕계(오근의 감각에 의해 대상이 있고 오욕을 키움), 색계(욕계의 상계로서 욕계의 허물을 끊음으로서 이름), 무색계(색계의 상계로서 최종 유정천에 이름)인 삼계의 단계를 밟아 직접적인 선정을 닦습니다. 하계의 허물로서 상계의 공덕을 관찰하는 삼매를 통해 미세한 상위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취된 지를 공성을 통해 관으로 이루어 가는 것을 지관쌍수라고 합니다. 오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관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밀교수행에 있어서도 지관수행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불교 내의 대소승과 현밀교를 막론하고 지관수행은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인도 다람살라=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 생색내지 않는 삶



동국대 선학과 교수

수년 전의 일로 기억된다. 태국 방콕의 국립 쭐라랑콘 대학에서 세계불교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참석했다. 그 국립대학에는 장엄스럽게 모셔진 불경의 경장(經藏)을 볼 수 있었다. 여느 대학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광경이었다. 학생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불교도인 듯했다. 합장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얼굴에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기도 했다.

관광지로 유명한 치앙마이 한 계곡에서 목욕하며 노동 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던 코끼리들의 여유로움이 이 나라에서나 느끼는 목가적인 풍경이었다. 저 코끼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말을 할 줄 하는 코끼리가 있다면 나에게 휴식과 먹거리 밖에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할 것만 같다.

그 평온을 유지하던 태국에 물이 범람하여 국민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소중한 불교 문화재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쌀 생산국으로 꼽히는 나라에서 쌀값의 폭등은 확연한 일이 됐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겨 세계 경제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원래 하늘과 땅은 말이 없다. 뭘 바라지도 않는다. 중국의 천자들은 통치 기간에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제일 과제로 여겼다. 산림녹화사업과 관개수로를 원활히 소통되게 하는 것이다. 중국말에 메이파쓰(沒法子)라는 말이 있다. '어찌 할 수 없다'거나 '그럴 수밖에'라는 의미가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이다. 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비단 옛 일 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대등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하(夏)나라 우왕(禹王)은 하남성 용문산의 폭포를 3단으로 나누어 가로막아 홍수를 피할 수 있게 했다. 3월 3일 꽃피는 계절이 되면 잉어가 그 3단의 폭포를 오른다는 전설이 있다. 그 세 단을 다 오르고 나면 그 잉어는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한다. 그러나 채 오르지 못한 잉어는 오히려 바위에 머리가 부딪치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할퀴기도 하여 이마나 온 몸에 상처만 남기게 된다고 한다. 그러한 물고기를 점액(點額)이라고 한다.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잉어는 힘없이 하류로 밀려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천자는 자연 재해를 염려하고 성인은 인간의 심성을 걱정한다. 영가현각은 〈증도가〉에서 "깨달음이란 곧 마침이다. 공을 들이지 않는다. 온갖 유위법과는 같지 않다. 생색내는 보시는 하늘나라 가는 복이요. 그건 활을 겨누어 허공에 쏘는 것과 같다. 세력이 다하면 활이 도로 떨어지듯 다음 생에 뜻하지 않음을 받는다"고 말했다.

유위법이란 현상계를 말하며, 미혹한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한다. 유위복도 또한 다를 바 없다. 세월의 흐름 속에 마침내 끝이 보인다. 그러기에 유위복을 "수행인에게 있어서 복은 삼세의 원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니, 왜 그 좋다는 복이 삼세의 원수가 되는가. 첫째는 복을 짓느라 한 생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 둘째는 복을 쓰느라 한 생을 보내게 되며, 셋째는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박복하게 한 생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3생을 복 때문에 헛된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일깨워 주는 법보시는 그 결과가 깨달음이요, 해탈이다. 유한을 탈각한 무한한 행복과 영광을 안겨준다. 정법이 있고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불보살이 함께 하고, 선신들이 그 곳을 옹호한다.

선사들의 수행 모습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선사들은 한결 같이 기복(祈福)하는 일이 없다.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선사들은 한결같이 기복하는 일 없어**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해야**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시간**
**생색은 작을수록 더 큰 결실 맺는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만 점검 했을 뿐이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무엇과 거래할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지금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만이 비전 있는 삶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침묵하는 산을 본다.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인간을 본다. 자연은 말없이 순환의 질서를 지킨다. 과시 한다거나 추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 앞에서 경외심을 갖는다. 자기표현을 열심히 하는 인간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 달라는 말이나 행동이 앞서는 것 같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토라지기도 하고 마침내 결별이란 수순을 밟기도 한다.

씨앗으로 번식되는 식물이 어찌 한 두 가지 뿐이랴. 괴목의 씨앗은 크기가 4mm인데 나무의 크기는 엄청나다. 어느 때 인지 모르겠는데 씨앗은 바람결에 날아와 산모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 나무를 보살 필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눈길을 주고 옹이가 생기지 않게 가지를 잘 쳐주는 일이다. 그런데 몇 년 사이 두 손으로 감쌀 수 없도록 밑둥이 크게 자랐다. 괴목의 씨앗은 생색을 내지 않았다. 생색은 작을수록 그 결과는 크게 결실을 맺는다는 이치를 괴목에서 배운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34559

• 원기둥초 (7.5Ø×29cm)

PC바람막이

용도 : 허공기도,
천신기도시 바람막이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 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인 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 파라핀 오일 국내산 원액. 제조 삼환양초



• 도자기 인등

小 가로 13Cm 세로 17Cm
大 가로 15Cm 세로 19Cm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 마지막강의 – 송광사 광원암 암주 현봉 스님

# 실로 엮어진 천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왜?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가 11월 2일 〈대승불교의 정수, 반야심경〉의 저자 송광사 광원암 암주 현봉 스님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성료됐다. 현봉 스님은 강의를 통해 대승불교의 중심은 반야사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반야심경〉에는 모든 경전의 뜻이 함축돼 있고, 해탈의 길, 대 자유인의 길을 설해져 있다"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모든 존재와 어울려 살 수 있는 수행자의 길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양행선 전남지사장



### 대승불교의 정수

불교가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바깥세상으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승불교에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반야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야부 경전은 불교 본래의 정신에서 멀어져 훈고적인 주석학에 몰두하고 있던 부파불교에 대한 반성을 비롯해 불교 근본정신을 다시 되살리려는 각성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아함경〉의 근본인 연기법을 공(空)사상으로 해석한 반야부 경전은 반야바라밀에 중점을 두고 보살도의 실천도 반야바라밀의 완성에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반야바라밀은 공(空) 사상입니다. 반야부 경전은 공사상의 바탕이 되고 뿌리가 돼 중관과 유식, 여래장 계통의 수많은 대승경전을 등장시켰습니다. 때문에 반야부 경전을 이해하지 않고는 대승경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야부 경전은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승경전의 3분의1에 해당할 정도로 방대한 양을 자랑합니다. 반야부 경전은 대승불교 경전 가운에 가장 먼저 성립된 경전에 속합니다. 반야부 경전은 대승불교와 함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승(大乘)이라는 말을 처음 등장시켰으며,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반야부 경전은 시작도 끝도 공(空)입니다. 〈반야심경〉은 260자의 한자로 이뤄진 짧은 경전이지만, 모든 경전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모든 의식에서 〈반야심경〉을 기본으로 독송합니다.

〈반야심경〉에는 모든 공통으로부터 해탈하는 길, 대자유인이 되는 길이 설해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재(自由自在)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있다는 것' 입니다. 서구에서 말하는 'free'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경전에 나오는 자유라는 말은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인 줄 알고 귀결될 줄 아는 것이 자유자재의 삶입니다.

이를 관하는 것이 바로 관자재(觀自在)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을 관자재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관자재보살은 대자유인입니다. 어디에서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대상을 살피는 것은 관이라고 합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겪고 있는 고통의 소리를 듣고 갖가지 방편으로 제도하시는 분입니다. 관세음은 구세의 자비를 실천하는 측면을 강조했고, 관자재는 지혜 즉, 반야의 돈오(頓悟)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둘이 아니며 깨달음의 지혜와 그 실천인 자비는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세음과 관자재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방법이 〈반야심경〉의 핵심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절에서 가정을 위해, 남편 사업을 위해, 자식들 학업을 위해 기도를 할 때 부처님께 초 공양을 올립니다. 촛불을 켜는 것은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어둠을 거둬 내고, 무명을 거둬내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장애를 걷어내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의 불을 켜야 합니다.

관자재의 관(觀)은 관찰의 주체이고 자재(自在)는 관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관자재는 관찰자가 바깥의 다른 대상을 관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자신을 관하는 것입니다. 즉, 주관인 나 자신이 객관인 바깥 세계를 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회광반조(廻光返照)하는 것입니다. 회광반조는 마음의 빛을 돌이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성취해 모든 현상의 참모습이 본래 공함임을 깨달아 전도된 몽상을 여의고 아무 걸림 없는 대자재를 성취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룬 분으로 수명의 자재, 마음의 자재, 업에 끄달리지 않는 자재, 재물의 자재, 지혜의 자재, 방편의 자재 등을 성취해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실상을 깨달아 스스로 갇혀있는 틀을 벗어난 관자재보살은 어디에도 얽매이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참 생명의 무한 가능성을 실천하는 수행자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고액의 질곡을 벗어나

**〈반야심경〉 대자유인 되는 길 있어**
**'자유자재'는 서구의 'free'와 달라**
**이 세상 모든 것 나로 인해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 바로 알아야 행복해**

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선각자입니다.

### 동체대비 삶을 실천해야

근세 서구에서는 신(神)이라는 미망(迷妄)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르네상스기에 휴머니즘이 일어났습니다. 휴머니즘은 현대의 물질문명을 낳는 토대가 됐고, 오늘의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서구 휴머니즘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자연과 다른 생명을 인간과 분리시키고, 자연을 마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며 미숙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와 다른 생명,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잃어버린 인간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나와 이웃, 인간과 다른 생명, 그리고 자연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편리만 좇아 물질문명을 추종하던 몽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있다'는 연기(緣起)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존재의 참모습을 바로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상호의존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연기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니고,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니고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니 너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자연의 파괴가 나의 파괴이며, 환경의 오염이 나의 오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을 실천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모순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최상의 지혜이며, 일체의 고액을 건지는 최상의 자비인 반야바라밀다의 모습입니다. 실천적인 삶의 모든 존재를 고통의 질곡으로부터 해탈하는 길입니다.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반야바라밀다는 큰 신비의 주이며 큰 광명의 주이며, 위없는 주이며, 견줄 바 없는 주문이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주문입니다. '시무상주'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또 '무등'은 어디에다 비견할 수 없는 최고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생존합니다. 마치 여러 가닥의 실로 짜여있는 천과 같습니다.

생사대해를 넘는 강이 극락강입니다. 극락강에는 차안피안(此岸彼岸)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볼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불을 켜고 비춰야 합니다. 나만 비추지 말고 모든 이웃사람들, 모든 존재들을 다 비춰야 합니다. 자타(自他)가 전부 하나인 빛에 가면 너와 내가 없습니다.

서로 합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듯, 서로서로가 자타일시 돼야 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면서 등불을 켜면 실상의 연기에 의해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돼야 합니다. 두 귀를 열고 가족과 이웃을 잘 살펴 서로 배려해주고 아껴주며, 부처님의 뜻으로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것인 반야바라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반야심경〉의 행자가 돼야 합니다. 〈끝〉




#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시린 가을 하늘에 흩뿌리는 선혈하!

## 단풍나무 이야기

단풍

너의 죽음이
국민장이 되는구나
기껏 여름 몇 푼의 그늘
업적은 미비한데
화려한 장례식에
명산은 문상하느라
온 나라가 북새통이다

(박가월)

단풍의 이유

이 가을에 한 번이라도
타오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다.
내내 가슴이 시퍼런 이는 불행하다.
단풍잎들 일제히
입을 앙다문 채 사색이 되지만
불행하거나 불쌍하지 않다.
단 한 번이라도 타오를 줄 알기 때문이다.
너는 붉나무로
나는 단풍으로
온몸이 달아오를 줄 알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와 같아서
무작정 불을 지르고 볼 일이다.
폭설이 내려 온몸이 얼고
얼다가 축축이 젖을 때까지
합장의 뼈마디에 번쩍 혼불이 일 때까지.

(이원규)



백담사 단풍나무

산 전체가 요원(燎原) 같은 화원(花園)이요, 벽공에 외연히 솟은 봉봉(峯峯)은 그대로가 활짝 피어 오른 한 떨기의 꽃송이다. 산은 때 아닌 때에 다시 한 번 봄을 맞아 백화 난만(百花爛漫)한 것일까? 아니면 불의의 신화에 이 봉 저 봉이 송두리째 붉게 타고 있는 것일까? 진주홍(眞朱紅)을 함빡 빨아들인 해면같이, 우러러 볼수록 찬란하다. 산은 언제 어디다 이렇게 많은 색소를 간직해 두었다가, 일시에 지천으로 내뿜는 것일까? 단풍이 이렇게까지 고운 줄은 몰랐다. (중략) 우리도 한 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다리는 줄기요, 팔은 가지인 채,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옷을 훨훨 벗어 꽉 쥐어짜면, 물에 헹궈 낸 빨래처럼 진주홍 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다.

시선을 낮춰 아래로 굽어보니, 발 밑은 천인단애(千斷崖)), 무한제(無限際)로 뚝 떨어진 황천 계곡에 단풍이 선혈(鮮血)처럼 붉다. 우러러보는 단풍이 새색시 머리의 칠보단장(七寶丹粧) 같다면, 굽어보는 단풍은 치렁치렁 늘어진, 규수의 붉은 치마폭 같다고나 할까. 수줍어 수줍어 생글 돌아서는 낯 붉은 아가씨가 어느 구석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도 같구나!

-정비석 〈산정무한〉 중에서

### 단풍의 꽃말은 '사양'
### 더 이상 사랑 받지 않겠다는 의미

가을산의 진객은 단풍이다. 단풍이 없다면 가을산은 얼마나 스산하고 팍팍하랴. 생가와 진액이 빠져버린 잎들을 보는 마음 또한 파삭파삭할 거다. 연록의 새순이 여기저기서 태울음을 터뜨리는 봄 산, 짙푸른 녹음이 꽃보다 현란한 여름 산, 치렁치렁 눈꽃 화관을 눌러 쓴 겨울 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풍의 합창이 있기에 가을 산은 자랑스럽다.

단풍나무의 꽃말은 '사양'(당신의 사랑을 받지 않으렵니다)이다. 이미 더 채울 것 없는 진홍이다. 덧칠할 물감이 없으니 사양할 수밖에. 거기에 덧칠한들 무슨 색깔이 나오랴. 만취(滿醉)에 그저 자족할 뿐, 리필은 노땡큐다. 단풍은 100% 만취상태다. 부족한 1%도, 넘치는 1%도 없다.

가을산에서 단풍나무를 만나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눈부시다는 표현 따위로는 역부족이다. 식어가는 가슴이 예열도 없이 울컥 끓는다. 오래 전에 마신 에테르의 엑기스가 다시 살아나 가슴을 활활 태운다. 시린 가을 하늘을 향해 분수처럼 선혈을 뿜는다. 어쩌자고 저렇게 무작정 불을 질러 대는가. 바라보는 눈길은 불길이 되어 가슴을 쾅쾅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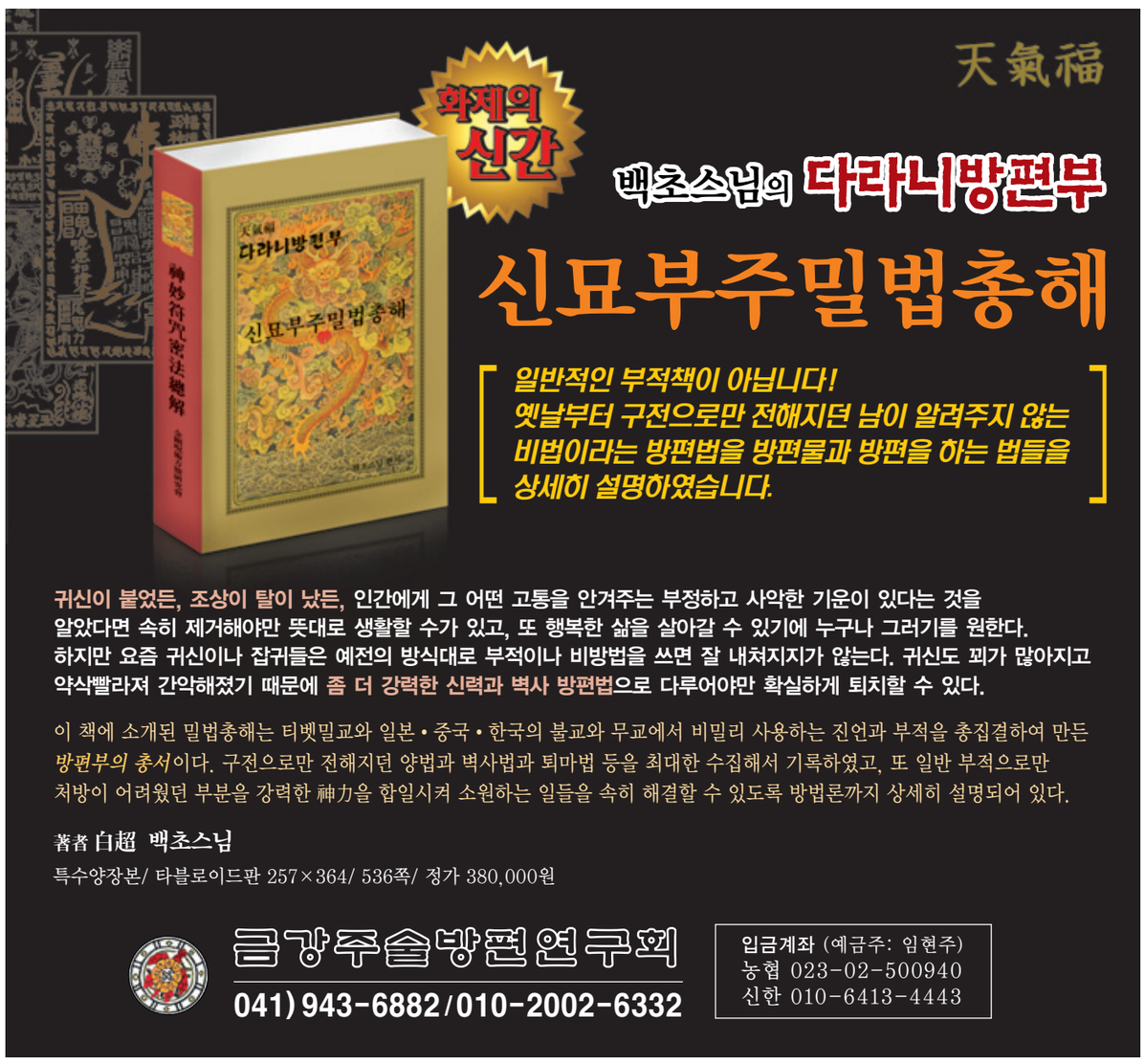
단풍나무는 단풍나무과(丹楓－科 Acer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다. 키가 15m까지 자란다. 잎은 마주나고 5~7갈래로 갈라지며, 갈라진 조각의 끝은 뾰족하다. 꽃은 5월에 핀다. 한 꽃에 암술 또는 수술만 있거나 2가지 모두 있다. 수꽃에는 수술이 8개, 암꽃에는 암술이 1개 있으며 암술머리는 2갈래로 갈라져 있다. 꽃잎은 암꽃과 수꽃 모두 없고 꽃받침잎 5장이 꽃잎처럼 보인다. 열매는 9~10월에 시과(翅果 / 열매의 껍질이 얇은 막 모양으로 돌출하여 날개를 이루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 흩어지는 열매. 단풍나무의 열매, 물푸레나무의 열매, 복장나무의 열매, 신나무의 열매 따위이다. 날개열매, 익과)로 익는다. 우리나라 남쪽지방에서 주로 자라고 가을에는 잎이 붉은색으로 물든다.

### 물기 많아도 추워도 잘 자라지만
### 공해 심한 곳에서는 자라지 못해

잎이 1년 내내 붉은 종류를 홍단풍(또는 봄단풍 · 노무라단풍), 푸른 것을 청단풍,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수양단풍 등이 있다. 단풍나무는 반그늘 또는 그늘지고 물기가 많은 땅에서 잘 자라며 추위에도 잘 견디나, 공해가 심한 곳이나 바닷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낮술 취한 단풍이 가을을 흥건히 적신다. 만취로 온통 얼굴이 붉어도 비틀거리지 않는다. 낮술은 선비의 술, 양반의 술이다. 낮술에 취할 줄 아는 인사는 공해도 싫고 예의 없는 바닷가도 싫다. 피를 함부로 뿌리지도 않는다.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지압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초혼 · 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궁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 모두 잠든 밤, 궁을 나오다



삽화 김영수

통상적으로 사냥꾼이라고 하면 우리는 짐승의 가죽을 몸에 걸친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사냥꾼으로 모습을 바꾸고 어울리지 않게 가사를 걸친 정거천의 변신은 너무나 생뚱맞아 보인다. 하지만 신이 하는 일은 아무리 엉뚱해도 이유가 있는 법, 정거천의 대답은 걸작 중의 걸작이다.

말 한마디로 천금의 복을 짓게 하고 허공에 광명을 쏘아 상서로움을 만들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옛날 모든 부처님의 표식인데 어찌하여 이 옷을 입고 살생이라는 죄를 짓는 행동을 하십니까?"

일부러 저 먼 색계의 하늘로부터 부처님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사냥꾼으로 변신을 한 정거천이 아니던가. 이 시간만을 기다린 그의 대답은 정말 기상천외하다.

"내가 가사를 입은 이유는 여러 사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사를 입고 있으면 사슴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의 말을 들은 부처님이 대답한다. "만약 당신의 말과 같다면 가사를 입고 있는 이유는 다만 사슴을 죽이기 위함이지 해탈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의 보배 옷과 당신의 옷을 바꾸겠소. 나는 이 가사를 입고 일체 중생을 거두고 구제하여 번뇌를 끊고자 합니다."

살생의 업을 없애고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옷을 바꾸어 입겠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이 선업으로 바뀌어 차곡차곡 쌓인다. 정거천은 이제 궁 밖을 나와 세상을 방랑하게 될 부처님을 위해 미리 말 한마디부터 천금의 복을 짓도록 유도를 하는 셈이다.

가사를 입음으로써 사슴을 유인할 정도로 교활한 사냥꾼은 교과서 같은 부처님의 말에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고 흔쾌하게 옷을 바꾸어 준다. 처음부터 입으로 복을 짓고, 옷을 주기 위해 내려왔으니 그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이다. 동시에 정거천은 부처님께 처음으로 가사를 드린 공덕을 짓게 된 셈이다.

옷을 벗어 준 정거천은 허공으로 올라가 하늘로 돌아가면서 원래의 자신인 신으로 몸을 바꾼다. 정거천이 허공에서 몸을 바꾸자 동시에 하늘에서 기이 광명이 솟구쳤다. 이 광경은 그때까지도 부처님께 다시 궁으로 돌아갈 것을 애원하던 마부 찬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정거천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경제적이었다. 그는 무사히 부처님과 옷을 바꿔 입었을 뿐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허공에 광명을 쏘아 상서로움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정거천, 고행을 끝낸 부처님을 위해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공양하도록 하다

그 후로도 정거천의 활약은 계속된다. 그의 가장 큰 공덕은 맨 처음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 옷을 바꾸어 입음으로써 가사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6년간의 고행을 끝낸 부처님이 기력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 수자타로 하여금 공양을 드리도록 한 것이다. 부처님이 목욕을 하는 동안 소치는 목동의 딸, 수자타 앞에 나타난 정거천은 여인 앞에 우유죽을 만들어 낸 뒤, 부처님께 바치라고 말한다. 시기적절하게 음식물 공양을 받은 부처님은 또 한 번 커다란 원을 세우고 죽을 드신다.

'나는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 음식을 받는다.'

의식주(衣食住) 가운데 의(衣)와 식(食)을 담당한 정거천의 차례가 지났을 때, 드디어 주(住)를 해결해줄 주인공 제석천왕이 등장한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 수십 년 법문마저도 책에 담아 공양 올립니다

### 제5대 포교원장 퇴임한 혜총 스님의 법문집 '공양올리는마음' 출간



**공양올리는마음**
혜총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3000원

11살에 동진출가한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율풍 진작을 통해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자운 스님을 40년간 시봉했다. 큰스님 시봉을 통해 하심을 체득한 혜총 스님은 모든 이에게 자비로울 수 있었고 스님으로 하여금 크고 작은 자비를 전하는 일을 하게 했다.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 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부산불교청소년기관협의회장 등 혜총 스님이 지냈거나 머물고 있는 직함들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대한불교신문을 창간했다. 불교문화창달을 위해 실상문학상 외 5개 대상을 제정한 것도 스님의 따뜻한 마음과 포교 원력에서 비롯됐다. 스님의 포교 원력은 조계종 포교원 제5대 원장 소임 동안 더 널리 회향됐다. 혜총 스님의 포교 원력이 말과 글로 오롯이 담긴 책, 법문집 〈공양 올리는 마음〉이 출간됐다.

책에는 부처님이 중생에게 대기설법 하듯 각계각층의 사람들 근기에 맞춘 주옥 같은 말씀들이 풍부한 예화와 함께 실려 있다. 대중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혜총 스님의 밝고 따스한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을 읽다보면 혜총 스님이 바로 곁에서 조근 조근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생생한 법문은 페이지마다 넘쳐난다.

책은 ▷1월 그대 삶을 자비로 꽃피우라 ▷2월 보시를 하면 날마다 행복하다 ▷3월 선업의 씨앗을 심고 가꾸라 ▷4월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청정하다 ▷5월 공양 올리는 마음 ▷6월 지혜는 행복한 삶의 주춧돌 ▷7월 고통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성취하는 길 ▷8월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 운명이 바뀐다 ▷9월 뿌린 대로 거두리라 ▷10월 본 마음으로 돌아가라 ▷11월 운명을 바꾸는 기도 ▷12월 참회는 성불의 첫 걸음으로 구성됐다.

자비 보시 지혜 인욕 수행 정진 인과응보 기도 참회 등 불교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나누어 담아 불교입문서 · 법문자료집으로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편집됐다. 책에는 1년 12달 법문의 제목만 읽어도 좋을 만큼 스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녹아있다.

책에는 혜총 스님의 솔직 담백하고 진실한 성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눈에 띈다. 지체장애자 시설에 봉사를 하러 갔다가 벽에 똥칠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장애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그 예이다. 또, "신도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떠들어대는 내가 실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라며 참회하는 스님, 다른 사람 같으면 숨길 일을 드러내 놓고 반성하면서 이 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면 상대방과 일체, 한 몸, 동체(同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바치는 혜총 스님의 말씀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혜총 스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서 태양이 올리는 공양을 생각한다. 천지만물을 향해 비치는 햇빛은 태양이 대자연을 향해 올리는 거룩한 공양이다"라고 말한다.

스님은 "태양의 공양행이 없다면 만물은 하루도 살지 못한다. 태양 뿐 아니라 땅 허공 등 삼라만상 모두가 나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라고 강조한다.

혜총 스님은 "참고 견디는 인욕이야말로 더 이상 죄업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공양의 공덕을 쌓게 한다"고 말한다.

책은 여러 곳의 포교현장에서 부처님과 선지식의 말을 빌어 자비와 나눔의 가르침을 설해 온 혜총 스님이 그마저도 독자들에게 회향하는 공양물이다.

조동섭 기자



# 2000년 중국불교 이끈 2100명이 이 책에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한보광 · 임종욱 편저
도서출판 이회 | 5만원

중국은 불교가 시작된 인도에서 그 꽃을 피운 한국과 일본을 잇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중국불교에는 초기불교의 아련한 모습부터, 범인류적인 가르침으로 승화된 대승불교, 정신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선불교 등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다양한 모습으로 화현돼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불교 관련 인물 2100여 명의 생애와 업적을 3800매의 원고에 정리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과 임종욱 동국대 외래교수는 최근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을 펴냈다.

보광 스님은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를 개원해 고승의 문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옛 문헌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임종욱 외래교수는 동국대에서 불교한문학을 연구한 인재이다.

책은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을 위해 탁마해 온 중진학자와 신진 연구자가 마음을 모아낸 것이다.

보광 스님은 "불교문헌의 대중화를 위해 임종욱 외래교수가 중국사에서 활동한 인물의 생애를 정리한 묵직한 연구서를 갖고 찾아왔을 때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스님은 임종욱 외래교수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 확인과 보완할 범위, 문장 및 기술 방향 등을 도왔다.

책에는 중국 고대부터 청나라 말기까지 활동했던 인물 가운데 스님을 비롯한 중국불교사 관련 재가자를 인명과 생몰연도, 왕조 이름과 출신 지역, 자(字), 호(號) 등 순서로 기술 · 정리했다.

책은 일반적인 사전 형식에 따라 편찬돼 인명 표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식 한자독음을 표기했다. 지명과 관직명도 한국식 한자독음을 표기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운 것도 책의 특징이다. 확인이 된 경우 인명에 대한 상세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참고문헌을 항목 맨 끝에 고딕체로 첨가했다. 호칭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을 사용했고, 기타 호칭의 경우는 따로 표시를 두어 찾아보도록 했다.

또, 부록으로 〈자호사전〉을 포함시켜 인명과 관련 있는 자와 호, 범명(梵名), 이름, 저서 등을 가나다순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조동섭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6~11/1

| 순위 | 도서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기도 (내려놓기) | 법륜 | 정토 |
| 2 |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 도법 | 불광출판사 |
| 3 |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 일운 | 담앤북스 |
| 4 | 산승불회 | 유철주 | 불광출판사 |
| 5 |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 기후 | 이자리 |
| 6 | 엄마수업 | 법륜 | 휴 |
| 7 | 붓다를 죽인 부처 | 박노자 | 인물과사상사 |
| 8 |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 선재 | 불광출판사 |
| 9 | 마음공부 첫걸음 | 김명우 | 민족사 |
| 10 | 소설 선 | 고은 | 김영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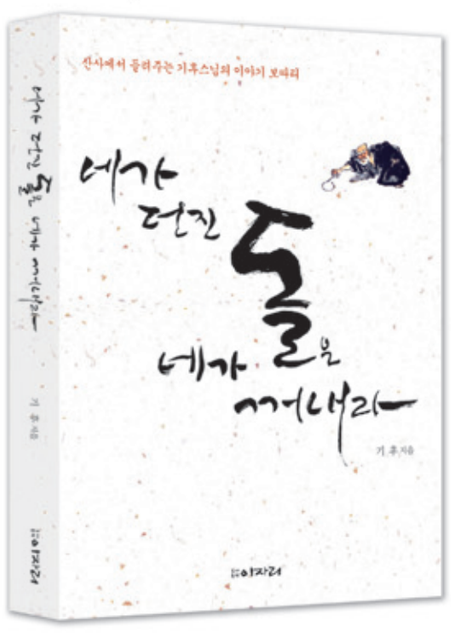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깊은 산중에서 들려주는 기후스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보따리

이자리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꺼내야 할 돌은 무엇인가?

기후스님이 풀어내는 20년간의 수행 이야기를 읽다보면 어느덧 내 안에 스스로 던진 크고 작은 돌들이 만져진다.

수행자의 삶이란 마음호수에 던져진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다. 그것들은 꺼내면 꺼낼수록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
행자생활부터 승가대와 제방 선원, 그리고 6년간의 묵언수행 등 45년간 공부 외길을 걸어온 기후스님의 따듯하고 훈훈한 선방이야기-
고단하고 힘들어 보이는 행자생활과 치열하게만 느껴지는 선방 수좌생활조차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절로 흐르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찔끔거리게 하면서 스님 특유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긋나긋하게 펼쳐진다.
첫돌도 되기 전에 찾아온 천연두를 천형天刑처럼 가슴에 담고 정진했고 늘그막에 걸린 암에는 참회를 담아 수행했다.
그랬더니 천연두도, 암도 오고 간 데가 없어졌다. 그리고 스님은 웃으면서 우리들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꺼내야할 돌은 무엇인가?"



스님이 계신 구마동 계곡은 20km나 외줄로 나있는 깊은 산중이다. 장대비가 하루만 내려도 그 순간부터 길이 끊기고, 깊은 눈이 오면 녹지 않아 3개월씩이나 소식이 단절된다.
그 흔한 손전화도 통하지 않는 깊은 산중 ~. 그러나 그곳에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스님의 작은 목소리가 우리들의 메마름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다.

책 내는 마음 도서출판 이자리는 언제나 맑고 깨끗한 마음의 소리를 담아냅니다.

# 내 마음부터 열면 모두가 하나돼

### 11월 12~13일 세종문화회관서 한마음선원 한마음음악제


'한마음음악제' 합창연습을 하고 있는 어린이 합창단원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하나이니 내 마음 활짝 열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한다면 일체 생명이 하나로 연결될 것이라"(대행 스님 법어 中)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실천하는 음악제가 열린다.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11월 12~1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를 주제로 한마음음악제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스님 100명, 국외지원신도 120명, 어린이 120명, 청년 150명, 거사·보살 750여 명 등 총 1300명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1·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선원 국내·외 지원 합창단이 선법가를 선보이며, 2부 화합대제전에서는 황병기 명인, 이화첼리, 이춘혜, 전제덕,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등이 공연한다.

대행 스님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진리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모른다. 또한 자신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근본에 대해서 모르고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다"고 가르치며 닥쳐오는 모든 것을 근본자리에 맡겨 놓고 오직 '관(觀)'함으로써 스스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의 이 같은 가르침은 한마음선원 사부대중들로 하여금 자비의 실천을 펼치고자 2001·2004년 심장병 어린이와 간암환자들을 돕는 음악제를 개최케 했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조계종 총무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 역시 공연을 통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생실천의 메시지'를 전해 주변 소외계층과의 나눔을 통한 실천운동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마음선원은 이번 음악제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을 초청해 문화 나눔실천도 한다.

특히 공연에서 얻어지는 수입전액을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등을 통해 해외구호 및 교육지원 사업 소외계층 청소년 및 장애인 후원사업을 위해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2001 심장병어린이 돕기 합창제 모습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은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모든 생명체들을 내 몸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웃과 더불어 가는 사회를 실현하며 대지진과 쓰나미, 태풍 및 폭우, 해수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아래 음악제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아픔들이 거듭되고 있지만, 어려고 힘들수록 하나로 연결된 한마음의 길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둘 아닌 도리로 나눔을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서로 돕고 아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 실천을 염원하는 정성을 담아 음악제를 마련했다. 부디 마음으로 하나 되는 법음(法音)의 향연에 동참해 서로에게 밝음을 주는 뜻 깊은 자리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항상 웃고 심각하지 않은 것도 수행

### 새 명상음반 한국 발매한 음악가 크레이그 프루어스


MIT 출신 미국인 음악가의 명상음반 '신성한 붓다찬트' 네팔에서만 100만장 판매돼

크레이그 프루어스(Craig Pruess·62·사진)는 미국출신 뮤지션이다. 사라 브라이트만, 클리프 리차드 등의 앨범을 제작한 유명 프로듀서이며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그래미상 노미니스트이다.

이러한 그가 불교의 만트라(주문)를 현대적으로 창작한 뉴에이지 찬트인 '신성한 붓다 찬트(Sacred Chants of Buddha)' 음반을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 한국에 발매했다. '신성한 붓다 찬트'는 네팔에서만 100만장 이상 팔린 세계적인 명상음반으로 10여 년 전 처음 국내에 소개된 이래 명상음악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스테디셀러이다.

앨범에는 바즈라 구루 만트라, 옴마니반메훔 등 6곡의 명상음악과 사용법이 수록됐다.

앨범은 전체적으로 스님들이 집단으로 외는 만트라를 장엄하면서도 부드러운 남성코러스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적 색깔을 입혔다.

프루어스는 그의 화려한 경력과 실력이 불교 명상과 수행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던 프루어스는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버리지 못하고 늘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등의 철학적 사유를 해왔다.

신중한 고민 끝에 그는 과학철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21세 때부터 매일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프루어스는 "명상수행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한다. 그는 "나는 명상을 통해 마음이 스스로 왔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매우 흥미를 느꼈다"며 "이로 인해 내 삶의 비전은 확고해졌고 나는 용기를 얻어 나의 삶을 음악에 바치기로 했다"고 회고했다.

크레이그 프루어스는 1973년까지 영국에서 객원연주자로 활동하다가 편곡, 지휘, 음향엔지니어, 녹음 프로듀싱을 맡으며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매일 명상과 요가 수행은 빼먹지 않았다.

프루어스는 수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인도전통음악과 아시아 문화, 토착음악에 매료됐고, 수행자의 삶을 닮아가고 있었다.

"저는 수행을 통해 개인적인 습관을 모두 고쳤고 40년 동안 규칙적으로 채식과 식이요법을 병행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기 시작하자 프루어스는 다른 종교를 믿는 아티스트들이 어떤 음악을 표현하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경험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클리프 리차드, 사라 브라이트만 등 최정상 뮤지션들의 앨범 제작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 그들과의 작업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녹음 스튜디오에서 최고의 음향 기술과 녹음 실력을 가진 엔지니어 및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경험은 이후 1977년 독립 레코드 회사인 '헤븐 온 얼스뮤직(Heaven on Earth Music)'을 설립했을 때 매우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절인연으로 맞아떨어지듯 그때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 큰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1984년에는 그래미상 수상자 대상에 호명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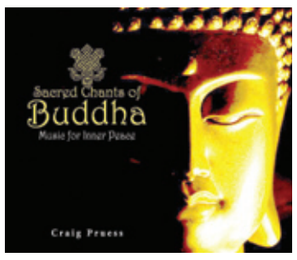
이후 프루어스는 서양의 클래식과 민속음악, 인도 고전음악,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리듬과 멜로디를 차용하는 등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신성한 붓다찬트'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발매했고 네팔에서는 100만장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다.

최근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자선기금 마련 콘서트를 개최한 프루어스는 '찬트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루어스는 불자들에게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매일 수행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매일 수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담을 갖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맙시다. 항상 웃고 심각하게 말하지 않는 것도 수행만큼 도움이 됩니다." 이나은 기자




# 담백·소박한 붓맛 느껴보세요

### 11월 10일까지 양산 회관서 물금사 현고 스님 전시회


현고 스님의 '가피'

20여 년간 선서화가로 활동 중인 가산 현고 스님(물금 용화사 주지)이 11월 10일까지 경남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다섯 번째 전시회를 연다.

전시에서는 스님이 동자승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유롭고 맑은 내면의 세계를 화폭에 담은 작품이 전시된다.

선서화(禪書畵)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선의 세계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으로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오묘한 깨우침이 담겨 있다.

스님들이 불교 수행으로 얻은 깨달음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과 그림으로 우리나라의 선서화는 담백하고 소박한 맛이 특징이다.

이번 선서화전에는 모두 340여 작품이 전시되며, 자유롭고 욕심 없이 사는 동자와 온화한 웃음으로 고요하게 열반으로 향하는 붓다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선보인다. (055)384-5111 이나은 기자

# 가을·사유·성찰·명상이 만나면

### 11월 20일까지 OCI미술관 '사유의 방' 전시회 열어


'여행에 관한 명상' (황주리 作)

감성이 차분해지는 가을, 사유·사색·성찰·명상을 키워드로 한 전시회가 열린다.

OCI미술관(관장 김경자)은 예술의 세계와 일상의 삶에서 사유와 명상을 공유하고자 '사유의 방(The Room of Meditation)'을 11월 20일까지 연다.

OCI미술관의 신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인간의 의식 세계를 규정하는 이성과 감성, 정신의 영역에 연원을 두고 존재의 근원적 표상을 좇아온 동시대 작가 15인의 작품세계를 1·2부로 나누어 그 예술의 노정을 파노라마식으로 소개한다.

1부는 추상회화로 구성된 '사라진 풍경(Disappearance of landscape)'으로, 현상으로서의 가시적 풍경을 벗어나 심상의 풍경과 마주할 수 있는 김태호, 박현수, 설원기, 이상봉, 최경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2부는 구상회화로 구성된 '존재의 회귀(Return to the existence)'로, 현실에 있는 모든 존재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일깨우는 오원배, 주태석, 지석철, 황용진, 황주리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02)734-0440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낙엽밟는소리에
한생각그쳤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화선(看話禪)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수행론 강설
031)721-2148~9
무 아 선 원

My Pride Dongguk!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신(편)입생모집
2012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 과 정 | 학 과 | 전 공 | 모집인원 |
|---|---|---|---|
| 석사 및 문화예술인 지도자 | 불교예술문화 |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 00명 |
| | 연극예술 | 연 극 예 술 | |
| | 문예창작 | 시, 소설·드라마 | |
| | 예술경영 | 공연예술경영, 조형예술경영 | |
| | 예술치료 | 미술치료(*지도자과정 제외) | |

※ 과정, 학과(전공), 학기별 선발인원은 추후 확정 예정

■ 접수및 전형일정

| 구 분 | 일 자 | 구 분 |
|---|---|---|
| 인터넷 원서접수 | 2011.11. 7(월) ~11. 17(목) | -본교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http://gsca.dongguk.edu |
| 전형일자 | 2011.11. 26(토) 09:00~ | -면접장소 : 본대학원 홈페이지 공고<br>-면접시간 : 개별공지<br>-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전형료 | ₩60,000 | |
| 합격자발표 | 2011.12. 2(금)10:00 예정~ |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br>-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게시판 |

■ 수업 일시
매주 월, 화요일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00 ~ 21:20 ]
■ 문의처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실
TEL 02)2260-3606~7 FAX 02)2260-3741
dongguk UNIVERSITY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불조정맥
Dharma Lineage of the Buddhas and Patriarchs
佛祖正脉
불조정맥 3개국어판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게(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편찬, 의역하였다.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하여 세계인들이 불법의 정수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 농촌과 도시가 부르는 하나의 노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는 한국 불교의 취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천구에 생협과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인드라망은 마찬가지로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선센터와 함께 주민들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10월 29일 양천 공원에서 열린 '2011 가을 한마당'은 불교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도시에서 펼치는 보기 드문 행사였다.





'2011 가을 한마당'에 참가한 주민들이 인드라망 생협의 물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 지역공동체 형성 애쓴 인드라망
## 주민 · 단체들과 화합의 잔치 열어
## 지역관계자들 "첫 시도 기대 크다"
## 주민들 부스 체험하며 도농 교류

아침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농 교류와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행사가 위축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행사 전에 비가 그쳤고, '2011 가을 한마당'은 길놀이를 시작으로 뜻 깊은 출발을 알렸다.

'가을 한마당'은 인드라망이 2003년부터 소속 회원과 불교신도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마을 장터 형식의 축제다. 그동안 사찰 안에서 진행했으나 올해는 더 많은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사찰을 벗어나 지역 속으로 뛰어 들었다.

인드라망은 이번 축제를 위해 양천구에서 활동 중인 단체 및 기관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축제를 기획해 왔다. 축제의 출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것이다. 6월 첫 준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친환경', '도농교류', '마을축제'라는 주제를 갖고 양천지역 14개 단체들과 수시로 만났다. 2010년 11월 양천구 신정동에서 개관한 국제선센터(주지 현조)도 인드라망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 그렇게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교류, 지역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 도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꿈꾸는 '2011 가을한마당'이 시작됐다.

### "하늘과 땅에 감사"

'2011 가을 한마당'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가 끝나자 도법 스님이 양천공원 무대 위에 올랐다. 기념식장에는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 스님과 이경동 양천문화원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김미선 iCOOP 양천생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도법 스님은 "사회 양극화와 생태, 인간 소외 문제 해결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런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다. 도시와 농촌, 이웃과 이웃이 만나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이 마무리 되면서 곡식들이 알차게 영글도록 돌봐준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의 뜻을 올리는 추수 감사제가 열렸다. 추수 감사제 상차림은 '2011 가을 한마당'에 참가한 농민과 단체들의 생산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참가단체들과 농민, 지역주민들은 차례로 제상 앞에서 음복을 하고 '2011 가을한마당'의 원만한 회향과 앞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을 기원했다.

### 가족과 손잡고, 이웃과 하나되기

이번 '2011 가을한마당'에는 20여 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단체들이 마련한 부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인드라망은 귀농귀촌 알림마당과 인드라망 생협의 친환경 생활재를 홍보하는 마당을 운영했다. 국제선센터도 북카페, 청년회존, 탁본인경체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렸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양천생활자치네트워크도 공정무역,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찾기 홍보 부스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정보를 교류했다. 양천문화원은 디카콘테스트를 개최해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말을 맞아 어린 자녀들과 함께 행사장을 방문한 가족단위 참가자들은 각종 체험마당에 관심을 보였다. 행사장 한 가운데에서는 행사 내내 무료로 뻥튀기를 나눠줘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 했다. 어른들도 오랜만에 뻥튀기 제작 과정을 지켜보면서 옛 추억에 사로잡혔다.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은 굴렁쇠 굴리기에 도전했다가 생각처럼 되지 않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어른들이 숙련된 시범을 보이자 금방 따라하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굴렁쇠 굴리기에 푹 빠져들었다. 불자 어르신들도 연꽃 만들기 체험 부스에서 환희심 가득한 표정으로 연꽃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인드라망 생협도 주민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인드라망은 부스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물품들을 소개하면서 인드라망이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알렸다.

특히 이번 행사가 도농 교류의 일환으로 열린 만큼 친환경 농산물 알림마당은 주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불교귀농학교 12기 이석민 씨는 경북 상주에서 생산한 감식초 모과 돌배 알토란 등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했고 16기 이인석 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생산한 야콘, 고구마, 밤 등을 판매했다. 또한 전북 남원 지리산 친환경영농조합, 강원도 횡성 공동체지원농업센터, 경기도 이천 참농영영농조합 등이 저마다 정성스럽게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였다. 양천주민들은 각 농산물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 뒤,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도농간의 상생을 실현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했다.

김미선 iCOOP 양천생협 이사장은 "지역축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도농교류의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도시가 연꽃이면 농촌과 자연은 뿌리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지역사회 관심 강조



"지역은 도시의 뿌리다. 생태적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법 스님(사진)은 '2011 가을한마당'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불교의 지역사회 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드라망과 실상사를 통해 실천해 온 지역공동체 활동이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스님은 "불교와 사찰들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뿌리다. 지역과 사회를 위해 우리가 활동을 해야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을한마당 축제도 인드라망이 위치하고 있는 양천구를 토대로 도시 공동체 형성에 나서겠다는 시도였다. 도시에서의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지역 단체 및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더구나 대형 사찰도 아닌 인드라망이 활동가들의 힘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웃 종교인들까지 행사장을 방문해 양천구의 종교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도법 스님은 "도시가 연꽃이라면 농촌과 자연은 뿌리다. 연못이 고갈되면 연꽃은 시들 수 밖에 없다. 지역공동체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져도 지켜내야 할 중요한 가치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지역공동체 일, 청년이 빠질 수 있나요

### 국제선센터 청년회 부회장 구민영



지역 불교활성화는 물론이고 불교계의 모든 현안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청년 불자다. 그러나 이번 '2011 가을 한마당'에서는 청년 불자들의 희망찬 에너지가 가득했다.

국제선센터 청년회(회장 안상욱)와 회원들이 청년 특유의 패기를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들은 자체 부스를 마련하고 음식장만부터 판매까지 모두 직접 진행했다.

"함께 모여서 팀을 나누고 회의를 하며 준비 했어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청년들이 빠질 수 없잖아요."

국제선센터 청년회 구민영 부회장(사진)과 청년회원들은 이날 어묵과 떡을 팔면서 국제선센터와 청년회 홍보 활동도 펼쳤다.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준비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도농 상생과 도시 공동체 만들기의 가치를 이해했기에 청년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구 부회장과 청년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또래 청년과 직장인들을 직접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선센터 청년회는 10월 16일 '꿈ing'의 발대식을 갖고 청소년과 직장인들을 위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

구민영 부회장은 "국제선센터가 양천구에서 문을 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 내년에는 청년회가 좀 더 내실 있는 모습으로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 · 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 인생의 퍼즐 맞추기, 당신은 어디까지?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들이 늘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있는 저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고 느끼게 해 주는 것은 꽉 찬 충만감보다는 텅 비어있음이 온전히 내게 다가올 때이다.

무엇이든지 익어가고 준비가 되어갈 때 그것을 알려주고자 마음 한 견에서 조용히 '직감' 이 나타난다. 어느 쪽에서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주저없이 "네"라는 대답을 느낄 때가 있다.

무엇을 찾기 위해 애쓴다는 노력은 전적으로 미래를 향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정확히 발견해 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가능하다.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 조금은 다르게 살아갈 내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했기에 늘 투덜거리며 상노스님, 노스님 밑에서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지난 20년간 병원법당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게는 큰 뒷받침이 되어 주었다. 미래의 다른 것을 쫓고 구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했던 지난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이다.

억지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가?

퍼즐 맞추기를 즐겨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조각의 수가 늘어날수록 퍼즐의 조각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긴장할 때가 있다. 한 조각을 집어 들고 억지로 이리저리 맞춰보려고 한참 동안 용을 쓴다. 하지만 결국 어디에 조각을 둘지 알게 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강제로 옮길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의도할 수는 있다. 9살에 절에 들어온 이후로 부처님과 어른스님들이 살았던 대로만 따라서 걸어가기로 마음먹은 이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오로지 한 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 지난 세월 동안 그저 부처님과 어른들 사셨던 길이 맞겠거니 하고 그냥 걸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심사, 내면의 성장들은 모두 출가수행자의 본분이라는 목적 하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모아져 왔다. 어느 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퍼즐의 조각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에 알맞게 맞춰지길 바라고 있다.



병원법당에서 법회를 보고 있는 지홍 스님의 모습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 남보다 더 춥다면 인삼과 두충을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고 추위를 많이 타서 옷을 겹겹이 껴입어야만 외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고 호소한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양기(陽氣)가 허약한 '양허 체질' 에 해당된다. 양기는 '불(火)' 과 같은 기운이므로 불기운이 부족한 '냉성 체질' 이라고 할 수 있다. 양허체질은 우리 몸의 양기의 근본인 신장의 양기가 부족한 상태이다.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부신' 이나 '갑상선' 의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는 '부신 기능저하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한의학에서의 신장이 서양의학의 호르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면 아울러 심장과 비위장의 양기도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위장이 냉하므로 손발과 배가 차가우며 소화가 잘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한다. 만성적인 소화불량, 식후 팽만감, 식욕부진 등이 많고 헛배가 불러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고 설사하기 쉽다. 추운 곳에 오래 있거나 혹은 참외, 팥빙수 같은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양기가 더욱 약해지므로 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설사를 줄줄 하고 맑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또한 내성적인 성격으로 걱정, 근심이 많아 마음이 편치 못할 때가 많고 정신 신경계가 안정을 잃기 쉬우므로 신경 불안증이 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위장 질환이나 신경성 질환이 오기 쉽다. 뿐만 아니라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며 의욕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혈압이 낮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 특히 성감이나 성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일정하지 못하거나 생리통이 심하기도 하고 냉이 많이 나오기도 하며 각종 부인병이 쉽게 유발되고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여름에 에어컨 실내에서 생활하며 찬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추위가 오면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양기를 보충해 주는 보약을 먹어야 할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더위가 물러간 초가을에 미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양제를 먹어 두어야만 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보양약으로는 인삼, 두충, 음양곽, 계피, 육종용, 녹용 등이 있으며 술을 담가 매일 마셔도 좋다.



음식도 따뜻한 성질을 가진 것을 위주로 먹어야 한다. 채소는 마늘, 쑥, 파, 부추, 생강, 고추 등이며 육류로는 닭, 개, 염소고기 등이다. 생선은 미꾸라지, 명태, 조기 등이고 과일은 복숭아, 석류, 귤, 대추가 좋다. 차로는 인삼차, 생강차, 꿀차, 수정과, 식혜 등이 좋고, 음식으로는 찰밥, 삼계탕, 추어탕 등이 좋다. 매일 먹는 김치의 경우에도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고추, 마늘 같은 매운 양념을 많이 넣고 담가서 잘 익힌 김치를 먹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배추의 서늘한 성질이 덜해진데다 유산균도 많아 소화와 식욕을 돕기 때문이다. 반면에 백김치나 동치미 결명자나 상황버섯을 달인 물을 마신다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역시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겨울에도 추위를 느끼기는커녕 얼굴이 자주 벌겋게 달아오르고 더위를 많이 타며 찬 음식을 즐겨 찾는 사람들도 있다. 몸속에 열이 많은 체질로서 양기가 왕성하거나 혹은 음기(陰氣)가 부족해서 양기가 비정상적으로 항진되는 경우이다. 비위장에도 열이 많기에 언제나 소화가 잘되고 식욕이 왕성한 편이다. 아울러 소변량이 줄거나 이상이 생기기 쉽고 허리가 아프기 쉬우며 당뇨병이 생기기 쉽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 나온 음식들을 되도록 적게 먹는 대신 차가운 성질을 가진 보리, 메밀, 팥, 녹두, 고사리, 미나리, 상추, 가지, 연뿌리, 우엉, 오이, 참외, 딸기, 감, 우유, 미역, 다시마, 오징어, 게, 돼지고기, 맥주 등을 먹어야 한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8〉

# 사랑하는 사람은 소유 대상이 아니다

일전에 뉴스에서 이혼한 부부에 관한 내용이 보도됐다. 명문대 출신 의사가 강남의 부잣집 딸과 결혼했으나 20년 만에 결국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고상하고 고고해서 우아해 보일 정도이다. 부인은 남편에게 "가난뱅이 주제에 돈 보고 나와 결혼해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부정한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두뇌에 든 건 하나도 없으면서 돈만 가지고 자랑한다. 피타고라스 수학공식 하나 제대로 알고 있냐?"며 매일 싸움을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세상은 요지경인 것만은 확실이다.

이 두 사람의 이혼 발단은 어디서부터인가? 첫째는 상대의 인격은 보지 않고 겉모양에만 관심을 둔 탓이요, 둘째는 자신이 가진 것만 내세우는 자아에 대한 애착, 아만 · 아상我相(ego)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부의 아만통으로 자녀들은 물론이요,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었으니 비극은 자신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 '나' 라는 존재는 형태가 없어 '나' 없으니 '나의 것' 도 없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발단은 바로 이 아상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과시욕구의 생존욕을 중심으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자아의식을 구축한다. 그 구축한 세계에서 이기심은 한층 커져가고,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 라는 존재의식, 그 '나' 는 무엇이기에 그토록 추켜세우는 걸까?

자신과 뜻이 맞지 않으면 상대에게 아만이 세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자신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의 근본 욕구이다. 그러면 이 아상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지나치게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에게 아만심을 극복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무아(無我)를 제시하셨다.

〈반야심경〉 첫머리에 "관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다섯가지 쌓임[5온]이 공이라는 것을 관조해 깨닫고 모든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났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독송했을 이 문구를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나' 라는 존재는 5온, 즉 육체(색)와 정신작용(수상행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이 육체+정신작용으로 이루어진 '나' 는 영원불멸한 존재도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존재이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잠깐도 내 몸에서는 몇 개의 세포가 사라졌을 테이고, 호르몬이 새로운 호르몬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오늘은 외출하고자 했던 계획과 생각을 바꿔 글을 쓰고 있다. 아니 방금 전에 독서하고자 했던 계획을 글 쓰는 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마음조차 잠시도 여일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변하고 있고, 육신 또한 끊임없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 바로 무상(無常)하기 때문이다. 무아는 무상을 바탕으로 하며, 무상과 무아는 불교사상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몸뚱이도 무상하게 흐르고 있고, 수(느낌) · 상(개념) · 행(상카라) · 식(인식) 정신작용 각각도 정의할만한 실체가 없다. 그러니 육체만을 가지고 '나' 라고 할 수 없고, 수상행식 각각에도 '나'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곧 다섯 가지가 임시로 합쳐진 것이라고 하여 '5온개공(五蘊皆空)' 이라고 한다.

'나' 라는 존재를 해체하고 분해해서 볼 때, '나' 라고 인정할 만한 조건은 곧 5온의 한 작용에 불과하고, 지 · 수 · 화 · 풍 4대로 뭉쳐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 라는 존재가 어떤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어느 순간을 잡아서 '나' 라고 정의할 것인가? 주재성이 없는 존재이건만 어디에 자존심을 세우고 아상을 내세우겠는가?

'나' 한 개인도 내세울 것이 없건만 자녀를 '나의 것' 이라고 착각하니 자녀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 상대방을 소유 대상으로 여기다보니 윤회하는 원인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도 살아생전 잠시 빌렸다가 두고 가야하는데 '나의 것' 이라고 애착부리다보니, 삼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 라는 개체성이 없건만 무엇을 내세워 사람들과 다퉈야겠는가. 〈금강경〉에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고 지혜를 얻는다면, 이 수행자가 얻는 공덕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역대 조사들도 한결같이 "이 아상만 제거되면 모든 번뇌가 동시에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사물은 '나' 라고 할 만한 개체가 없다[諸法無我]라고 지혜를 가지고 분명히 관할 때, 이 사람은 고통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청정해지는 지름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 아파트 특보 복지원

개요 : 스님들이 원력을 세워 아래의 기업과,재단,사단법인은 사업 이윤을 사부대중과 사회에 기부하여 자리이타를 실천한다.

주제 : 1.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주택(아파트)을 저가로 제공한다.
2. 노스님들과 노인대중을 위해 복지후생을 실천한다.

**1. 사업 계획 : 아파트 건립부지**

대지 9550평(평당250만원선)에 제공하며 주택(약750세대)을 서민에게저가로 공급한다 (평당600만원선)

**2. 사업 계획 : 서방정토극락세계구현**

토지 3000평 허가득 봉황산끝자락 서남향 노스님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복지원을 건립한다

**상기와 같이 뜻이 있는 건설사, 시행사, 종단, 스님, 투자자와 많은 불자님들의 참여를 신문지면을 통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보재단(가칭) : 향산, 백하, 운장, 덕삼 합장**
**사업시행자 : 동 보 산 업 개 발 주 식 회 사**
**문 의 처 : 031)941-0000 / 010-7677-7556**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고조선’의 주체를 어떻게 비정할 것인가?

# 고조선이라 하니 신조선도 있어



강화도 마니산에 있는 첨성단.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알려져 있다.

## 고조선의 주체, 학자들도 합의 못봐
## 中·日, 단군조선을 신화로 치부해

### 1. 고조선의 건국과 해체

한(韓)민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 이름은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고조선’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고조선’의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고조선의 구성에서 단군조선을 배제하고 기자조선 혹은 위만조선부터 한사군(漢四郡)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 몇몇 학자들은 일본 학자들의 비판을 의식해 기자조선을 제외한 뒤 그 시기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개아지’조선(奇氏朝鮮 혹은 解氏朝鮮)이나 ‘한조선’(韓朝鮮) 또는 ‘예맥조선’(濊貊朝鮮)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자(箕子)와 그의 40여 세대 후손으로 알려지는 준왕(準王)은 ‘후손’ 관계가 아닐 것이며, 이것은 중국인들이 ‘이민족동화술’(異民族同化述)로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보았다.

종래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또한 믿을 수 없는 ‘전설’ 혹은 ‘신화’로 치부해 말살해 왔다. 그들은 또 기자가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까지 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인했다. 나아가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중국의 문헌기록들은 중화사상(中華思想)에 의해 조작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고대부터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논리를 세워 그들의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만든 것이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이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해방 이후가 지나서도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 토착인들이 세운 단군조선은 어느 정도 복원시켰지만 일본 식민사관의 강력한 영향 아래 기자조선을 배제하고 위만조선과 한사군으로 전개됐다는 주장을 통설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와 만주지역에 출현시킨 첫 고대국가이다. 고조선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는 아니었지만 많은 거수국(渠帥國, 諸侯國)을 거느린 지방분권 국가였다. 그러나 고조선은 마지막 단군인 고열가(古列加) 시대에 통치력을 잃었고 부여· 읍루· 고구려· 동옥저· 예· 한 등의 거수국들은 독립을 꾀했다. 이 과정에서 고조선의 단군과 그 일족의 후손들은 통치권을 잃어 버렸지만 일정한 지역에 머물면서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이란 국호는 단군 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의 국명으로 사용했고, 고조선 내에 있었던 역대 단군들의 직할국만을 부르는 명칭으로도 지칭됐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거수국들 역시 고조선의 변천과 더불어 새롭게 성장해 갔다.

일연은 우리 역사서에서 처음으로 ‘고조선’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삼국유사〉5권 9편 138조목의 서두를 ‘고조선’조목으로 내세웠다. 일연은 ‘고조선’을 ‘위만조선’과 분리해 독립된 조목으로 사용함으로써 단군조선만이 고조선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도 단군조선의 실체에 대한 논란 속에 있다. 그러나 고조선의 주체는 단군조선일 뿐 거기에 기자조선과 위만조선과 한사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조선은 오로지 단군조선만을 가리킬 뿐이다. 이미 일연이 고려 말에 이 점을 분명하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학자들은 고조선의 주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해 그들은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목에 의거해 단군조선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단군조선의 실체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 2. 고조선과 신조선의 변별

일연은 ‘고조선’조목에서 “주나라 무왕(武王)이 즉위한 기묘(己卯)년에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곧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주나라가 조선후(朝鮮候)로 봉(封)한 기자가 조선으로 망명해 온 결과 단군이 고조선을 장당경으로 옮기게 됐던 연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고조선은 기자조선이 아니라 단군조선을 가리킨다. 일연이 종래의 사서를 통해 ‘고조선’조목과 ‘위만조선’조목을 분명히 구분했듯이 그의 인식 속에서 ‘고조선’과 ‘기자조선’은 분명히 다른 나라였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난하(灤河) 바깥으로부터 시작되는 만주전역과 한반도를 ‘조선’(朝鮮)으로 일컬었다. 때문에 조선은 중국과 변별되는 동북아 지역의 총체적 명칭이었다. 단군조선과 기자 및 위만의 조선을 갈라본 일연의 안목은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 것을 근거로 그를 고조선의 통치자로 보았던 유학자들과 또렷이 구분된다.

일연은 불자이자 선사였다. 때문에 유교 문명의 패러다임을 만든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주공(周公)과 같은 성인의 권위에서 자유로웠다. 해서 일연은 중화주의나 사대주의에 구애받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다. 그 결과 ‘고조선’은 우리 역사 속에서 정당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었다. ‘옛 조선’이란 의미의 고조선은 본디 난하 동쪽과 요하(遼河) 및 대릉하(大凌河) 서쪽을 무대로 존재했던 한민족의 첫 나라였다. 고조선은 그곳 만주에서 터를 잡고 한반도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담아내었다. 기원전 12세기경에 주(周)나라의 신했던 기자(箕子)가 난하(灤河)를 넘어 고조선으로 망명했다. 주나라 무왕(武王)은 기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 뒷날 유학자들은 중화주의적 사관에 입각해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통치자로 봉했다고 기술했다.

주나라를 떠나온 기자는 단군조선의 서쪽 변경인 난하 유역에 머물며 기자조선을 세웠다. 기자조선은 단군조선의 변경인 그곳에서 수 백 년 동안 존재했다. 이후 기자의 40여 세대의 후손이었던 부(否)왕에 이어 재위에 오른 그의 아들 준(準)왕은 천 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 위만(衛滿)에게 정권을 빼앗겼다. 위만은 단군조선의 제후국(거수국)이었던 기자조선의 정권을 빼앗고 그곳에다 위만조선을 세웠다. 그리고 위만은 서한의 외신(外臣)이 돼 단군조선을 침략함으로써 고조선(단군조선)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본디 위만조선은 중국 서한의 망명세력에 의해 건립된 정권이었다. 그러나 뒷날 위만의 손자인 우거(右渠)왕이 서한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이에 무제는 위만조선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서한의 행정구역인 한사군을 설치했다.

단군조선 이후 신조선으로 자리했던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아니었다. 본디 기자(箕子)는 중국 상(商) 왕실의 후예로서 기국(箕國)에 봉해졌던 제후였다. 그는 상나라가 주족(周族)에게 멸망이 되자 단군조선의 변경이었던 지금의 난하(灤河) 유역으로 망명해 단군조선의 거수(제후)가 됐다. 이 거수국을 훗날 ‘기자가 다스리는 조선’이라는 뜻에서 ‘기자조선’이라고 불렀다. 그 뒤 서한(西漢, 前漢)의 외신(外臣)이 된 위만은 단군조선의 제후국이었던 기자의 후손인 준왕(準王)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았다. 그리해 위만은 단군조선의 제후국이었던 기자국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다. 해서 단군조선의 새로운 거수인 ‘위만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에서 ‘위만조선’이라고 불렀다.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모두 ‘고조선’인 단군조선과 변별되는 ‘신조선’이었다.

### 3. 신조선과 한사군의 영토 비정

고대사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용어’(개념)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 개념이 고유명사인가 일반명사인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에 속하는 특정한 한 개 만의 이름을 나타내어 다른 것과 구별하는 명사”인 고유명사는 인명과 지명 등에서 그 독자성을 지닌다. 한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신조선’과 별별되는 고유명사이다. 그런데 ‘신조선’과 변별되는 ‘옛 조선’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고유명사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물의 공통된 특성을 나타내는 명사”인 일반명사적 성격일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신조선에 대응하는 고조선은 이후에 건국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뿐만 아니라 이성계가 건국한 이씨 조선과 김일성이 건국한 김씨 조선과의 변별 문제가 생긴다. 일부 국사학자들이 이씨(이성계)가 세운 이씨 조선을 왕씨(왕검)가 세운 ‘고조선’과 변별해 ‘신조선’이라고 일컫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옛 문헌 기록들에 의하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과 한사군은 지금의 요서지역에 자리해 있었다. 중국의 상(商)·주(周) 교체기인 기원전 12세기 말에 기자 일족이 고조선(단군조선)의 변방인 지금의 난하 하류 동부 유역으로 망명해 단군조선의 제후국이 됐다. 그 뒤 기원전 195년에는 서한에서 망명한 위만은 기자의 40여 세 후손인 준왕의 정권을 빼앗아 위만조선을 건국했다. 위만은 서한의 외신이 된 뒤 단군조선 지역을 침략해 난하에서 대릉하 유역에 이르는 영토를 확장했다. 기원전 108년에 서한 무제는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낙랑·임둔·진번의 세 군을 설치했다. 다시 단군조선을 침략해 기원전 107년에는 현토군을 설치했다. 먼저 설치한 낙랑과 임둔과 진번은 난하에서 대릉하에 이르는 유역에 걸쳐 있었고, 뒤이은 현토는 대릉하와 요하 사이에 자리해 있었다. 그리고 기자 일족의 망명지이자 위만조선의 건국지였던 난하 하류 동부 유역은 이후 한사군의 낙랑군(樂浪郡) 조선현(朝鮮縣)이 됐다.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 고조선이 무너진 뒤 한반도와 만주에 있었던 한(三韓)·부여·비류·신라·고구려·남옥저·북옥저·예·맥 등은 단군의 후손이라고 했다. 이들 거수국(諸侯國 혹은 封國)들은 고조선의 통치자였던 단군의 후손이었다. 여기서 ‘후손’이라는 표현은 이들 나라의 통치자(渠帥)들이 혈연적으로 단군의 후손이라는 의미이자 동시에 이들 나라는 고조선에서 분리돼 나왔음을 암시해 준다. 동시에 이들 나라들이 모두 고조선의 후계세력이라는 집단귀속의식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중 문헌기록은 부여(夫餘)·고죽(孤竹)·고구려(高句麗)·추(追)·진번·낙랑·임둔·현토·숙신(肅愼)·청구(靑丘)·양이(良夷)·양주(楊州)·발유(發)·유(俞)·옥저(沃沮)·기자조선·비류(沸流)·행인(荇人)·해두(海頭)·개마(蓋馬)·구다(句茶)·조나(藻那)·주나(朱那)·진(辰)·한(韓) 및 예(濊)와 맥(貊)이 고조선의 거수국들이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는 이들 거수국들의 위치를 정확히 비교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요서지역에 자리했던 고조선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단군조선이 해체되고 난 뒤 그 유민들은 주로 주변의 거수국들에 흡수됐다. 특히 다수의 유민들은 부여와 고구려 및 진(辰)과 한(韓) 등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나라는 단군조선의 무대였던 요서지역에다 한사군을 설치했다. 요서에 설치된 한사군 바깥으로는 부여와 고구려 및 예와 맥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나라의 군제인 한사군은 분명 요서지역에 있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중국의 학자들은 한사군의 위치를 요동과 한반도 내에 비정함으로써 새로운 ‘동북공정’에 착수했다. 남북한의 국사학자와 일본의 학자들 역시 이렇게 마련된 역사기록에 표를 던져 줌으로써 고대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참’했다. 그 결과 한민족의 첫 국가였던 단군조선이 부정되고 거수국이었던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및 한사군까지 ‘고조선’의 주체로 자리하게 됐다. 일연 역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피할 수 없었고 그 또한 고대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참고문헌**

최남선, 〈육당최남선전집2〉(현암사, 1973)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1981)
윤내현, 〈고조선연구〉(일지사, 1994; 2004)
박선희, 〈한국고대복식연구: 그 원형과 정체〉(지식산업사, 2004; 2009)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봉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 행

기도성취도량 보현사에서 주지 대원스님의
집전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의 무명업장소멸과 소원성취 발원을
위해 다라니기도의 가피력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집 전 : 보현사 주지 대원스님
(봉정암, 홍련암, 금강사 천일기도 회향)
■ 일 시 : 매주 토요일 밤 9시~
■ 장 소 : 보현사 대법당
■ 문 의 : 보현사 033)745-1263

다라니기도의 가피력
다겁생의 무명업장소멸
병고액란 소멸 , 소구소원성취

보 현 사 주지 대원 합장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산 191-1번지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12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당면판단완성 정가650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농 협 301-0071-8027-01/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범음범패 학인 모집**

매주 월요일
• 오후 3시-5시(재의식) 무료지도
• 오후 5시-7시(기초과정) 무료지도
* 사물,바라,나비무(별도지도)
대승불교영불원(경주 삼보사)
054)745-5822
010-4590-6366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

**전통의약 비법전수(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관절염 , 악성목허리 디스크, 악성골수염, 악성오십견, 갑상선 물혹, 편도종양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가 어려운 분에게 해당 됩니다
•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합니다
010-6285-3703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혜주 011-9957-2660

**해남 황토 고구마**

불자가 직접 재배한!!
황토 밤 고구마 10 KG
황토 호박 고구마 10 KG
재배 농민이 직접 판매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농협 : 631040-52-000238 황인욱
010-3604-6978
FAX 061)537-7485

철없는 아이가 물 위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한다.
어른은 그것을 보고 웃는다.
무지한 사람은 달을
건지려는 어린아이와 같다.
- 대지도론 -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급! 인연 찾음 (그림같은 토굴)**

• 입법당, 약사여래부처님 청동해수관음부처님,
• 삼존석불, 3층석탑, 석등 방2 거실 다실 실내화장실
• 황토굴, 창고, 집기류 일체, 주차가능, 전세 3천만원
• (월세 천만원에 10만원) 비구니스님 수행처로 최적
• 년말 해외 출국으로 급함(장기 임대가능) 몸만 오면됨.
• 노스님 수행하며 해외 포교에 참여할 년령불문 비구니스님, 신심있는 보살님 급히 구함
(영광 불갑사 인근 토굴)
010-9478-1322

**신비의 약불기공 치유법**

1. **전수회원** : 불자 남녀 누구나 가능
• 별도의 수련없이 주1회 4주완성
• 기에너지 발공 및 시술법
2. **체험회원** : 빙의,암,불면증,중풍,간경화, 악성피부염, 오십견,관절염 등 각종 난치성 질환 및 통증질환에 고통받는 분
왠만한 증상 및 통증은 1회 체험만으로 즉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람)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31 한국약불기공연구원
010-4642-9672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불교 석가여래종
대한불교명상종
불교 종단법인 총연합회
불교 법인단체 총연합회
우리불교 법인
대승불교법인
011-412-8040 법광

**60대 기도수행 스님입니다**

빈 산중 사찰 시주나
장기간 맡겨 주실 분
010-8558-9317
해 공

• 대덕사 스님께서 제자를 모집합니다
-10대, 20대, 30대: 비구니 스님
• 비구니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연락바랍니다
-10대, 20대, 30대
꼭 오실 분한해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 대덕사
010-9416-7743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자모사
010-2125-4684
(사주팔자)

**같이 더불어 포교원 운영할 수 있는 40대후반 비구니 스님이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
055)752-6606
010-8390-6654
010-7154-6654

**불교전통의식 무료수강**

• 선착순 모집 :
1. 비구스님 5명,
2. 비구니스님 5명
3. 출가행자 3명 모집
화엄선원 주지스님
055)323-3569

**자격증 취득안내**

포교사,법사,종사,대종사
불교문화신문 참조
한국불교지도자협회 법광
010-3368-6075

---

**돌맹이 기도**

• 돌맹이를 손에 쥐고 하는 기도
☎ 032)664-0048 / 011-741-0867

**고(古)건물수리전문**

신축건물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종무소직원(PC가능자) 모십니다**

▷경기 평택
031)682-316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숙식제공
(제주 서귀포 구룡사)
064)762-6324

**가족처럼 믿고 의지하며 불사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부전스님과 불심이 깊은 처사님 모십니다**

(봉고차 운전가능하신 분)
(울산 정자)
010-7799-7676

**한번 맺은 인연은 영원히...**

[제주도 관광]
불자가 모시겠습니다
25인승 버스로
편안히 모십니다
010-3696-2127
고영태

---

**통 증 제 거 기 술 교 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佛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 |
|---|---|
|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 190,000 |
|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 290,000 |
|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 120,000 |
|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 15,000 |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작은 암자 부전스님 모십니다**

(초보자도 가능함)
011-574-3303

**기도 부전스님과 절에서 일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부여)
011-424-5555

**인연을 찾습니다**

50세 초반 마음공부하는 재가여성입니다
불법을 만나 20여년 공부하여
손금, 철학, 생활풍수 봅니다
아픈사람, 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
무료로 치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뜻을 이해하시고 함께하시거나
장소를 제공하실 분도 환영합니다
010-3636-6980

**기문둔갑 강의**

• 학교 진학문제
• 사업자 성패문제
• 결혼문제
• 교통사고여부, 건강여부 등 기문으로 사주를 봅니다
개인지도 강의
010-4669-9770

---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가 '사람불사', '인간불교'를 선언했습니다**

■ 참좋은요양병원(영천)
■ 참좋은이서중 • 고등학교(청도)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 053)474-8228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영남 범음 범패**

49재,예수재, 천도재등
불공해 드립니다
011-9370-4043

**전생과 빙의 치유 쏘 울 최 면 전 생 빙 의**

몇 십년을 수행한 스님들이 어쩌다 자신의 전생을 본다든가 혹은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극히 특이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심리최면을 통해서 자신의 전생도 볼 수 있으며 구병시식이 제 아무리 영험한 의식이라고 하지만 스님마다 다 하실 수 있는 의식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최면을 배우시면 복잡한 문제와 빙의 문제들을 보다 쉽게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 프로최면 의학최면 수강생 수시모집 1 : 1 맞춤형 강의. 배워서 창업하실 분 환영.
■ 자기최면과 암시 수강생 수시모집 1주일 1회 2시간 7주간 교육.
쏘울 최면심리연구원 부산연구소 Soul Hypnosis Center www.esoul.co.kr
부산 연제구 연산6동 686-7번지 051)851-8783 / 010-8519-8784 동파 합장

---

## 탈 종 공 고

• 법 명 : 동명사
• 속 명 : 법운(김규배)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1리 1095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 탈 종 공 고

• 법 명 : 법성사
• 속 명 : 정인(장근조)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유계리 산 101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www.kyksb.co.kr

**승복 · 전통복식 31년**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 경 고 문

**생활불교조계종**

상기 명칭은 법원등기
등록된 명칭이오니
무단사용 하거나
도용하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생활불교조계종 대표 道仙 합장

# 불자정보 26 | 861호 | 전면광고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 지하철역100m 즉시법회가능

- 위치 : 경남 (부산외곽)
- 법당 : 20(목조)
- 요사 : 8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6억(급매가)

- 위 치 : 부산
- 법 당 : 30(목조)
- 요 사 : 70평
- 부 지 : 실평200평
- 가 액 : 6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토굴안내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870평
- 목조법당 30평, 요사채 및 사신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가액 3억 5천

울산 시내
- 총부지 : 2,600평
- 목재법당 30평(내9포 외5포) 산세 전망최고, 주차장 500평
- 아파트 5만 세대
- 총가액: 1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 010-9006-5619

##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 평수: 대지 63평,
- 법당 11평, 방 3개, 현대식 주방 욕실완비, 주차시설 완벽
- 비구니스님 및 철학하시는분 아주좋음
- 전세 1,000만원 월세 30만원

양도 8천5백만원(절충가능)
010-2055-3366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3천만원,월100만원 시설비 보시고 절충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터미널 앞 주공 2단지 부근
- 평수 30평
- 법당, 상담실, 공양간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3240-3272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 (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8억(현지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5층건물 2층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단, 삼성단 (칠성, 독성, 산신, 용왕),미분양소불 300불
- 종무소, 주지실, 친견실, 창고, 주방, 해우소
- 평수: 8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최신, 최고시설완비
- 시설비 2 천 9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869-6799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 ,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 암 자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 대전에서 45분, 시내에서 20분이내
- 평수 730평
- 건물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인법당
- 문필봉과 일월양봉이 보이는 청정지역으로 공기와 물이 좋으며,겨울에도 따뜻한곳
- 심야보일러, 상수도, 조경시설 및 주차장
- 가액: 1억 5천만원

011-9514-7787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13분거리,진천에서 15분거리. 병천에서 15분거리(아우내장터)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 1층 건물 3동 (방 많고 큰절)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 선 방, 절 터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 대지 : 약 600평
- 임야 980평(절터자리)
- 밭 350평, 집터 600평가량
- 가옥 5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 맑고 신선한 기운터로 인정
- 선방,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 3억5천 (답사후 조정가능)

010-8582-0103

##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 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7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 포 교 원 안 내

처음 시작 하는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전주시내 최고중심
- 법당1, 방1, 주방, 욕실, 도시가스
- 깔끔하고 편리함 , 뒷문있음
- 가액: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모든 의식 가능, 주차 충분히 가능
- 부처님만 모시고 오세요

063)246-8481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0평
- 법당 15평, 산신각
- 대중방2. 공양주방
- 주방, 스님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010-8585-1383

##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
- 대지 : 150평
- 건평 : 35평
- 법당, 요사채, 방4칸
- 가액 : 1억 5천만원

010-9515-9559

##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시내
- 대지 170평, 건물 40여평
- 창고 약 6평, 방4개, 법당1개, 공양간, 화장실2, 보일러실 별로(연탄, 기름겸용)
- 삼존불, 후불탱화, 108 호신불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모든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010-8653-3216

## 포교원안내

- 위치 :남양주 호평동, 역 인근
- 평수: 3, 4층 각 54평
- 가액: 4천만원에 16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516-5563

##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권역)
- 대웅전 목재 3포 102.3㎡ (31평)
- 교통 최적지 양호 (국도변인접)
- 사찰주변 경관수려
- 가액: 13억 (약 4,000평)

011-257-4985
052)238-9001

## 포교원안내

- 대구시내(지하철역 입구요지)
- 3층에 3층 37평(옥상단독사용)
- 법당(수미단,후불,신중,산신,용왕,영단 최고시설방1, 주방, 사무실, 화장실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절충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53)795-3666

## 사찰(급)안내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종교부지 200평,임야20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20평
- 수세식 화장실, 부엌 시설완비
- 교통용지, 편리, 투자가치 높음,
- 가액: 9천 5백만원

010-2407-5899
054)336-9775

## 암 자 터 안 내

가평 북면에 암자를
찾고 계시는 스님께서는
연락주세요
1,500평 평당 25만원
양도하겠습니다.

010-4847-7436

##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 40평, 2층에 2층
- 옥상사용, 도시가스
- 법당 내부단청, 원목불단
- 후불탱화, 관음보살 석자
- ( 은행목불) 108소불(동불)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6582-2990

## 도 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산동 버스 정류장앞
-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 정원수 멋지게 가꾸고 있음
- 대지 160평(3층건물)
- 은행 2억 안고 3억 양도

011-800-0005(주인)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53평, 4층 건물 3층
- 법당 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천 8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4547-4915

##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 영산강 바로 위
- 법당1, 산신각1, 종각1, 요사채2
- 가액: 2천 7백만원

010-8675-3384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층 요사채 30평
- 2층 요사채 24평
- 3층 법당 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 82평
- 가액: 3억 1천 만원

010-2637-6144

## 포교원 안내

- 위치: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4층건물 중 2층 약 40평
- 방3개, 주방, 화장실
- 아미타,관세음대세지, 지장, 소불 250불
- 산신, 용왕, 신장, 칠성탱화, 인등 108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모든시설 A급 시설비 1천5백만원

010-7550-9797

## 포교원안내

- 위치: 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 대지 472㎡
- 건물 (철골조)
- 1층 140㎡ (등기외 60㎡)
- 2층 56㎡ (등기 외 12㎡)
- 1.2층 복층구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330-5844

##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대지 372평, 건평 60평
- 목조 임법당
- 큰방포함 5계
- 주방, 목욕탕 2개
- 가액: 1억 7천만원

011-9807-5707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1억 3천만원)

017-787-6666

##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임야 전답 총 150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 10평
- 가액 1억 9천만원

010-9967-9832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 부천 대학앞
- 4층 50평
- 삼존불, 화장실2, 방2,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절충,
- 옥상사용가능

010-6655-5411

## 포 교 원 안 내

- 구미역 3분거리 시장인근, 단독주택 60평
- 건평 42평, 방3개, 주방, 거실, 화장실2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보증금 천만원
- 월 25만원, 시설비 A급, 900만,모든 재의식 가능
-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생활편리
- 부재시 오후 7시이후 요망

054)457-4984
010-4080-8457

## 사 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종각
- 대지 180평
- 시설비 일체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6787-6624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 평수 3층건물 2층,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공원 앞 명당

010-3572-8426

##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북구 호계동
- 총면적 약 500평
- 법당, 산신, 용왕, 요사 각 1동씩
-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조절가능
- 스님 건강상 급 양동

011-874-1593

## 별장식토굴

- 위치: 창원시(마산,창원,진해)에서 승용차 20분소요 (생활불교처로 아주 좋음
- 대지: 436 ㎡, 채소밭 50여평, 과일밭 죽림 산
- 건물: 임법당1, 방4개, 주방식당2개, 해우소겸 욕실, 세탁소2, 다용도실1, 창고1, 통나무 휴게실1, 옥외해우소1, 기타시설
- 환경: 마당잔디, 자연석괴석으로 정원 조성, 표거버벗, 주차장완비
- 가액: 1억 3천만원

011-578-1413

##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3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5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 사찰, 양도(임대) 안내

-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산 168-2
- 대지 19,217㎡(5,830평)
- 건물 4개동(법당, 요사채 외 2동)
-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약사불 등
- 장기임대에서 매매전환가능함

02)403-3333
010-4225-001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와촌면 팔공산 갓바위 근교
- 청통, 와촌IC에서 8분거리
- 토지: 492평, 정남향 전망최상 (주차 30대) 이상 가능함
- 건물사용: 약 70평 2층법당 1층 요사채
- 삼존불, 칠성, 산신 모셔있음
- 에어컨 4대, 대형냉장고 4대 집기류일체(A급)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 가액: 2억 8천만원

010-8554-0187

## 양 도 합 니 다

- 위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 종교부지 삼백평, 국유지 육백평
- 송이은행나무 30주 수확함
- 정원용반송, 노나무, 옻나무
- 마가목, 느릅나무, 유실수다수
- 법당 20평, 요사 32평, 산신각
- 면소재지 위치하고 시내 및 대학로 5분거리
- 약사석불 (문화재급) •양도가 : 2억

011-677-8525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 도 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평 시장입구
- 4층 건물 3층, 100평 , •시설완비
- 보증금 1200만원,
- 월 12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32)519-1108

## 토굴터 각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 전 약 103평 , 포장도 계곡, 전기, 수도 , 접
- 양도가 1500만원

---

- 위치: (경북 영양군) 계곡 끝 경관수려함
1. 수비면 수하리 전 240평, 1500만원
2. 입암면 금학리 978평 3000만원
3. 영양읍 상원리 건 30평 창고2동 합 135평 1억 2천만원

010-6460-1316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수 있다. - 법구경 -

# “시간이 많지 않아. 그들도 이제 모두 일어났으니”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2)



삽화 · 김흥인

마치 커다란 금빛의 먼지 덩어리처럼 보였으나, 그 존재는 분명 인간의 형체를 띠고 있었다. 어떤 단위로도 세거나 설명할 수 없을 거 같이 웅장한 금빛 인간이었다. 무니는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존재가 자신의 한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게다가 그것은 막 바다에서 빠져나와 어마어마한 파도를 일으키며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그 존재는 땅으로 올라섰다.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다시 회오리치기 시작한 먼지들은 그 존재가 한 발자국씩 움직일 때마다 세차게 휘날렸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이 스쳐간 곳에는 금빛을 잃은 거친 먼지들만이 흔적처럼 쌓여갔다. 시간이 흔적이란 이런 것이리라. 무니는 자신이 아마도 이 신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 몸이 떨려왔다.

‘쿵!’ 그 금빛 존재가 갑자기 멈춰 섰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회오리바람도 다시 불었다. 천둥과 번개,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물방울들은 마치 한 폭의 움직이는 그림처럼 장관을 만들어냈다. 움직임들은 더욱 빠르게 이어졌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가늠키 힘들 정도로 높은 산하나가 우뚝 솟아났다. 무니는 한껏 고개를 쳐들고 그 산의 꼭대기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분명 끝일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도 한참을 더 솟아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또 한 번의 고요가 찾아왔다. 바람 없는 공간은 마치 정지된 듯 했고, 낮도 밤도 아닌 하늘은 보랏빛이었다. 움직임이라고는 솟아올랐던 물방울들이 땅 속 깊숙이 스며들어 어딘가로 흘러들어 가는 모습뿐이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무니는 넋이 나간 듯 멍했다. 실로 믿기 힘들 순간들이었다. 과연 누군가에게 이 일을 언어로써 설명할 수 있을까. 무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일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는 있어도, 믿게 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는 다시 저 멀리 우뚝 솟아 있는 산을 쳐다보았다.

“수메루 산이라고 부르게 될까. 저 산도?”

눈물나게 반가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지?”

“하긴 이름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기 마련이니까. 저 산이 갖게 될 마지막 이름은 수메루가 아닐 지도 모르지.”

노인은 무니의 말을 듣지 못했는지, 못 들은 척 하는 것인지 대답 대신 딴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매우 귀에 익었다.

“누구냐고 물었잖아? 내 말 못 들었어? 왜 대답이 없는 건데!”

그제야 노인은 시선을 무니에게로 돌렸다. 그는 차가워 보일 정도로 하얀 피부와 온통 새하얀 백발 때문에 한 눈에도 늙은이처럼 보이긴 했지만, 동글동글한 이목구비와 매끄러운 피부만 봐서는 어린 아이처럼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외모이기도 했다.

“이 꼬마 녀석아.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네가 알 수는 있을 거 같으냐?”

“뭐라고? 언제 봤다고 나더러 꼬마라는 거야!”

“그럼 네가 꼬마가 아니면 나처럼 영감쟁이라는 것이냐?”

노인은 빙글빙글 웃으며 대꾸했다. ‘도대체 뭐야! 이 영감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꼬마라고 불려서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내내 외로웠던 무니는 그 노인이 어딘가로 또 사라질까봐 강하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

“그러는 너는 누구냐?”

이번엔 노인이 물었다. 무니는 당신도 당해보라는 투로 대답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영감이 알 수 있을 거 같아?”

“허허. 그 녀석! 성질 한번 고약하구나.”

노인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때였다. 낯익은 풀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칸타카!’ 무니의 눈동자가 커졌다.

“이제야 온 게로구나. 아샹티야.”

노인은 그 풀피리 소리를 내며 걸어오는 짐승을 반갑게 맞이했다.

“아샹티?”

무니의 눈동자는 노인의 시선을 따라갔다. 아샹티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 짐승의 정체는 갈색 말이었다. 윤기가 나는 털에 초롱초롱하긴 하지만 좀 작은 듯한 말의 눈동자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혹시 너 남카야?”

무니의 말에 갈색 말은 또 다시 풀피리 소릴 내며 꼬리를 흔들었다.

“하하하. 너 남카가 맞구나!”

무니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며 말에게 다가갔다. 갈색 말 역시 계속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아샹티. 너는 이름이 참으로 많구나. 남카라…. 그래, 그 이름도 제법 잘 어울리는 거 같은걸.”

노인 역시 웃으며 말했다. 무니는 남카를 쓰다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흐르고 있던 눈물을 닦았다. 너무 반가웠던 것이다.

“근데 영감은 남카랑 무슨 사이야? 이 녀석을 아샹티라고 부르던데?”

노인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어 보였다.

“너는 내게 궁금한 게 그런 것들뿐이냐? 내가 누군지, 나와 아샹티가 무슨 사인지 말이야.”

무니는 노인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노인은 보랏빛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냄새나 촉감도 전혀 느낄 수 없던 암흑이 이렇게 보라 빛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보거라. 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은 산과 바다를.”

무니는 노인이 가리키는 산과 바다를 쳐다보았다. 문득 조금 전에 느꼈던 전율이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도대체 여긴 어디지?”

또 다시 멍해졌던 무니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노인에게 질문했다.

“그래. 이곳이 새로운 세계라는 건 알 수 있겠어. 아니,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야? 영감은 알고 있지?”

“허허. 내가 그걸 어찌 안단 말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니는 성큼성큼 노인 쪽으로 걸어가 그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생각했던 대로 보들보들 매끄러운 손이었다.

“영감이 날 이리로 데리고 왔잖아. 이 손과 그 목소리.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아?”

“뭐? 뭐라고? 으하하하.”

노인은 무니의 다부진 표정을 보더니 소리 내 크게 웃기 시작했다. 아직도 노인의 손을 잡고 있던 무니는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니 서있었다. 노인은 또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그들도 이제 모두 일어났으니 말이야. 이곳의 존재를 눈치 챘겠지. 문제는 크리슈나야. 이 꼬마 녀석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으니….”

노인은 무니를 슬쩍 쳐다보더니 또 싱긋 웃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니 얼마나 재미난 일인가. 그렇지 않으냐, 요 꼬마 녀석아?”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띤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의 무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니는 노인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

한편, 혼돈의 대양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파도는 크고 작은 바위를 집어삼켰고, 구름은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렸으며, 빗줄기는 땅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거셌다. 노인의 말처럼 크리슈나가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몸을 곧추세운 거대한 뱀 아난타는 긴 명상에서 깨어나는 크리슈나를 지키기 위해 잔뜩 경계를 한 눈빛이었다. 어떤 방향도 빠짐없이 지켜보는 천 쌍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반짝거렸다. 좀처럼 가까이 날아오지 않던 크리슈나의 새, 가루다 역시 아난타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런데 순간, 아난타의 한쪽 눈이 크리슈나의 머리맡에 있던 수레바퀴로 향했다. 금색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난타는 이 예상 밖의 움직임에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금방 원래 쳐다보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조금씩 구름이 걷혀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군.”

드디어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난타와 가루다의 신이 깨어난 것이다. 가루다는 마치 기쁨을 표현하듯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아난타. 비데하는 어떤지 모르겠어. 날 깨우는 반두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말이야.”

이제까지의 혼란은 남의 일이라는 듯 평화롭고 일상적인 말투였다. 크리슈나는 두 쌍의 팔을 들어 올려 기지개를 한 번 쭉 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푸른 피부색에 젊은 미남자인 그는 금색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크리슈나는 자신의 옷자락을 정성스럽게 매만지며 말했다.

“나는 누군가를 찾아야 해. 아마도 어린 소년일 거야. 그 소년에게는 전생이 없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그때 하늘 높이 날아올랐던 가루다가 크리슈나 쪽으로 다가왔다. 새와 상극인 아난타는 일시에 천 쌍의 눈을 감아버렸다.

“조금 이르게 눈을 떠서 아쉽군.”

크리슈나는 가루다의 등에 올라타며 자신의 머리맡에 있던 수레바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치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 그건 자연스럽지가 않아.”

가루다가 날개 짓을 시작했다. 잠시 후, 혼돈의 대양에 남은 건 똬리를 튼 채 고개를 숙인 아난타뿐이었다.


861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평수: 170평(5층 85평, 6층 85평)
- 법당 : 6층(옥상 70평 사용)
- 보증금 6천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고급, 즉시법회가능
- 대가람 소임관계로 양도함

010-9332-1719

**사찰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40-7(연화정사)
- 평수 60평
- 상가 2층건물로써 단독 사용가능
- 전세: 2500만원, 월세 70만원
- 부처님과 가전제품은 본인이 가져가며 내부 시설비는 없음

011-9527-6480

**토굴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 목조 건물(법당, 방 3개)1동
- 토굴 사용권 이전
- 도립공원 토지사용권 이전
- 가액 : 500만원

010-7607-7488
010-8673-7686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 사찰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0-2563-139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안양호계동 경수산업도로대로변재래시장입구
- 평당 : 24평, 5층 건물 3층
- 구조: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540), 인등 (170), LED 인등 (300)
- 방2개, 주방, CCTV대 설치
- 보증금 1300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임야 8만 4천평

010-8369-3569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 대지 면적 약 2500평
- 건물평수 50평짜리 2동
-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
- 국유지 약 2만평 인접
- 산책로로 사용가능
- 가액: 건물포함 평당 95만원 (융자 10억)
- 중환자 숲속, 요양의집으로도 적격

011-726-4711

**사찰안내**
- 위치 : 충북 황간 IC에서 10분거리
- 부지 600평
- 법당 목조 20평, 산신각 목조 3평
- 요사채 3동, 차고 사리탑 통일비, 조경우수
- 가액: 총 7억

011-510-6014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 소임 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11억 예산
(서울.안양 인접 의왕 위치)

010-3678-2567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불교와 인연 깊은 꽃

### 하화청정도(荷花淸淨圖)


하화청정도(김홍도 作)

〈대지도론〉에서 연꽃은 부드럽고
신력을 나타내는 향기가 깨끗한 꽃

단원 김홍도 그린 하화청정도에는
붉고 푸른 잠자리와 연꽃이 그려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화책으로 불리우는 〈자타카(Jataka, 本生譚)〉에 보면, 석가모니부처님은 4아승지겁(10만겁) 전에 연등불(燃燈佛)이 세상에 출현해 교화할 때 수메다(Sumedha)라고 불리우는 바라문이었다.

연등불이 제타위국에 왔을 때, 제타국 국왕은 도성 내의 모든 꽃과 향을 사들이고, 자신만이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다. 그러나 수메다는 꽃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전 500생 동안 아내였던 꽃 파는 여인인 후생(後生)의 야소다라를 만나 내생에 결혼을 약속하고 청련화(靑蓮花)를 받아 연등불에게 바쳤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입고 있던 사슴가죽옷을 땅위에 깔아 드리고 내생에 석가모니불이 되리라는 수기(授記)를 받았다.

교외별전(敎外別傳)인 선불교(禪佛敎) 기원이 되는 기록인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의하면, 영취산에서 대범천왕(大梵天王)이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며, 연꽃을 바치자 세존(世尊)은 대중들에게 이를 내 보였다. 모두가 알 수 없어 잠잠한 가운데 가섭존자(迦葉尊者)만이 그 참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정토학(淨土學)의 근간인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아미타경(阿彌陀經)〉은 모든 중생들이 왕생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구품연대(九品蓮臺)의 칠보연못을 그리고 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9가지 종류의 연꽃 위에 화생(化生)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많은 신심(信心)있는 불자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念誦)하고 있다.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의 주석서로 대승불교의 대논사(大論師)인 용수보살(龍樹)께서 저술한 인도불교사상의 백과사전이며 중관(中觀)사상의 집대성인 〈대지도론(大智度論)〉에 보면, 불상의 대좌(臺座)가 연화좌(蓮華坐)인 이유는 "연꽃이 부드럽고 깨끗함으로써 신력(神力)을 나타내어 그 위에 앉되 꽃이 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묘법의 자리를 장엄하게 하는 까닭이며, 여러 꽃은 모두 작아 이 꽃같이 크고 향기가 깨끗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전한다.

〈문자유집(文字類輯)〉에 보면, 연꽃은 수많은 이칭(異稱)을 지니고 있는데, 부용(芙蓉), 백거(白蕖, 흰 연꽃), 군자화(君子花), 하화(荷花), 水宮仙子(수궁선자) 등의 명칭이 있다. 불가(佛家)에서는 범어(梵語)의 발음대로 분다리화(芬陀利花, 흰 연꽃), 우바라화(優鉢羅花, 푸른 연꽃), 파두마화(波頭摩花, 붉은 연꽃)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동양의 삼국(三國)인 한중일(韓中日) 최초의 관세음보살 상주도량(常主道場)인 양양 낙산사에 가면, 해수관음상과 원통보전(圓通寶殿) 사이 보타전(寶陀殿) 아래 보타락(補陀落)이라는 누락이 있고, 그 밑에 관음지(觀音池)라는 연못이 있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후, 사찰에는 극락연지(極樂蓮池)를 지상(地上)에 형상화한 연못을 만들기 시작했다. 낙산사 관음지도 역시 그러하다. 관음지를 따라 의상대를 거쳐서, 바닷가에 이르면, 홍련암(紅蓮庵)이 보인다. 바다에 뜬 파두마화(波頭摩花)인 것이며, 관세음보살님이 연못 위에 홍련(붉은 연꽃)에 앉아 있음을 형상화 한 것이다.

이 하화청정도는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가 종이에 채색으로 그린 그림인데,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이다. 크기는 세로 32.4㎝, 가로 47cm의 화첩에 그려진 그림이다. 붉고 푸른 잠자리 두 마리가 날고, 연과(蓮果)와 홍련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잠자리의 한문명칭은 청정(淸淨), 또는 청유리(淸琉璃)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연화청정(蓮花淸淨)이 되고, 그 의미는 맑고 깨끗한 깨달음을 상징한다. 말년에 불교에 심취하였다는 단원(檀園)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성취(成就)를 빈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열반(涅槃)



"그는 그렇게 산이 되었다" 10월의 마지막 날 어느 조간신문은 눈 덮인 안나푸루나의 사진 위에 목 메인 제목을 올렸다. 사진은 10월 18일 안나푸루나 등반 중 실종된 산악인 박영석 대장과, 함께 실종된 신동민 대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수색작업은 종결됐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내듯 오르고 오르던 산이 돼버렸다.

"'죽음'이라 말하지 않겠다"며 소설가 박범신이 글을 이어갔다. '"산에 가야 산악인이지!" 박영석 대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우렁우렁 귓속을 울린다. 그와 그들은 단지 산악인이 아니었다. 우리의 꿈을 대신 짊어지고 간 극상의 모럴, 참된 비전이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았다.'〈조선일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산을 오르지도 내려오지도 않을 것이다. 열반이다. 흙에서 피어났던 나뭇잎들도 이제 피고 지는 일 없이 흙이 되어간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도 가을도 열반에 든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풍계명찰 선사의 '가을 못에서 고기를 구경함[秋潭翫魚]'

# 산에 병들고 물에 홀려 산다

爲愛遊魚好 (위애유어호)
登臨坐石苔 (등임좌석태)
凉風吹洞府 (양풍취동부)
寒影落泉臺 (한영락천대)
陟瀑能飛雨 (척폭능비우)
飜空自出雷 (번공자출뢰)
看來終不厭 (간래종불염)
留此不知回 (유차부지회)

노니는 물고기 즐기기 딱 맞아
오르고 다다라 돌이끼에 앉았네.
서늘한 바람 신선 골에서 불고
차가운 햇살 천대에 떨어지네.
높다란 폭포 비처럼 날리고
나부끼는 공기 절로 우레 나오네.
보고 있어도 종일 싫증나지 않아
이곳에 머물러 돌아올 줄 몰라라.

풍계명찰(楓溪明察; 1640~1708) 스님이 가을을 즐기는 모습이다. 가을은 붉은 단풍이 떨어져 드리워진 산골짜기 물속에서 유유히 노니는 살찐 물고기를 완상하기 제격이다. 제목을 보자면 노니는 물고기를 묘사할 만도 한데 어디에도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신선들이 사는 골짜기와 노나라 장공이 지었다는 천대로써 스님의 정취를 비유했고 비처럼 흩날리며 울어대는 폭포에서 스님의 호방함을 보여줬다. 배경 묘사만으로 힘차게 뛰어오르는 물고기[魚躍]을 연상시키게 했고 종일토록 자리 뜨지 못하는 모습에서 관조(觀照)를 통해 이미 자연과 하나가 된 도리를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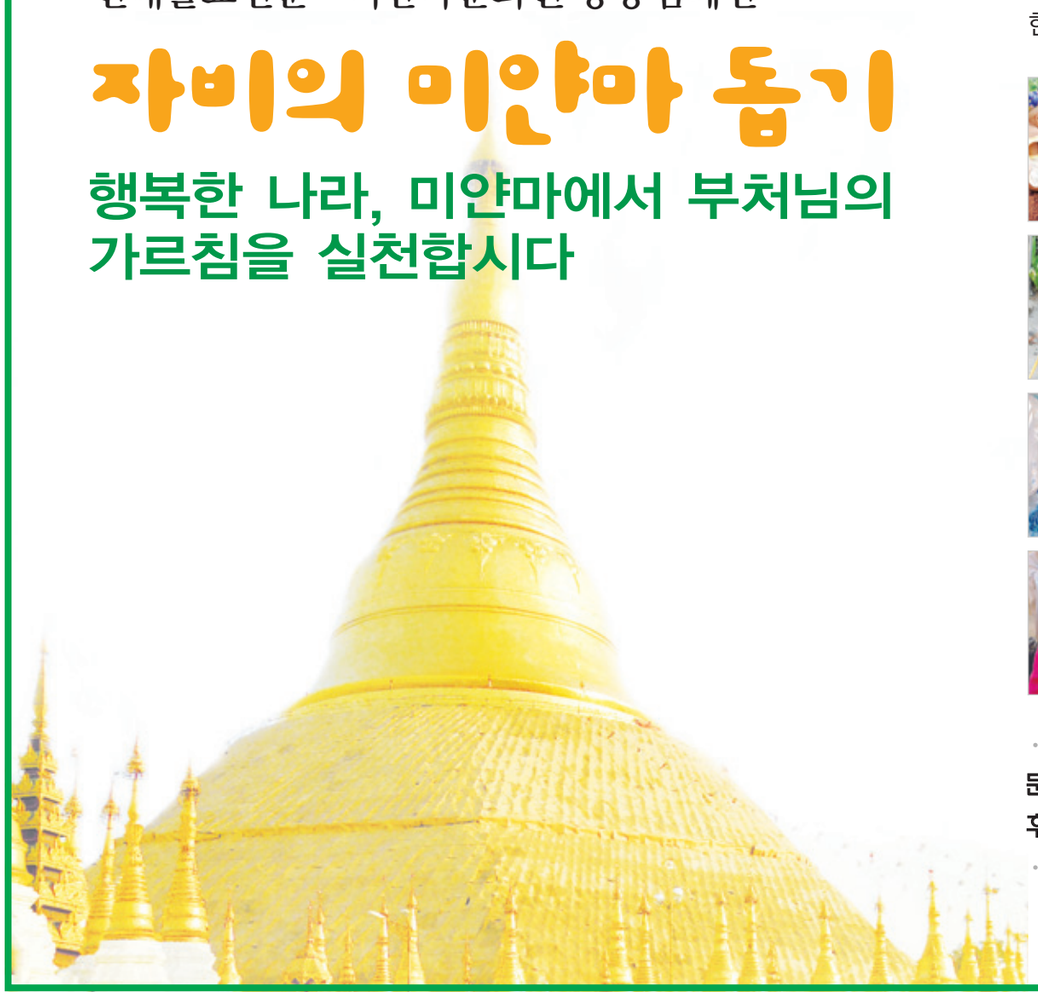
스님은 '산에 병들고 물에 홀려' 산수 간을 유람했다고 한다. 유람의 목적을 "좁은 곳에 칩거하고 있는 것은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떠서 헤아리고 대통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고 우물 안 개구리가 바다를 헤아리고 여름 벌레가 서리를 논하는 꼴이 된다"라고 말했다. 자기의 좁은 식견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아집과 편견을 경계하고 '세상 바로보기'와 '새로움의 추구'를 위하여 스님은 여행했던 것이다. 처마 끝 깊숙이 가을 햇살이 내리는 날, 도량을 활보하는 낙엽의 수만큼 쌓여가는 길 떠나고픔은 덕지덕지 붙은 구태(舊態)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재촉한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얀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대행 스님



# 들이고 내는 구멍은 한 구멍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을 낼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한 법회입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또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삶 아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수억겁 광년을 통해서 차원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이 세상에 모두 출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찰나찰나 바뀌고 바뀌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 세상에 출현할 때 이 부모에게서 나오고 또 저 부모에게서 나오는데, 곤충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습을 바꿔 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쓰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집의 자식이 됐다가 저 집의 자식이 되고, 때로는 이 곤충이 됐다가 저 곤충이 되고, 또 때로는 짐승도 되고 새도 되고 모두 이렇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렇게 거푸거푸 돌아가면서 화해서 나투는 이 자체를 생각할 때에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내 자식들의 울부짖음이요 내 형제들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같이 동참하여 더불어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데로 돌아갑시다.

우리 인생이란 지수화풍으로부터 우리 몸을 형성시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살게 하고 나중에는 지수화풍으로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지수화풍으로 가공된 물주머니 속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속 생물이 물속에서 벗어나면 못 살듯이 그렇게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또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에 여러분이 모두 자기 몸뚱이 속의 생명들로서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몸뚱이 속의 생명들은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들 몸뚱이에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느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인과로 인해서 인과성이라든가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내 영혼과 더불어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같이 형성된 것입니다. 형성됐다는 이 자체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불가에서는 이름해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이 천안 신족 숙명 타심,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현재의 말로 한다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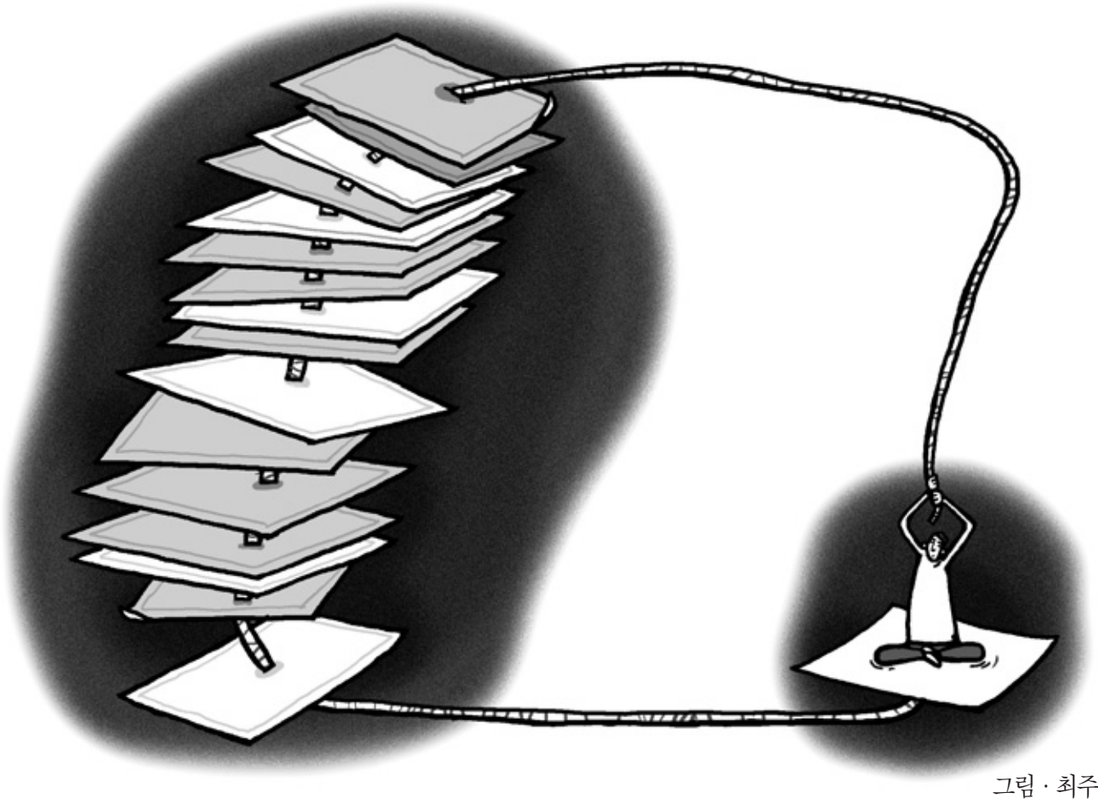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건 왜냐? 우리가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바로 불기둥이라고 이름한다면, 땅을 딛고 하늘을 꿰고 불기둥이 서 있는데 수레가 불기둥을 싸서 돌고 있어요. 이 기둥이 가운데 섰고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게 우리 생활이에요, 모두가. 우리 생활인데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근본 기둥, 그 자체에 부합이 돼야만이 오신통에서, 그 수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용어를 변경해서 오신통을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그랬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됐다가, 영계성이니 뭐니 모두가 지금 솔솔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게 하려면, 그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해야만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들어가는 대로 되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울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통 자체가 컴퓨터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던 것이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구멍에다가 다시 일임해 놓는다면 입력이 다시 돼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털구멍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방편으로 말입니다. 한 털구멍의 들이고 냄이 그렇게 광대하다고 그랬어요. 털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털구멍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들이고 내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이고 내는 구멍은 한 구멍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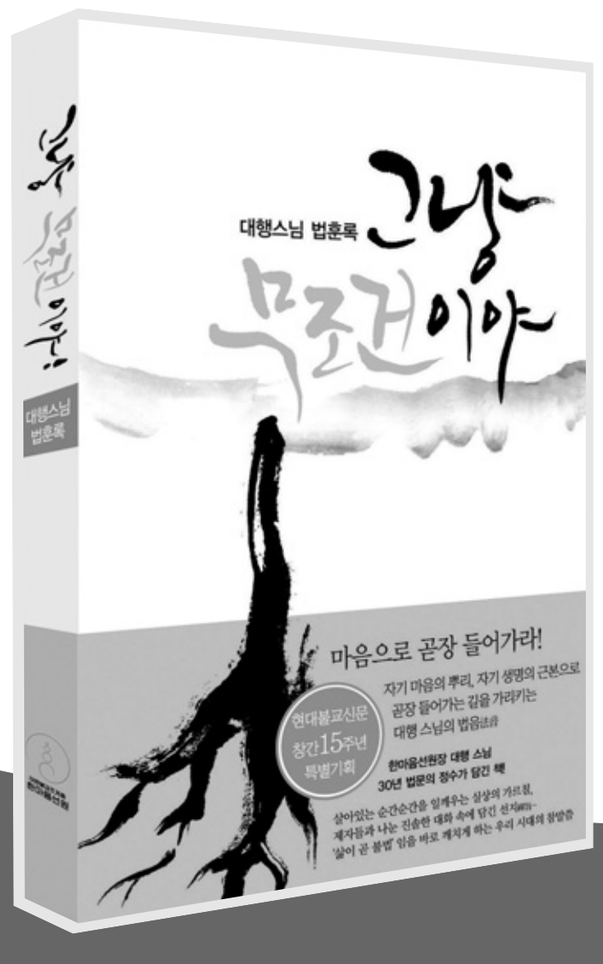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다 들이고 낼 때에 진정코 의심을 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 나가고 형성시킨 주인이 바로 나의 마음 가운데의 선장이로구나. 나의 뿌리로구나. 내 몸이 싹이라면 나의 근본 뿌리는 바로 나의 주인이로구나.'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세요. 진정코 내가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가고 오고 말하고 하는 일거일동이 바로 그 놈으로 인해서 움죽거린다고 생각할 때 진짜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맡겨 놓고 있을 때에 통신이 돼서 생명의 의식들이 전부 작용을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습과 생명이 의식을 가지고 이 몸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큰 혹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큰 회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 국토라고 해도 됩니다. 이 국토에서 모든 자생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신호가 가면, 내 마음에서 통신이 가면 벌써 대뇌를 통해서 중뇌를 통해서 책정이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모든 생명체의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공장장들이 전부 작용을 하게끔 합니다.

이것은 심성의학이기도 하지만 심성과학이기도 합니다. 이름만 거창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면서 떼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신호가 가서 내 한생각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따라 줄 수 있다면 바로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즉 시쳇말로 한다면 원자 속에서 분자로 하여금 입자가 돼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이고 내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응신이 되신단 말입니다.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생중생들에게 안과 밖을 조복 받게 되면 부처님 국토에서 낱낱이 보살로 화해서 헤아릴 수 없이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세계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 정신세계 50%를 아주 망각하면서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걸려서 돌아갑니다. 50%와 50%가 같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여여하게 돌아가며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고 물리가 터지고, 아주 마음이 천 리를 가도 간 사이가 없고 와도 온 사이가 없이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으련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고 오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보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네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하셨어요. 왜냐? 실감나요.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과학적으로는 이 그릇이 얼마만하고 물이 얼마나 담겼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지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이것을 보기만 하는 건 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줄 알면서도 이거를 갖다 먹지 못한다면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지요. 남이 목마를 때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것도 이름해서 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신계라는 것을 이름으로만 알아서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나투시는 법을 여러분도 가정에서 나투고 돌아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생활이 바로 도(道)이며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 29면에서 계속

가요. 아버지가 됐다가 형제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순간순간 찰나찰나 바뀌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부처님도 한생각에 모든 자생중생들이 화(化)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법신이 되시고 화신이 되시고 응신이 되시고 또는 아미타도 되시고 아촉도 되시고 관세음도 되시고 지장도 되시고 약사도 되시고, 닥쳐오는 대로 말입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여보!" 하고 왔을 때는 금방 남편이 됐죠? 그런데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또 아들이 된 거예요. "형님!" 하고 들어오니까 금방 형님이 된 거죠. 그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돼지가 '나를 살려 달라' 해서 부처님의 한생각이 응하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되셔서 둘 아니게 하시니까 돼지가 건져지죠. 돼지의 무명을 벗고 한마음이 돼서 이 세상에 형성되죠. 또 소가 응해 달라고 할 때는 소 속으로 들어가서 소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자기 용도에 따라서 원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 천차만별로 원하는 거를 다 응해 주실 수 있다는 거는 한생각에 헤아릴 수 없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듯 헤아릴 수 없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습도 각각이요 이름도 각각이요 용도도 각각으로 전부 변해서 나투신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소릴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도가 저 높은 데 있는 줄 아는데 도는 항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데 있습니다. 생활 속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이 없는데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내가 없는데 상대가 어디 있으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고 부처님도 계신 줄 알았지 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고 너부터 터득해야 이 세상의 모든 섭류가 터득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다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나만, 각자 여러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이 있다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에 상인은 자동적으로 상인들끼리 모이고 정치인은 자동적으로 정치인들끼리 모입니다. 그렇듯이 물건도 자연적으로, 금은 아무리 떨어지고 닳아도 금방으로 갈 것이고 넝마는 넝마전으로 갈 것이고 깡통은 깡통전으로 갈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라 오라 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도 그 차원대로 모임이 있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모두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깡통 열 개가 모여 있는데 그 깡통들이 말입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울그렁불그렁 해 봤자야 소리만 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열 개의 깡통들이 다 '내가 깡통 된 탓이지.' 하고 자기 자신 탓이라고 거기다가 놓고 돌아간다면 그 깡통이라는 모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너그럽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이 따귀를 때린다 하더라도 '허허! 내가 전자에 저 사람 따귀를 때렸구나.' 또 나쁜 사람을 볼 때 '아, 전자에 모자랐을 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지 과거에 살아나온 그 업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일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스님이 어떡하고 사나. 요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요즘은 어떡하고 사나. 조거는 어떡하고 있나.' 요걸 일일이 따져서 말을 전장하고 말이 많아진다면 이거는 공부라기보다도 업을 자꾸 지어서 태산처럼 쌓아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며 무슨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돈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 집이 화목하고 웃음이 있을 때에 '아, 저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돈도 들어오는 거지 아니, 돈이 미쳤다고 만날 싸움질만 하는 데로 들어가요?

우리가 부처님이다 여래다 이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생명체들이 천차만별로 있는데, 항상 여러분은 내가 먹었고 내가 했고 내가 망했고 내가 줬고 내가 산다 이러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물 한 컵을 먹어도 더불어 같이 먹는 거지 어떻게 내가 혼자 물을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마따나 "내가 했어도 한 사이가 없고 한 사이 없으면서도 더불어 같이 했느니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 무슨 신경을 쓰고 야단입니까? 여러분의 몸뚱이는 집합소와 심부름꾼과 관리인밖엔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심부름 하는 놈이 뭐가 그렇게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고 신경을 쓰고 그런단 말입니까? 자기 주인에게 다 맡겨 놓고 부지런히 뛰면 되죠. 절대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내가 줬는데 어쩌면 너는 보답도 안 하느냐. 내가 너를 살렸잖아.'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부처님께서도 한 사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내가 했다, 내가 먹었다, 내가 줬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두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다 할지라도 그네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한테 주는 거죠.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바로 내 자식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나오지 않은 거는 들어갈 줄도 모르고 들어가지 않은 거는 나올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으로써 내가 받게 돼 있고 받음으로써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준다' 하고 '내가 줬으니까 이런 이름이 있겠지. 내가 줬으니까 덕이 오겠지. 내가 줬으니까 나중에 뭐가 국물이라도 있겠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마십시오. 심부름꾼이 부처님 심부름을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심부름을 잘할까?'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거를 자기 그릇대로, 높이 가려고 하지도 말고 내려가려고 하지도 말고, 가는 거 끌어잡지도 말고 또는 오는 거 막지도 말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생활을 해 나가신다면 보이지 않는 빈손들이 여러분한테 아마 모든 공덕을 베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깥으로 그렇게 찾는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계의 마음과 물질과 이름이 둘 아니게 모두를 행할 때에 공덕이 되는 거지, 내가 정신계는 싹 빼놓고 물질계만 생각하고 이름만 생각하고 한다면 어떻게 공덕이 됩니까? 어떻게 한마음의 공덕이 됩니까?

한 4, 5년 전이에요. 삼남매가 사는데 그 부모가 외국에 일 갔다가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밖엔 안 계시고 벌이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남몰래 갖다 주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내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신도한테 "여보시오! 얘네들을 지금 학교에 보내야 할 텐데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요. 한 아이는 국민학생이지만 두 아이는 대학에 가야 하고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 봅시다." 하니까 "스님은 남의 일에 뭘 그렇게 참견을 하세요?" 이러곤 싹 빠져 달아나가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아유, 걱정 마십시오, 스님!" 이러고는 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 내 준 사람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럭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옛날에 그 사람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외국에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갚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부자가 됐죠.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주는 게 있으면 꼭 온다고 생각을 안 해도 스스로 옵니다. 받으려고 안 해도 스스로 받아지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얘기해 줘도 소용이 없어요. 작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한 도라무통 부어 줘 봤자 양쪽으로 다 새고 말아 버리니까요. 오직 관하는 법! 기도하는 게 아니다. '해 주시오'가 아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거.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너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어. 네가 형성한 몸이니까, 네 심부름꾼이니까 네가 고쳐서 이끌어 갈 수 있어.' 일거일동 용도에 따라서 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고 생활이 바로 도예요.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더 잘 압니다. 당신이 하는 거,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울부짖음, 당신의 쓰라림, 이런 거는 다 자기가 더 잘 알지 제삼자가 더 잘 압니까? 자기가 하는 그대로를 진실로 아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찾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무가 제 뿌리를 믿지 않고 남의 형상을 믿어 가면서, 남의 이름을 믿어 가면서 에너지를 나한테 공급해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 나무로 에너지가 가지 않습니다. 바로 제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제 싹으로 올라가서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싹은 또 에너지를 내려 보내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곤충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곤충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짐승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물에서나 들에서나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먹는 줄 아십니까? 허허허…. 사람은 아주 남 보이지 않게 정신을 잡아먹고 살아요. 사람들은 정신을 잡아먹히고 정신을 잡아먹고 이러고 살죠. 정신계의 마음공부를 안 하신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텐데도 그렇게 등한시할 겁니까.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났다 하면 망망대해에 배 한 척 띄워 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배 한 척이 가는 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배 안에 들어 있는 그 자생중생들이 선장을 믿고 모든 것을 선장한테 한마음으로 맡겨 놓고 침착하게 앉아서 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깥으로 찾는 사람들은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친다면 이 이름 저 이름 부르면서 막 살려 달라고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죠. 그런다면 선장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배는 뒤집히고 말죠. 그렇듯이 지금 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게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뭐이 다르며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것과 뭐이 다릅니까? 나는 어떤 땐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모습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자기가 한 대로 자기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 가지곤 저렇게 고생이다.' 하고 말입니다. 아픈 데 있으면 의욕이 생기질 않고 돈이 없으면 의욕이 안 생기고, 이거는 이 모습 하나 때문에 일일이 일일이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은 너무 광대하고 묘해서 한문으로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리라고 믿습니다. 가슴에 와 닿아야 할 텐데 가슴에 와 닿질 않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달구지라고 했다면, 그런 것을 시체의 용어로 시체의 용도에 따라서 나는 짐차라고 하고 무역할 때 쓸 수 있는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알아들을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첨단을 넘어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스님, 지금 병원에서 하혈을 하고 죽게 됐습니다." "응, 알았어."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요 문 바깥에 한 발 떼어 놓는 거와 저 우주 법계를 한 발 떼어 놓는 거와 똑같아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집에나 회사를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갔다 올 수 있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간다 온다는 생각을 안 해도 빛보다 더 빨리 그냥 한 찰나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더 빨리 몸속에 있는 그 업식들, 악업 선업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 가지고선 모두 그렇게 중용을 하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거를 자기 그릇대로
> 높이 가려고 하지도 말고 내려가려 하지도 말고
> 가는 거 끌어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막지도 말고
> 모든 거를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생활을 해나가신다면
> 보이지 않는 빈손들이 여러분한테 아마 모든 공덕을 베풀 것입니다.
> 그러나 바깥으로 찾는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 법문은 1994년 11월 1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anmaum Choir Festival

사람이나 짐승이나
몸속에 다 의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식이요 공체라.
다만 법을 들이고 내고 함이 없이 살고 있노라.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
모든 사람들이 오온의 점점을 함이 없이 하고
이 모두가 무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대행 큰스님 禪法歌 '한마음의 밝은 등불' 中에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All Beings, Living Together as One

한마음 음악제

2011.11.12 (토) 17:00 - 13 (일) 15:00, 19:0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출연 | 황병기, 이춘혜, 이승묵, 전제덕
한마음선법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 티켓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예매 | 세종문화회관 인포샵 02-399-1114-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
| 문의 | 한마음선원 031-470-3100 http://www.hanmaum.org

불자 세상보기

#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고대하며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연일 보도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기사를 보면 걱정을 넘어 불안해진다.

젊은이들은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쓰러뜨리기 위해 돌격하는 인상을 주고 정치지도자는 수년전에는 잘 몰라서 긍정적으로 찬성발언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며 이것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를 파는 행위라고 맹공한다.

여시절에는 잘 몰라서 찬성하고 지지했지만, 야가되니 많이 알게되어 반대한다는 논지이니 아연해진다.

근 20년전, 1983년 11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1차 총회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1986년 9월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고,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2월 통상교섭본부가 탄생되었다.

2011년 11월에 뉴라운드 협상을 선언하고 2005년 1월 서비스시장 및 쌀시장 등 개방이 포함된 이른바 도하개발 아젠다, 뉴라운드가 발효되었다.

뉴라운드의 목표는 더 자유로운 교역이다 모든 분야에서 관세를 더 낮추고 규제를 줄여 자유무역을 통한 지구촌 경제의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공산품이 수출돼 외화수입이 되고 값싸고 품질 좋은 외국물품이 수입되니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의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특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평등과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폐쇄시장경제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요즈음 쟁점이 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Investor State Dispute)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는 국제적 추세이다. 오히려 이 규정들은 해외에 투자,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자국의 법적특성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필요 없는 나라들이 있다. 그 대표적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개인, 기업, 국가 간 서로의 소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체계가 다르다. 우리는 미국하고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싱가포르, 인도, 칠레, 페루, EU, 아세안 등과 체결했다. 만일 이러한 규정들을 부정한다면, 국제거래에서 자칫 큰 손해를 받을 수 있다.

기체결한 해외주요국들과의 특정 수출품목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무역협회자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휴대폰, MP3플레이어, TV, LCD모니터, 자동차, 유조선, 타이어 등은 국내소비량을 훨씬 넘어 수출되었다. 해외에 우리제품만을 팔려고 하고, 그들 국가의 제품을 거절한다면 우리나라와 무역하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체결을 반대하는 견해를 보면 농축산업 주요품목 일정기간 관세철폐유예, 중소상인보호장치 확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안 전성확보, 금융세이프가드실효성강화및 국내보완대책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등이다. 그리고 농어민의 수입 감소를 드는데 농수산품의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공산품의 판매이익의 일부금액으로 격감된 수입원을 충당시키도록 제도화하고 국내소비에서는 신토불이 정신에 의해 외국산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그 소비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농약을 사용할 수 없어 인증된 농산품의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비는 지원해 주고 있다. 기타 문제는 운영하면서 보완되리라 본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경영행위에도 반드시 적용된다.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영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정자는 소속정당과 본인의 목적달성 그리고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칫 그 정당이나, 국가, 국민 모두가 피폐해 질 수 있다. 위정자가 이타행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그 정당은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고 영원히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경영을 배우고 익혀 국제협상 지혜를 키워야 한다. 여야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중지를 결집해 오직 국익을 위해 노력할 때 성장 가속도가 붙고, 국민소득 4만불 달성도 이루어지는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 "감히 비구니가 비구를 비판하다니…"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 소장

최근 여성들의 결혼파업, 출산파업 등은 우리사회의 저출산현상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여성할당제, 남성육아휴직제 등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이 전해온다.

이제 우리 사회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능력있는 사람이 책임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며,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차별받고, 여성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기 힘든 곳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날의 조계종단이다.

지난 2011년 9월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의 종법 재개정안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규위원의 자격은 "법리에 밝은 비구"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종회의원인 현근 스님은 "현재 비구, 비구니 숫자가 반반이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여성이 하는 세상이다. 전문성을 가진 비구니도 많은 현실에서 법규위원의 자격을 비구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비구니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제기를 하셨다. 하지만 "율법에 비구니는 비구를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구니가 법규위원이 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며 의장스님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법규위원 뿐만아니라 중앙심사위원이나 초·재심 호계위원도 '비구'만 할 수 있었다. 아무리 비구니가 법리에 밝더라도 비구니는 안되며, 비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비구니는 비구를 절대로 비판하거나 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종헌종법에 의하면 종회의원 총 81명 가운데 비구니스님은 10명으로 제한되며, 본사 주지는 물론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총무원장도 비구니스님은 할 수 없다. 만약 우리사회에서 총리, 교육부장관, 문공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은 반드시 '남자여야만' 한다면, 여자는 남자를 비판하거나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통합종단 조계종의 설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구니스님들은 결코 여성이라서 소극적으로 물러나있지 않았고, 열정적으로 정화불사에 동참하셨다. 현재 종단 소속 승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스님들은 교육과 포교, 복지의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비구니스님의 높은 교육 수준과 그 능력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행력'이나 '능력'이 아닌 '신체적인 차이'를 강조하며 그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여성불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법당의 가운데 자리에 '거사석'을 준비해서 남성신도만 앉게 한다거나, 여성보살은 공양간이나 법당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하지만 남성신도들은 사찰신도회에서 예산을 짜거나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즉 남성신도는 지도자적 역할을, 여성신도는 봉사하는 역할이라는 남녀차별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각 사찰에서도 나타난다.

2500여 년 전, 여성은 마치 집안의 재산처럼 처분되던 가부장적 인도사회에서 여성도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하시고, 비구니 교단을 설립하신 붓다는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참으로 위대한 남녀평등주의자이셨다. 조계종단은 이러한 부처님을 본받아 사회법보다 높은 가치기준과 잣대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법보다 한참 수준 낮은 남녀차별적인 종헌종법으로 조계종단은 문화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단 운영에서부터 각 사찰에 이르기까지 남자라서, 혹은 여자라서 하는 남녀차별적 사고방식은 비구승 중심의 신카스트제도를 공고화할 뿐이다. 위계의 가장 높은 곳에 비구스님, 그 아래에는 비구니스님, 또 그 아래에는 남성신도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여성신도가 있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계종단.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종법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포교를 할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몸을 받아 태어난 것들에는 각기 구별이 있지만 인간 사이에서는 그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사이에서 구별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 명칭에 의한 것뿐이다."〈숫타니파타 중에서〉

社說

# 돈으로부터 자유로와야 自主

목동 국제선센터가 11월 15일 개원 1주년을 맞는다. 템플스테이와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국제선센터는 법당도 갖추고 예불도 하는 도량이다.

주지 현조 스님은 "아직도 많은 지역민들이 '국제선센터가 절이냐? 법당은 있느냐?'며 묻는다. 명칭 때문에 지역 포교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때문에 스님은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국제선센터의 명칭을 '국제선센터 00사'로 개명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부결됐다. '국제선센터' 명칭을 유지해야 간화선을 세계화시킬 수 있다는 명분에서였다.

국제선센터는 국고를 지원받아 문화상품인 템플스테이에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이다. 조계종의 수행법인 간화선 홍포를 위해 종단이 설립한 포교당이 아니라는 말이다.

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에 참여하는 인사라면 종단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나랏돈을 여느 시주금처럼 여기며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2012년 있을 대선·총선 때문인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15.1% 증가했다. 나랏돈 씀씀이가 커지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문방위는 "특정교리 전파 및 교세 확장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문화·복지사업 및 종교간 화합을 위한 사업에 한정·집행해야 한다"며 "특정 종교 내에 한정되는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은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여수에서 열릴 세계불교도우회(WFB) 한국행사,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사찰방재시스템 구축까지 불교계 큰 행사·사업치고 어느 것 하나 문방위 지적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었다.

문방위는 국고가 지원돼 사용 중인 종요문화시설에 대해 '일부 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공간이 해당 종교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등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도 지적했다. 19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세우고도 조계종 총무원 청사로 사용 중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그 예이다.

불교, 개신교를 떠나 특정종교인만이 참여하는 행사나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선거를 앞둔 이 때, 지원 받는 종교단체의 세력을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로도 보인다.

그동안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은 통치성 자금 형태로 관행적으로 지원된 경우가 많았다.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종교계부터 호교 차원의 사업 등에 국고지원을 바라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의 저급한 전통문화 인식을 비판하며 국고지원을 거부했던 그 마음이 순간의 분심(忿心)이 아닌 평상심으로 여여하게 유지되어야만 한다. 정부 역시 종교단체간 형평성 운운하며 혈세를 물 쓰듯 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해야 나라경제가, 종교계가 건강해진다.

종교계는 정신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동체이다. 하물며, 돈 몇푼에 울고 웃고 해서야 되겠는가.

불교사회연구소의 대국민 조사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불자들은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에 무관심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어느 종무위원을 보듯 조계종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조고각하(照顧脚下) 할 필요가 있다.

남의 돈은 쓸수록 빚이 되지만 대중의 마음은 모을수록 힘이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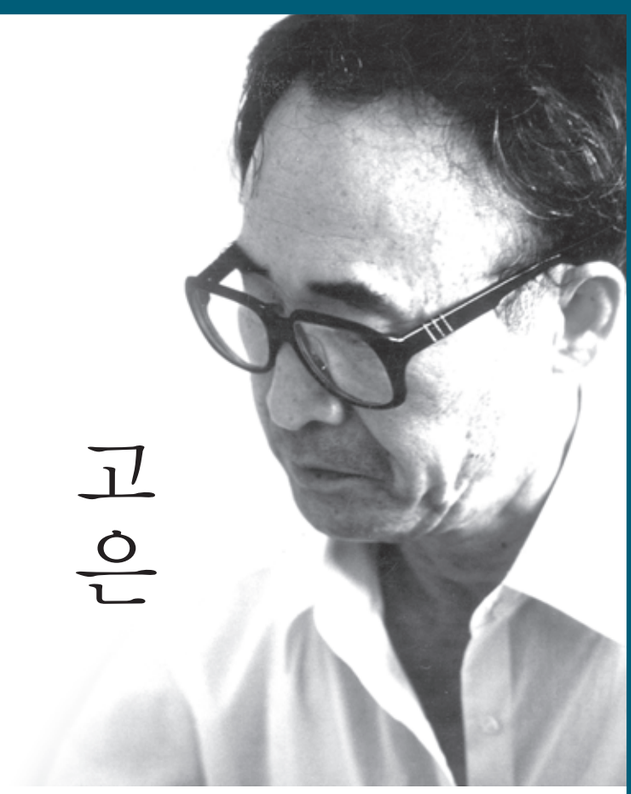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四柱
子平眞詮 精解
자평진전의 위상
자평진전은 적천수와 더불어 명리학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고전이다. 중화민국대의 대명학리자 서락오(徐樂吾)의 설을 인용하면, 이 두 가지 학설이 서로 보완이 되어야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평진전을 읽고 난 뒤에 적천수를 읽어야만 적천수의 기격(奇格)과 이국(異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충언하였다.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사주의 격국
사주격국은, 어느 한 사주의 분수(分數)와 지향점을 뜻한다.
그러므로 격국을 모른 채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엔진능력과 행선지를 모른 채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무엇보다, 격국논리는 생극제화를 요체로 삼는 자평진전으로 배워야만 그 명석한 원리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자평진전을 전국서점, 인터넷서점에서 지금바로 만나세요.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 우명 서상덕 역/저 · 산음 심효첨 원저 / 신국판 744쪽 / 정가 4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김영사
TEL : 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선 소설 禪

초조 달마에서 육조 혜능까지



고은

# "지금, 머리 위에 타는 불을 꺼라!"

**오랜 구도의 필력으로 고은 시인이 장편소설로 집대성한 깨달음과 선의 세계. 중국 선종 6대조 선사들의 치열한 삶과 법통을 이어가기 위한 목숨을 건 수행담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달마가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은?
방아만 찧던 혜능이 상수 제자 신수를 제치고 법을 이어받은 이유는?
혜가가 눈 위에서 왼팔을 잘라 구법의 의지를 바로 보인 사연은?

**1500년 전 선종사가 한 권에 담긴 구도소설의 완결판!**




## 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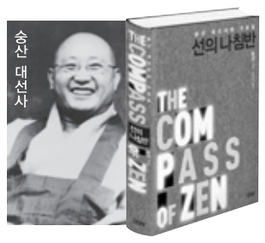
704쪽 | 25,000원

폐불의 난세와 피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구도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주는 가슴 벅찬 감동!
거대한 드라마와 같은 중국과 한국의 선종사를 꿰뚫는 장대한 스케일!
한편의 대서사시를 마주하듯 한번 읽으면 놓을 수 없는 강한 흡인력!

**소설 그대로가 살아 숨 쉬는 하나의 경전이다!**

## 선의 나침반 5쇄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단 하나의 지침서!**




**고해의 바다에서 지혜의 배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선의 나침반'!**
'한국의 달마' 숭산 대선사의 지혜와 깨달음의 가르침

현각 엮음 | 허문명 옮김 | 484쪽 | 18,000원

## 부처를 쏴라 20쇄

**미국인 제자 현각스님이 전달하는 숭산 대선사의 가르침!**




**당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부처를 쏴라!**
하버드 대학원에서 진리를 구하던 현각 스님을
수행자의 길로 이끈 숭산 큰스님의 위대한 선禪의 세계!

현각 엮음 | 양언서 옮김 | 289쪽 | 15,000원

## 날마다 해피엔딩 5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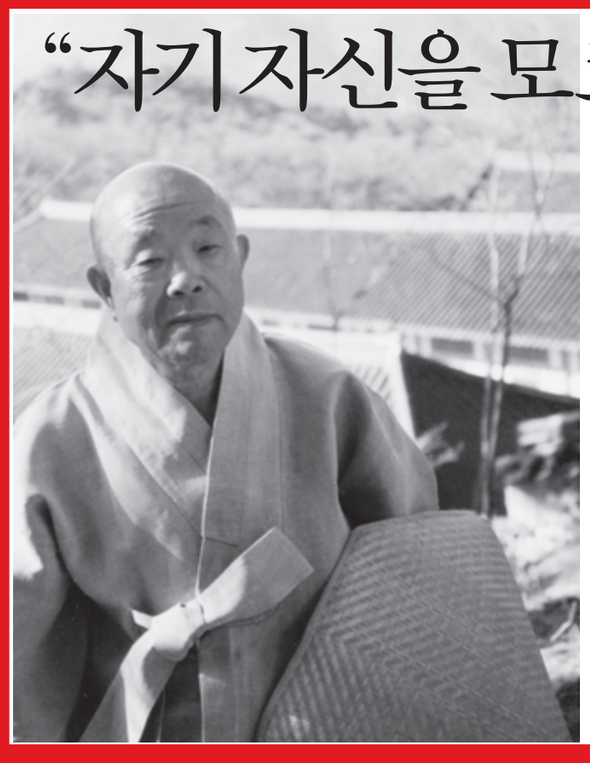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33가지 법칙**




**법상스님이 제안하는 쉽고 명쾌한 행복 처방전!**
즐거운 마음공부에서부터 맞춤식 인생 수업까지
내 마음을 길들이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방법!

법상 글·사진 | 264쪽 | 12,000원

#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암흑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종정 법전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의 자서전** 15쇄

# 누구 없는가




**한국불교의 대표 선승,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자서전! 그의 역사가 곧 한국 현대불교의 역사다!**
열네 살,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입산해 70년 동안 일생을 하루처럼 오로지 마음공부에만 정진해온 도인 중의 도인. 어지럽고 갑갑한 시대, 청정하고 온화한 진리의 빛을 밝히는 큰 어른의 귀중하고도 위대한 가르침! 한국 불교의 큰 기둥, 종정 법전스님의 치열한 구도적 삶을 7년간의 구술과 기록을 통해 최초로 복원한 살아 있는 불교사!

도림 법전스님 | 292쪽 | 14,000원